

그림자와 씨름하다

자전적 소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그림자와의 씨름

저작권 2021

그림자와의 씨름

요약 7 페이지

 소개페이지 17

1 장 33 페이지

 2 장 85 페이지

 3 장 133 페이지

4 장 173 페이지

5 장 201 페이지

 6 장 225 페이지

7 장 267 페이지

결론 287 페이지

부록 295 페이지

일리노이 대학교 제안서

요약

2000년 4월, 일리노이 대학교에 새로 부임한 조교수로 연구 및 저술 기회를 찾고 있던 에마누엘 페스트라이쉬는 우연히 그곳에서 개발된 새로운 온라인 학습 기술 시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페스트라이쉬는 원격 교육이 아시아의 학계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고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샴페인과 동아시아의 주요 연구 기관 간에 온라인 공동 강의, 공동 연구 및 기타 기관 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도쿄대, 서울대, 북경대입니다. 아시아의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일리노이대학교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디어가 매우 독창적이고 일리노이대학교의 기술이 매우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페스트라이쉬는 이 프로젝트에 자신을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페스트라이쉬는 어학연수 시절부터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에 능통했고, 일본, 한국, 중국의 명문 대학 최고 관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계획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6월까지 페스트라이쉬는 각 대학의 요구와 관심사에 맞춰 3개 언어로 된 복잡한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의 공대, 법대, 농대, 경영대 등 다양한 학과에서 폭넓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학과는 그가 아시아를

방문하여 제안을 논의하고 그해 가을부터 일련의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페스트라이쉬의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학과장과 교양학부 학장은 이전에는 그의 아시아 여행에 큰 지지를 보냈지만, 6월 이후에는 갑자기 그의 아시아 여행에 대한 자금 지원은 물론 제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스트라이쉬는 7월에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세 학교 모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대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고 북경대와 도쿄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패스트리히는 자신의 성공에 대한 영웅적인 환영을 받고 원격 학습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일리노이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서장이 이번 여행에 대한 학교 신문의 인터뷰에 평소와 달리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페스트라이쉬가 해외에서 돌아온 후 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는 제안조차 거부했습니다.

일리노이대학교 전체 캠퍼스는 물론 아시아 주요 3개 대학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제안을 동아시아학과가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페스트라이쉬는 학장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과대학의 힘을 질투했거나, 후배 교수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학장의 성격에 맞지 않고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진실은 페스트라이쉬가 자신의 직급을 훨씬 뛰어넘는 싸움에 휘말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서장의 반대는 FBI/CIA 팀이 수행한 기밀 불법 작전으로 인한 것이었고, 패스트리히 개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 작전은 미국과 아시아 간의 협력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와 요구가 결코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안을 파괴하고 필요하다면 페스트라이쉬의 경력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페스트라이쉬의 제안에는 인터넷 학습에 대한 제안뿐만 아니라 한국의 통일, 미국과 중국의 관계 등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도 포함되어 있어 해당 국가의 많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버전이 세 나라에 널리 배포되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던 바로 그 순간,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잠재적 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어디까지나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미국의 일부 정치인과 군사 계획가들에게 이러한 제안은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아시아에서 미군의 주둔을 유지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 천억 달러가 걸려 있었습니다.

4 월부터 이 프로젝트를 교묘하게 방해하기 위해 CIA(그리고 아마도 NSA)의 도움을 받은 FBI 의 비밀 팀이 페스트라이쉬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이 제안이 흥미롭고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으며(원격 교육은 궁극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것입니다), 미국 요원들이 거의 통제할 수 없는 한국, 일본, 중국의 단체들이 실행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군수 산업 단지의 강력한 세력(동조하는 현역 군대는 제외)은 이 프로젝트의 추진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팀은 이 제안을 철회할 수 있었지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2000 년 8 월부터 교수진과 관리자들은 팀으로부터 직접 또는 암묵적으로 페스트라이쉬를 멀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부서장은 그를 동료들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북한과의 화해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방부 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면서 페스트라이쉬는 당시 자신도 몰랐던 워싱턴 DC 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2000 년 12 월, 재앙적인 선거의 여파로 군부의 우익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조치는 부분적으로

페스트라이쉬의 노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페스트라이쉬에 대한 조치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갔습니다.

대학에서 그를 만나거나 그와 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군과 정보기관의 주요 요직에 극단주의자들을 임명했을 때, 정부와 학계의 다른 반항적인 세력에 대한 경고로 페스트라이쉬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2001년 2월 24일, 중국의 한 신문이 패스트리히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 체제를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공동체에 대한 이 비전은 '중국 위협' 로비의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페스트라이쉬를 즉시 '자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지 W. 부시가 이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시는 페스트라이쉬에 대한 개인적인 적개심은 없었습니다. 그는 군산복합체 내 파벌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콜린 파월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없었다면 페스트라이쉬는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결국 페스트라이쉬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살해 위협과 저급한 괴롭힘을 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그리고 평생 동안 경력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페스트라이쉬의 아버지는 지난 2 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은 아들을 면회하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말한 모든 문제가 몇 년 전에 제거한 뇌종양으로 인한 망상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가족을 위해 정교한 동화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페스트라이쉬는 아버지가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끌려갔고, 의학적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정신질환자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는 의학적 평가도 받지 못한 채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는 등 불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를 치료하기 위해 배정된 병원의 신경과 의사와의 만남에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그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미국 안보의 미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고, 심지어 그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논문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경과 의사들과의 만남은 지정학에 대한 브리핑이 되었고, 이후 부시 행정부의 전체주의적 통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1 년 4 월, 페스트라이쉬는 미국의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제안을 내놓았고, 여러 측면에서 부시 행정부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를 구체화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서서히 통제권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2001 년 9 월 11 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페스트라이쉬는 자신이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가끔씩 중요한 인물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는 대학과 미국의 모든 사람들로 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택 연금과 살해 위협을 받는 동시에 미국 국내외 정책에서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는 기이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2001 년 2 월부터 2002 년 여름까지 페스트라이쉬는 정신질환으로 병가를 냈습니다. 2002 년 4 월 이후 그는 더 큰 자유를 얻었지만, 그를 만나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18 개월의 휴직 후인 2003 년에 다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4 년에는 테뉴어 심사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페스트라이쉬는 2003 년에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고, 2004 년에는 연구를 위해 두 달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경력을 회복하는 길에 들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4 년 선거가 불법적으로 중단되면서 페스트라이쉬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살해 위협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페스트라이쉬는 강력한 자격 요건에도 불구하고 종신 재직이 거부되었고 2004 년 12 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페스트라이쉬는 주요 대학의 교수직, 전문대학의 시간제 일자리, 아시아와 협력하는 기업 및 NGO 의 기타 일자리 등 수백 개의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의 면접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의 지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면으로 CIA 의 정보 담당관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진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제안은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진 유일한 조직이 CIA 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페스트리히는 이 제안을 받고 일리노이주 시골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워싱턴 DC 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DC 에서 두 달 동안 실직 상태로 지냈고, 그 일자리 제안도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한국으로 보내 사돈댁에서 함께 살게 하고 사촌의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2005 년 2 월 갑작스럽게 국회의사당에서 강연을 하게 된 페스트라이쉬에게 한국 대사관 외교관과 한국 기자가 다가와 신임 한국 대사를 설득해서 그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페스트라이쉬는 법적으로 미국 영토가 아닌 한국 대사관에서 저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얻었고, 워싱턴 DC 에서 2 년 동안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그는 2007 년 한국의 한 작은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출발 끝에 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시 다진 그는 2011 년 더 유명한 경희대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신 재직권을

연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중을 위한 책이나 신문에 기고하는 일을 더 선호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동안 그는 한국에서 꽤 성공했지만, 미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고 학회에 초청받지도 못했습니다. 간혹 미국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패스트리히 교수는 경희대학교에서 종신 교수직을 부여받지 못할 것이 확실해지자 2018년에 한국의 소규모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19년부터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워싱턴 D.C.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9년 여름에 귀국한 그는 한국 대사관 및 한국경제연구원(KEI)과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물가가 비싼 북부 버지니아의 환경에서 생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 위기가 시작되면서 한국 대사관과의 계약이 취소되고 이번에는 두 달 동안 번역 일거리조차 구하지 못해 또다시 실직 상태에 빠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는 그나마 취업의 희망이 있는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수입이 생기기까지는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내와 자녀들과 헤어지고 빗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페스트라이쉬는 2020년 2월 워싱턴 DC에 머물던 중 또다시 당하고 있는 극심한 정치적 박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소속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큰 걸음을 내딛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미국 경제 및 안보 정책의 혁명적 변화를 설명하는 일련의 연설문을 작성하고 발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미국 비밀법과 기밀 권고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차단되었지만, (그의 대부분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페스트라이쉬는 한국 언론과 베트남 언론에 어느 정도 보도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열다섯 차례의 연설은 신중하게 작성되었고, 그 녹취록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 연설문을 바탕으로 한 책이 서울에서는 한국어로, 멕시코시티에서는 스페인어로 출간되었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버전도 출간되었습니다.

페스트라이쉬는 더 많은 연설문을 썼고, 자신의 글을 게재하는 유일한 매체인 Global Research 에 많은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는 가진 돈으로 독일어, 터키어, 프랑스어, 페르시아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및 기타 언어로 책을 번역하고, 캠페인을 위해 정교한 웹사이트(pastreichprez.com)를 개설하여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팔로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페스트리히는 조 바이든의 모호한 당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옹호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더 많은 청중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2021년 3월부터 새로운 진지함으로 선거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2000년과 2001년에 미국 리더십에 대한 그의 비전을 위해 아시아 전역에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투와 미국 대통령을 위한 전례 없는 글로벌 캠페인을 수행하기 위한 이 새로운 노력 사이에는 묘한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자 전투의 규모는 압도적이었고 위협은 암울했습니다. 페스트라이쉬는 다음 단계로 2021년 6월에 미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2021년 8월에는 계속되는 전투의 핵심 기관이 될 국제혁명당을 설립했습니다.

어쨌든 20년 동안 페스트라이쉬 본인 외에는 미국에서 페스트라이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수사는커녕 토론을 요구하며 나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개

21년이 지난 지금, 저는 2000년 7월에 시작된 문제를 냉정하고도 약간은 즐거운 마음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0년 아시아 및 미국 사람들과 교육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기묘한 우연과 특이한 사건들, 그리고 그 토론이 저를 예기치 않게 지정학적 전선으로 내몰아 의도하지 않았던 대립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사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제 성격의 특정 특성을 감안할 때 제 경력에서 어떤 종류의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에 대해 취해진 조치의 심각한 불법성과 부도덕성, 그리고 그 과정에 동료, 친구, 가족들이 부끄럽게도 가담했다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경력을 바라보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저는 기존 제도를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었고, 프로세스를 좋아하고 관료 및 관리자와 쉽게 친해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의 경력이나 급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 큰 미션이 성공하면 제 개인은 알아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급진적인 변화였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에 제가 광신자나 몽상가로 쉽게 치부되지 않았고, 동시에 진정한 제도적 변화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와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일리노이 대학교와 같이 잠자고 숨어 있는 기관에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에 제가 커리어에 접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정한 커리어 목표를 세우거나 특별히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노력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신 평범하지만 꽤 강력한 대학에서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만으로도 저는 심각한 위협이 되기에 충분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2000년 어느 날 아침, 저는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책상에 앉아 인터넷 시대에 대학의 미래를 위한 제안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제 머릿속에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갯벌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인 아시아학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운 규칙, 새로운 문화 기준, 국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까지 제안했습니다. 대학의 미래에 대한 저의 구상은 광범위했지만, 원격

교육의 잠재력에 대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제안으로 돈과 신용을 얻지는 못했지만, 저는 소유권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99년에 읽은 데이비드 맥컬러의 해리 트루먼 전기에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자주 인용한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누가 공로를 인정받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나중에 트루먼이 제가 배운 것보다 성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 말은 제가 2000년 여름에 개발하게 될 전략의 기초가 된 영감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미국에서 야심 찬 젊은이로서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기성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겠다는 목표를 추구했어야 했습니다. 제 분야에서는 하버드대 교수나 학장이

되는 것이 목표였고, 정계로 진출하면 상원의원이 될 수도 있었죠. 자신에게 즉각적인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정책에 자신을 던지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접근 방식은 일리노이 대학과 미국에서 정책 및 기획 분야에서 저에게 열려 있는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수준에서 점진적인 정책을 적용하여 긍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에 대응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나 미국의) 총장 같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은퇴 후 부유하게 살기 위해 인맥을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일본어문학 조교수로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의를 위해 시간을 투자했고 언젠가는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전략 기획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전반적인 목표는 항상 돈과 확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학계 정치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경험을 통해 나중에는 상당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의 성과와 실패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 아이디어가 혁신적이라고 믿었고, 그 아이디어가 제 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채택되어 실행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제 공로가 있든 없든). 제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는 동시에 대화에서 금기시되는 주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감

호텐스 코한의 야망은 저를 이 이상한 궤도에 오르게 한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호텐스 코한은 비록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못했지만 어린 시절 제 인생에 큰 힘이 되어준 할머니였습니다. 물론 예술적 재능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사려 깊은 여성인 어머니와 집중력 있는 행정가이자 복잡한 조직을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족, 특히 자녀와 손자들에 대한 야망이 대단하신 분은 바로 제 할머니였습니다. 손주들 중에서도 저를 미래의 열쇠로 여기고 계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할머니는 2 차 세계대전 중 금속 도금 사업을 운영하며 작은 재산을 모았던 자수성가한 가부장이었던 매니 코한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50 년대에 성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더 큰 목표는 상당히 정교한 사고를 가진 분으로서 가족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세 아들의 성공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잠재력을 보여준 장남 피터 페스트라이쉬(아버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텐스 코한은 아버지가 천하무적에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최고를 향해 노력하도록 밀어붙였고 아버지는 이에 화답했습니다. 1955년 16세의 나이로 예일대와 하버드대에 입학했을 때, 그는 브루클린의 야심 찬 유대인 소년들 사이에서도 드문 경우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배경과 오래된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존 WASP 들 사이에서 유능한 인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버지는 문화적, 정치적 의미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인트루이스 심포니의 전무이사로 시작하여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CEO로서 교향악단 경영의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또한 폭넓은 독서와 뛰어난 글쓰기, 효과적인 연설가로서 어린 시절 저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것은 그의 거친 말투 때문이 아니라(물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제가 결코 그만한 능력을 갖출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남의 장남인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몇 가지 주요 성격 특성, 특히 자신의 커리어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습관, 인간관계 구축과 기관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습관을 공유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할머니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할머니는 진지하게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고 할머니는 저의 리더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폭넓게 책을 읽고, 일에 깊이 몰입하고, 세상의 중심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셨죠. 그녀가 저를 그렇게 믿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주 뵙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제게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은 할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언니인 잔느 루프도 일찍부터 저에게 야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며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잔느 루프는 보수적인 사회에서 수많은 장애물과의 긴 싸움 끝에 룩셈부르크 최초의 여성 변호사, 판사,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이모는 또한 저를 우리 세대에서 자신과 비슷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잔느 이모는 정치와 경제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마치 판사나 교수처럼 제 대답을 주의 깊게 듣는 버릇이 있었어요. 이모는 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고, 성실하게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수년 동안 잔느 이모의 경력은 저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델이었습니다.

그 두 여성은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를 주었고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일대에 지원한 것은 전적으로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제 계획에 따른 것이었고, 국제사회가 동아시아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전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펌에서 좋은 자리를 얻거나 돈을 버는 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위치에 집중했습니다. 젊은 대학생 시절에도 저는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했고, 정치인이나 외교관들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 이상의 미국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와 부모님이 저에 대해 가졌던 전폭적인 신뢰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미국의 미래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어떤 지지나 사회적 승인 없이 그 목표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도 제 판단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고립시키고 겁을 주려는 노력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망률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혼자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 중 일부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제 커리어와 안전에 위험한 결정이었죠. 지금까지도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살해 위협이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괴롭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위협이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살해 협박을 받았지만 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끊기거나 협박을 받더라도 제 계획을 따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충격적인 경험이 저를 더 강인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제 행동에는 다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동료와 가족들이 저를 버리는 것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번영하고 안정된 미국에서 자란 제 주변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위협에 특별히 겁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2000 년 미국 사회에서 저를 다른 고학력 중상류층 전문직 종사자들과 차별화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깊은 자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약간 병적이었다. 죽음과 파멸에 관한 우울한 책을 즐겨 읽었고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했죠. 홀로코스트든 스탈린그라드에서의 독일군 작전이든 그런 책에 파묻혀 살았죠.

제 자신의 죽음은 저를 매료시킨 주제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제가 다섯 살 때 부모님은 어느 날 아무 설명도 없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병원 방문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제 뱃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것을 느낀 후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결국 수술을 받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요추천자를 포함한 일련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방문은 하룻밤을 묵고 수술 준비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섯 살이었던 저에게 이런 경험은 낯설었고 수술에 대한 생각도 낯설었습니다.

척추에 신경절이 비대해져 있었는데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양성 종양보다 암 종양일 확률이 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5일간의 휴가는 약간 흐릿했지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술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는 막연했지만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 경험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척추 신경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또한 뇌의 오른쪽 전두엽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언제 처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동시에 생겼을 것입니다.

뇌종양은 수십 년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뇌종양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1995년 31살의 나이로 한국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잠이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꾸곤 했죠. 꿈은 짧았지만, 대부분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아득한 기억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이상한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꿈의 에피소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꿈 전문 심리학자를 소개해 주셨고, 심리학자는 저에게 흥미로운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신경학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제안은 없었습니다.

1999년 봄,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강의하던 2년 차 때 정기 검진을

위해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진료가 끝날 무렵 의사는 저에게 다른 상담할 사항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경험했던 이상한 꿈의 시퀀스에 대해 이야기했고, 의사는 다음 날 뇌파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불규칙한 부분이 발견되어 MRI를 찍기로 했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스캔이 끝난 후 MRI를 디스플레이에 띄우고는 제 오른쪽 측두엽에 뇌종양이 생겼다고 아주 사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어지러워서 자리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 학기 동안 항발작제를 복용한 후 1999년 8월에 UCSF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집도이는 아버지와 인연을 맺은 유명한 미첼 버거(Mitchel Berger) 밑에서 일하던 젊은 한국계 미국인 의사였는데, 제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 전에 저는 그 수술이 저를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사는 다음 날 퇴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었지만 이듬해 9월부터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삶은 아주 빨리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 경험이 저를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 목적과 목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야망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돈이나 지위는 훨씬 덜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현대 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뇌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협응에 중요한 운동 경로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작은 조각이 남아서 제 자신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수면 패턴이 흐트러졌고 가끔씩 온몸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새롭고 다소 낯선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체력도 떨어졌습니다. 운동할 때 지구력이 떨어졌습니다.

2011 년 이후 가끔씩 오른발에 저림 증상이 나타났고, 그 후 협응력이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로 인한 흉터 조직이 굳어져 협응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도 협응력 저하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묘사된 위험한 세력에 맞서기로 결심한 데는 제 건강도 한몫했습니다. 학대받고, 소외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위험에 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설 당시 학계나 국제 관계에 종사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은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 기술된 군대 및 정보 커뮤니티와의 교류는 그 분야에 진출하려는 특별한 욕망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투명한 통치를 위해 최소한의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교육받은 중상류층 미국인 전체 계층의 기괴한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왜 동료들과 달랐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질병에 대한 제 자신의 경험과 죽음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부분 복합 발작 자체가 제가 인터넷 기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한 비정상적인 추론에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분 복합 발작은 평소에는 상호 작용하지 않는 뇌 부위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예상치 못한 결론이나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작을 통해 신비로운 목적의식이나 영감을 주거나 설득력 있는 비전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발작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발작이 한 요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의 고전 문학 연구

아시아 언어를 2개 이상 유창하게 구사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원어민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2000년 봄에 인터넷 교육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에 상당한 능숙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둘째, 18세기 문학에 대한 저의 비교 접근법^(th) 덕분에 중국, 일본, 한국의 주요 학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제안서를 소개하기 시작했을 때 주요 대학의 학자들에게 이 세 가지 언어로 이 프로젝트와 그 의의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문화와 현대 정치에 대한 복잡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메시지 맞춤화는 프로젝트 홍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종종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언어 학습은 결코 저의 목표가 아니라 아시아를 내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의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언어를 능숙하게 배우는 것은 처음부터 제 전략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1979년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하기로 결정한 제 인생에서 중요한 해였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교육 기회가 저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제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 집에 정착한 후 저는 로웰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립학교는 경쟁이 치열했고 , 아이비리그 대학에 학생들을 잘 진학시켰죠. 저는 저를 그곳에 보내주신 아버지에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로웰에서 아시아 언어를 배우는 것은 선택 사항이었지만 저는 아직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70%였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에 익숙한 친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시아 문화는 제 가족에게는 낯설었지만 사교 활동을 통해 제게는 꽤 친숙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나중에 얻은 이국적인 것에 대한 단순한 매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83년 예일대학교에 입학한 첫 학기에 저는 불문학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부모님 모두 불문학을 전공 하셨고 저는 고등학교에서 고급 프랑스어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일대 수업은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독서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과정을 계속했다면

언젠가는 제 페이스를 찾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수강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저녁 식사 후 강의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강의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읽고 수강하고 싶은 흥미로운 강좌의 목록을 만든 후, 마침내 가장 매력적인 강좌는 '번역으로 보는 중국 고전 문학'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과목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막 마친 열정적인 젊은 교수인 강이선 강사가 가르쳤습니다. 마침 하버드로 자리를 옮긴 스티븐 오웬(훗날 제 지도교수가 되었던)이 맡았던 자리를 그녀가 맡은 첫 학기 강의였습니다. 쉰 교수는 저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며 이 수업을 듣고 중국어를 공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다양한 고대 중국 시를 읽고 중국 철학의 세부 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마치 제게 주어진 사명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일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합한 환경이었어요. 중문학 전공 학생 수가 적었고 교수진도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마치 제가 차세대 아시아 전문가가 될 것 같은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교수님들을 만나고 중국어에 대해 배우기 위해 사무실에 자주 들렀어요.

중국어 프로그램 책임자는 비비안 루라는 저명한 여성으로, 제가 한자와 중국어를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었습니다. 1950 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온 고학력 중국인 집안의 자손인 그녀는

저를 잠재적인 중국어 학자로 보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곧 틈틈이 중국어 단어를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사명감의 전환점은 *1587 년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을 때*였습니다: 레이 황이 쓴 <1587: 의미 없는 해>라는 책을 여름 동안 중국에 대한 폭넓은 독서의 일환으로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명나라의 중요한 지식인들을 선정하여 그들이 비대해진 명나라 관료제를 개혁하려는 용감한 노력이 어떻게 좌절되고 결국 실패로 끝났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1587 년이라는 날짜가 그 후 몇 년 동안 제 기억에 남아있었습니다. 황은 막강했던 명나라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1587 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해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저는 1987 년 예일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웬지 모르게 저는 미국에서도 명나라에 버금가는 규모의 심각한 문제가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책을 읽은 후 저는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1840 년대 아편전쟁으로 이어져 대제국을 굴욕으로 몰아넣은 서양의 부상을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제도에 대한 자신감으로 무시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로 서양인들이 중국인들이 공급하는 아편에 중독되어 서양의 지식인들이 아시아에 대해 진지하게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제 세대의 미국인들이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중국어를 안팎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틈만 나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집착했습니다. 중문학과 교수와의 교류를 통해 대만 국립대학교에 진학하고 밤낮으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뒤처졌어요. 처음에는 중국어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지만, 미국인을 피하고 중국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가능한 한 많은 책과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해 말에는 유창한 수준에 도달했고 중국어로 에세이도 여러 편 썼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저에게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자 윤리적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문학 교수가 되더라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4 학년이 되어 대만에서 예일로 돌아온 후 저는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제적으로 도약하고 있었고, 저는 제 역할은 중국 전문가가 아니라 아시아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일본어는 중국어와 상당히 달랐고 일본어 수업은 저에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만에서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일본어를 빨리 익히기 위해 제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1987년 예일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언어 및 문학 전공 학생 4명 중 한 명으로 졸업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미들버리 대학에 가서 일본어과 3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일본어 전공자들을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1년 과정의 어학 프로그램인 인터 유니버시티 센터에 입학하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일본에 계속 머물면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싶었고, 결국 히라카와 히로스케 교수님의 소개로 도쿄대학교 비교문학과 연구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어만 말하고, 일본어만 읽고, 모든 시간을 일본인과 함께 보내면서 18개월 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1년여의 공부 끝에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고, 일본어로 쓴 석사 논문을 포함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1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했는데, 그곳에서 들었던 과목은 대부분 한문이었지만 일본 문학 과목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뛰어난 학생들을 많이 만났고, 저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도교수님이셨던 스티븐 오웬 교수님도 제 생각에 동의해 주셔서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하버드에서 한 학기 동안 한국어를 공부한 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공부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제 논문은 궁극적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중국 토속 서사의 수용에 관한 것이었고, 세 언어 모두에서 많은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언어들을 배워야 하고,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문학 연구가 아니라 아시아가 미국에 절대적으로 중요해질 다음 지정학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98 년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아시아 언어를 사용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즉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자금이 부족한 인문학 프로그램의 또 다른 지역 전문가로 취급받았습니다. 아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주요 대학에서 아시아 언어가 주변적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

어린 시절부터 심어준 자신감, 할머니와 부모님이 저에 대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제 자신의 필멸의식이 결합되어 제 운명을 좌우할 독특한 사명감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언어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덕분에 저는 미국인으로는 거의 할 수 없는 비전을 폭넓게 표현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연구 분야의 국제 협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복잡한 다국적 제안을 내놓기 위해 제 모든

학문적 경력과 하버드에서의 승진 가능성을 걸고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테뉴어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는 주변 선배 교수들의 주장은 제 행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전 경험을 통해 제 직관을 따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계속할 의지도 있었습니다.

1 장

원격 교육 계획과 내가 지불한 대가

2000년 3월, 제가 근무하던 일리노이 대학교의 외국어 건물에서 원격 학습 수업의 시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2년 전에 부임한 일본어문학 조교수로 대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막 이해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에 놀랐습니다. 멀리 일리노이주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화상 회의를 통해 선생님께 생생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단 몇 분 동안만 수업을 시청했지만 며칠 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할수록 이 새로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디케이터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도쿄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원격 수업의 가능성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한 것도 아시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 문학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시아와는 거리가 멀었고, 주변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졌던 한국의 전통이나 현대에 관한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¹⁴학과에 아시아에 대해 잘 아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들의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었고, 제가 연구하는 18세기 지성사나 현대 아시아 정치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읽고 다른 사람들과 해당 언어로 제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상 회의를 통해 먼 거리에 있는 교수와 학생, 또는 다른 교수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일리노이대학교가 가진 기술 분야의 놀라운 이점을 활용하여 아시아에 있는 친구들과 연결하고, 아시아 언어로 세미나와 수업을 진행하며, 연구와 교육에 대한 완전히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접근 방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주는 의미는 제 직업과 업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1998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원하던 일자리를 얻지 못한 후 관료적 불협화음으로 인해 일리노이 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대 동아시아학과와 비교문학과는 공동 교수 임용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란 중서부 지역에서는 흥미로웠지만, 일리노이 대학에 대한 제 감정은 다소 양가적이었습니다. 아시아학 프로그램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곧 더 좋은 학교로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고전문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가르치는 일이 때때로 자극적이긴 했지만 대부분 지루한 일이었죠.

한국과 일본에서 제 친구들은 제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에 능통한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저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가장 가난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의 문학 교수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비즈니스나 정부 또는 다른 분야에 진출해 국제적인 싱크탱크의 수장이 되면 제 능력을 인정받고 제 능력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4월 온라인 교육의 잠재력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저는 제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교육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국제 교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일리노이대학교 외에는 다른 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밤늦게까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화상 회의와 인터넷 기반 교육을 활용해 일리노이대학교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였고, 부와 명성을 얻고 제 삶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연구와 교육을 위한 화상 회의 및 기타 형태의 전자 통신을 통해 중국, 일본, 한국의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는 원격 교육(당시에는 일리노이주에 한정)과 컴퓨터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선두주자였습니다. 화상 회의를 통해 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관리자가 될 수 있다면(당시에는 제 성격과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제 경력의 잠재력은 하버드보다 더 크거나 학계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잠재력을 확신했고, 연구에 집중해서 종신 재직권을 얻어야 한다는 선배 교수들의 주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일리노이 대학교는 저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가 저에게 그러한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만 그럴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일리노이 대학교는 물론이고 교수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관점은 제 주변의 학자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원격 학습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학자이고 학자들이 공유하는 가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일리노이 대학 안팎에서 저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학장이나 학과장이 불쾌해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마주친 고등 교육계의 거대한 물결의 선두에 서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말 그대로 한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원격 학습을 학생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서로 협업하고, 팀을 이루어 가르치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 세계에 도입하기 위한 제안서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연구 센터와 실험실을 연결하여 작업을 세분화했다가 나중에 다시 통합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할수록, 그리고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경력을 결정할 개념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동아시아의 다른 발전 상황과 겹쳐서 제 관심을 끌었고, 고전 문학에서 국제 관계로 더 많이 이끌었습니다. 2000년 봄과 여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북한과 폭넓은 교류를 시작하면서 동아시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겼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저의 제안이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에 전념했고, 제안서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점점 더 많은 분야의 동료 교수진에게 제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학과장이나 부서장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도움이 되긴 했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터넷 기반 연구와 교육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원격 교육, 온라인 세미나 및 기타 실험에서 협력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이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교육자, NGO, 학생들에 의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주도되었다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리노이대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은 아니지만 원격 교육과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동아시아 최고의 대학들과 협력하자는 제안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안이 만들어내는 세 나라 사이의 중력이 아시아 주요 대학의 일부 학자들과는 상관없이 일리노이대학교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추측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석사 학위를 받은 도쿄대, 친한 친구들이 교수로 있는 북경대, 그리고 제가 1년간 공부했던 서울대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공과대학에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5개월 전에 저는 인문과학대학의 야망 부족과 답답한 관료주의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미국 내 상위 5개 대학 중 하나였던 공과대학의 교수진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과대학은 대학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유명 교수진이 대부분 포진해 있었습니다.

저는 공과대학의 모든 학과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짧은 소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40여명의 교수님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아시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몇몇 교수님들과는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 훨씬 더 많은 교수님들께 메일을 보냈고, 많은 분들로부터 열렬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저는 글로벌 원격 학습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대에서 만난 교수님들은 제가 제안한 개념을 탐구하는 데 훨씬 더 열정적이었고, 그들의 통찰력은 원격 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공학, 법학, 경영학 및 기타 학교와의 교류가 진전되면서 인문과학대학과 협력하려는 시도가 점점 더 좌절되었습니다. 학과장과 다른 고위 교수진은 제가 제안한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기에는 최근 몇 명의 우수 교수진을 잃은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의 침체된 분위기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공과대학의 교양과목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학장의 압력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관료주의적 문제들이 있었지만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학장, 부학장, 학과장과의 사이가 좋았습니다. 물론 학과장이 저에게 보답하지 않고 자신의 수업 몇 개를 대신 가르치기를 원했을 때와 같이 사소한 긴장의 순간이 가끔 있었지만 말이죠.

그러나 FBI/CIA 팀이 제 사건에 배정되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저와 제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런 사소한 긴장감을 모두 찾아내서 부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까칠함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당시에는 제가 던진 아이디어가 이 정도 규모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2000 년은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로,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모종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서둘러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몇몇 고위 인사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과의 협상에서 이룩한 것과 같은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00 년 10 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과 임기 말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미 최고위급 군부와 정보기관에서 심각한 반발이 시작되었고, 이는 뒤이은 혼탁한 선거로 번져나갔습니다. 동아시아의 긴장이 해소되면 무기 시장이 사라지고 이 지역에 미국의 주둔에 대한 수요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전을 너무 멀리까지 허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룹들은 그 수가 적지 않았고, 이미 동아시아의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말 그대로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다. 이들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군사비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미사일 방어와 고가의 첩보 위성 시스템 등 가장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다른 역할을 생각해낼 상상력과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FBI, CIA 및 기타 기관이 그러한 침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기밀 지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저는 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일찍부터 정보에 의해 태그가 붙었습니다. 물론 꼬리표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에 능통하고 아시아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진 소수의 미국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서울과 도쿄 주재 대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예일대 동창인 이우찬과 1년 전 국무부에 제게 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관심을 가졌던 직업은 국무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미 상당한 양의 파일이 존재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처음부터 적대적인 요소로 인식되지 않았고, 오히려 적어도 지휘 계통의 아래쪽에서 잠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전에는 저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 4월 일리노이대학교 캠퍼스에서 교수진과의 토론을 통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리노이대학교는 공학, 농업, 법학, 경영학, 교육학, 음악대학이 있는 대학으로 모든 수준에서 미국 전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공학 교수들과 이야기할 때면 마치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홍보한 아이디어는 약 15개 부서에서 소액으로 제공한 아시아 여행 경비를 충분히 모금할 수 있을 만큼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낀 교수진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전체가 회원으로 있는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일리노이대학교가 아시아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장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군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려한 것은 원격 교육과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저의 아이디어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입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군사비 지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왜 그들이 제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 않거나 다른 일을 제안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사실

관료적인 이유로 저에게 배정된 CIA 직원들은 저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결국 연락을 하긴 했지만), 시스템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복잡한 양방향 방식으로 원격 학습을 사용한다는 개념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국경을 허무는 것이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것이었지만, 미국에 대한 외부의 영향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수익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제 활동에 대한 기밀 브리핑을 본 투자 은행들은 기술과 그 결과물인 원격 교육 시스템이 교육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막대한 영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기술이 최대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해 아무런 대가 없이 교육에 혁신적인 일을 하겠다는 저의 프로젝트는 CEO가 아닌 교수들의 지도 아래 교육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 투자 은행은 매우 적대적이었고, 분석가들은 제 작업 내용을 읽은 후 제 계획이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며 민간 부문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0년 5월,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제안서 형태로 아이디어를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나라 최고위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제안서를 통해 접근할 동아시아의 3개 대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각 대학을 진정한 국제적,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서를 맞춤화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내에서 설득력이 있고 현지의 우려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제안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안서를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정중하게 번역한 다음 제안서가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해서 검토했습니다. 이 방식이 성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았지만, 제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일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글쓰기 능력, 언어 능력,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학 총장이나 미국 상원의원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저는 많은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들이 이들 국가가 서로, 그리고 미국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비전을 지지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요 대학의 미국인으로서 저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복제할 수 없는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직급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그 수준의 정책을 통제해야 하는 정부, 금융, 법률, 컨설팅 분야의 권력자들에게는 지휘계통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셈이었습니다.

이미 도쿄, 서울, 베이징의 교수들에게 제 아이디어에 대해 문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리노이대학교가 가장 유명한 대학은 아니지만 엔지니어링과 원격 교육 분야의 장점은 중국, 한국, 일본의 유수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기에 충분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친구인 전기공학과 케빈 김 교수의 소개로 서울대 대학원 학장을 소개받았고, 이후 여러 주제에 대해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돈독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찮게도 대학원장님은 저와도 잘 알고 지내던 국문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케빈 김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수석고문을 맡았던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에게 연락해볼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김태동 교수와도 친분을 쌓기 시작했고, 그는 제 제안서를 흥미롭게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과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한국어로 상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미국인 교수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제가 한국 정책과 사회의 사소한 부분까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김태동에게 편지를 썼을 때 내가 선을 넘은 것 같았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하면서 동아시아 통합의 기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걱정이 많았다.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명료한 미국 학자가 동아시아 통합을 옹호하는 것은 외교관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국내외에 암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제가 가졌던 선한 의도와 법적 권리가 무엇이든 간에 그날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NSA와 CIA가 FBI 및 기타 조직과 협력하여 저를 약화시키기 위한 낮은 수준의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팀의 성격과 임무가 바뀐 것 같지만 내부 문서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작전은 처음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제가 보낸 이메일이 수신되지 않거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 또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보낸 편지가 분실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저의 진전을 늦추지 않았고, 동아시아의 통합에 대한 좋은 감정의 물결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000년 5월, 저는 대학 행정부 구성원 몇 명에게 연락을 취해 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처음에 연락한 사람의 수가 매우 적었고 지침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5월이나 6월에 학장, 부학장, 학과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외에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모든 재미와 게임으로 인해 저는 캠퍼스 내 여러 부서에서 여행 경비를 지원받았지만, 정작 제 부서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다소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 프로젝트를 약화시키려는 기밀 캠페인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저는 배후의 손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임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 내에는 제가 시도하는 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충되는 지시가 뒤섞인 간섭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이기 때문에 정보기관이나 컨설팅 회사에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피해망상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또한 제 파일의 내용이 상당히 확장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매우 유능한 정보 요원들이 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어리석은 프로젝트였지만, 그들은 저에 대한 많은 자료를 읽었고, 제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언어로 한 복잡한 주장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제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데 성공하면서 저에게 정치적인 기술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복잡한 정책 제안서를 혼자서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옹호하는 방식은 당시 널리 유포된 제 프로필 초안을 작성하는 데 참여한 심리학자가 주목할 만한 실력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를 막으려는 FBI 담당자들의 초기 노력은 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제시 델리아 인문과학부 학장과 찰스 스튜어트 부학장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융통성 없는 입장을 취하는지 밝힐 수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원격 교육으로 전환하면 공과대학에 비해 자신들의 힘이 줄어들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존재했지만, 이 이야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기밀 권고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학과와 대학 내에서는 열의가 부족했지만 캠퍼스 전체에서, 그리고 제가 소통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학들에서 제 제안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간섭 캠페인으로 멈추기에는 흐름이 너무 컸습니다. 그 흐름은 제가 서울, 베이징, 도쿄를 방문해 그곳의 최고위급 인사들과 이 제안에 대해 논의하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이 제안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고, 저는 큰 돌파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여러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5월에 일리노이 대학의 리처드 허먼 총장에게 편지를 제출했고, 제임스 스트루켈 총장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허먼 총장은 이미 제가 일리노이 대학의 잠재력에 대해 쓴 편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학장은 제가 총장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총장과 학장 모두 제 제안에 매우 긍정적인 지지 서한으로 응답했습니다. 델리아 학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장의 부정적인 반응은 어느 정도는 영역의 문제였습니다. 델리아 학장은 예산 규모가 훨씬 큰 공과대학과 협력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이죠. 커리어 후반에 저는 델리아의 우려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원격 학습의 오용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델리아는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고,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 왔을 때 스타트업 패키지를 주셨는데, 그분은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제안에 대한 적대감은 오히려 다른 요인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델리아는 4월 초에 제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지침의 출처를 공개하지 말라는 권고(아마도 FBI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와 함께 접근했습니다. 8월에는 많은 교수진에게 저와의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내부 메모가 발행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불법적인 메모에 대해 들었고,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기꺼이 일하고 있는데 메모를 발행하는 것은 너무 노골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직원과 관리자에게 보낸 이 공문은 사적인 내용이었지만 기밀은 아니었습니다.

5월 말까지 저는 2000년 7월에 서울, 베이징, 도쿄를 방문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일리노이 대학의 여러 부서가 이를 지원했습니다. 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만들자는 제 제안은 대학의 다른 교수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대학의 잠재력에 대한 이러한 이상주의는 애들레이 스티븐슨의 시대에 더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울대학교의 몇몇 친한 친구들에게 제 제안서를 전달했을 때 서울대학교의 최고 행정가들 사이에서 더 큰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사려 깊은 분으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영문과 백낙청 교수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제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이후 몇 달간 친하게 지내던 전기공학과 케빈 김 교수는 당시 대학원장이었던 우종천 교수님께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대학원장은 서울대 재학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국문과 권 교수님이었습니다.

우 대학원장은 내 제안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한국에 관심이 있는 미국인 학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오히려 즐거워하는 듯했다. 그는 과학자였는데, 한국어로 정교하게 이메일을 써서 한국의 문화와 운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미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는 만난 적도 없는 사이였지만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 학장은 제가 작성한 여러 초안을 꼼꼼히 읽어보았고,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뻐합니다. 저는 그와 수백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인터넷 기반 학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4개 학교가 인터넷 기반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힘을 합쳐 아시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자는 순수하고 고무적인 제안을 각 대학 교지에 게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교수님들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학교 신문의 기사 컨셉에 대해 최고 관리자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홍보에 대해 너무 조심스러워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긍정적인 사용 가능성에 대한 더 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제안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이미 미국 국가안보국과 다른 조직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깊이 관여한 오피니언 리더로 유명한 백낙청 영문학 교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서울대 학생신문에 기고했던 글을 새로운 버전으로 수정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렸죠. 그 글에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대북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여러 언급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 교수는 며칠 후 우종천 대학원장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을 첨부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메일에는 제가 제안한 논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저는 제가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느꼈습니다. 백 교수는 한국에서 널리 존경받는 지식인이었고, 서울대가 그런 편지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한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시아와의 통합,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자신감과 목표의식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열정으로 남은 과제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영문학 박사과정에 있는 절친한 친구 유희석 씨가 제안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과 서울대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안서는 꽤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수정 제안서는 동아시아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이 일본, 한국, 중국과 협력하여 유럽 공동체와 동등한 경제 단위를 형성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또한 비무장지대를 넘지 않아도 되는 원격 교육이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이러한 온라인 교류가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제안은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 스쿨이 2001년부터 스튜어트 J. 소튼 교수가 이끄는 평양 김책공업종합대학과의 프로그램에서 채택한 것입니다.

제 작업의 다음 단계는 도쿄대학교에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쿄대에서 5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도쿄대가

제 적성에 가장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도 제 전 여자친구였던 고바야시 요시코의 지도교수였던 다카다 야스나리 교수(도쿄대 영문학과 교수)는 제가 1999년 방문 교수로 그곳에서 연구할 때 매우 친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포스트 구조주의 비평의 대가인 하스미 시게히코 도쿄대 총장의 특별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고, 고마바 출신 문학도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과 인연이 있었고, 대학원생이 번역을 마치자마자 일본어 버전의 제안서를 타카다에게 보냈습니다. 다카다는 관심을 표명했지만 너무 바빠서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다른 교수님들께도 제안서를 보냈고 많은 분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경대학교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북경대학교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경대학교에 중국어로 된 제안서를 보내기 전에 다른 세 대학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두위안청이라는 매우 유능한 중국인 학생을 연구 조교로 두고 있었는데, 그는 번역을 훌륭하게 해냈을 뿐만 아니라 북경대학교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유용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곧 원격 학습과 원격 공동 연구의 잠재력에 대한 제 아이디어를 잘 반영하는 동시에 이러한 교육 혁신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새로운 역할과 연결시키는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당시 북경대학교 비교문학부장이었던 엔샤오탕 교수에게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엔 교수는 중국과 일본 문학 전문가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연구 분야도 저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닌 진지한 학자였기 때문에 제 제안에 대한 그의 의견은 매우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일리노이 대학의 부총장이자 북경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로 영어에 능통하고 교육 정책의 주요 개혁가로 꼽히는 민웨이팡을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민 교수는 당시 북경대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민 교수는 제가 베이징에 도착하면 만나자고 제안한 메모와 제안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원격 교육 부서의 책임자인 허젠전에게 연락하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즉시 허우 교수에게 편지를 보냈고, 우리는 처음부터 잘 맞았습니다. 사실 허우 교수와 저는 그날 이후에도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고, 2005년에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연락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북경대에서 어떤 돌파구가 열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결국 저는 화상 회의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안서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쉽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접촉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논의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저는 이번 출장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워싱턴 D.C. 코리아 데스크의 책임자였고 나중에 베트남 대사가 된 데이비드 시어에게 전화를 걸어 제 제안의 성격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부 사항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며 이메일로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시어에게 이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한과의 교류가 개방된 상황에서 엄청난 기회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어 총리는 좋은 생각이라며 내가 돌아온 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적절한 소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저는 대학 신문인 데일리 일리니에 제 제안서를 게재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대학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를 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데일리 일리니에 전화를 걸어 저희 프로젝트와 아시아 방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3세 정도의 젊은 청년이었던 기자는 제 제안서를 그대로 실는 대신 제안서와 제 업무에 대해 인터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2000년 7월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 주에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학교 구성원 대부분은 일리노이대학교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군산복합체의 고위층에서는 경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함께 통합된 동아시아의 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동안, 저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발가락을 밟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미국에서 제 행동에 대한 압도적인 침묵을 단순한 관심 부족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8월이 되자 미국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는 퍼펙트 스톰을 일으켰습니다. 고립주의자들과 중무장 장려 기업들은 앨 고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군사적 현상 유지에서 벗어나 글로벌 협력을 지향하는 클린턴의 정책이 지속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여름이 되자 고어가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한 군부 세력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2000년 7월에 국무부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저의 아시아 여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실무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이미 일리노이 대학에 CIA와 FBI 팀(정확한 팀 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진 것 같습니다)이 저를 감시하기 위해 캠프를 차리고 있었고, 그들은 실제로 매우 다른 행군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산복합체 내의 큰 파벌은 미국과 중국이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이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조치였고, 이를 막기 위해 거물급 인사들을 불러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세력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정책을 위한 전통적인 허브 앤 스포크 구도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달리) 전체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한국 및 일본과의 양자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안보 문제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었다. 이 교리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과 한국을 미국의 궤도 안에 두면서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 전략적 사상가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고전적인 분열과 정복 전략에 북한의 즉각적인

위협과 중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결합하여 아시아의 긴장을 유지하고 무기 판매와 군사력 배치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끝날 것이며, 국내에서는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 은행가 및 기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유일한 역할은 세계의 공장 역할이었으며,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 제안은 상당히 정교하게 작성되어 독자들에게 심각한 정책 제안으로 다가왔지만, 중국이 장기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논의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항상 잠재적 적대국으로서 불확실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이는 사람들이 중국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것을 방해하고 협상에서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충족했으며,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다른 소위 동맹국보다 중국이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상당했습니다.

저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이 미국과 의미 있는 협력적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데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심지어 다소 굴욕적인 조건도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상당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의 논리를 간파한 군부 인사들이 있었지만, 우익 인종주의 단체(제가 사는 일리노이 주에서 꽤 활동적이었던)의 지원을 받은 미국의 매파들은 그러한 아이디어가 결코 빛을 보지 못하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관찰하는 팀에게 주어진 명령은 제 영향력을 제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매우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제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상당히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자 그들은 낮은 수준의 간섭만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동아시아의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반응을 보였고, 일리노이 대학의 FBI 팀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6월 중순까지 제안의 기본 윤곽이 세 대학의 행정부에 전달되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폭넓은 지원과 캠퍼스 전체에서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있었지만, 학장과 학과장은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저와 직접 만나서 계획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으며 탐방 여행을 미루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은 제 테뉴어 문제에 대한 걱정과 노골적인 협박 시도로 해석되는 말만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목격한 일과 여러 사람이 사후에 비공식적으로 한 발언에 따르면, 델리아 학장은 제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막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불편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제가 상당한 논문을 발표했고 제 자격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정년을 앞둔 조교수로서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FBI로부터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는 기밀 지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델리아 학장이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공과대학의 캠퍼스 내 영향력이 커져 가난하고 힘없는 인문과학대학의 입지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우려와 어느 정도의 이기주의, 심지어는 학과 내 고위 교수진의 부패도 현실이었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고, 외부의 간섭이 없었다면 프로젝트는 쉽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대학 내 온라인 학습의 잠재적 파괴력에 대해 순진했던 것 같고, 반대를 단순히 반동으로 치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온라인 학습과 화상 회의의 잠재력을 그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여러 언어를 통해 시대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인터넷 기반 대학교육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전적으로 가능했지만 결코 실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교실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몰랐습니다. 전 세계의 교사들이 서로 상의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격 교육은 교수의 지위를 떨어뜨리고 교사를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국제화라는 명분으로 전 세계에 브랜드 대학을 마케팅하고 경쟁력이 없는 지역 대학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은행이 원격 교육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려는 의도를 알았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더 동정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가 대학 내 모호한 분쟁 속에 완전히 포함된 것처럼 보이도록, 기존의 긴장을 찾아내어 자신들의 행동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FBI와 CIA가 저를 조용한 파트너로 지정한 사람들의 숙련된 기술입니다. 당시 그룹 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꺼이 믿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유지하려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된 후배 교수와 관련된 다른 많은 사건들보다 훨씬 더 불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전임 부서장 Ron Toby와 학장 Delia 사이의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가 Toby와 신임 부서장 Jerry Packard가 제 제안에 대해 융통성 없는 태도를 보인 주된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요구한 것은 아시아에 있는 동료들과 연결하기 위해 화상 회의를 몇 번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들이 불쾌감을 준다고 해서 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세력들이 그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죠.

당시 저는 이 제안이 너무 중요하고 학장의 반대가 너무 비이성적이어서 델리아 학장이 싫어할 것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리처드 허먼 학장과 제임스 스투켈 총장에게 이 제안을 설명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두 분 모두 제 제안을 지지하는 공식적인 편지를 보내주셨고, 허먼 학장은 그 편지를 델리아 학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국제관계 부총장인 얼 켈로그 부총장실에서 저의 아시아 여행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허먼 부총장은 제 여행 경비는 LAS에서 지원하되, 앞으로는 다른 부서가 아닌 LAS와 직접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저에게 전달하면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 회의에는 몇 달 전에 제가 그의 임명을 위한 선거운동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패커드도 참석했습니다. 총장실의 다른 직원 몇 명도 참석하여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켈로그는 제 제안에 대해 "많은 논의의 주제였다"고 언급하며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매우 외교적인 태도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인상은 고위급 인사들이 매우 열성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고위층 인사들 중 상당수는 제 부서장, 부학장, 학장이 자신의 행동과 관련하여 기밀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켈로그는 제 부서장인 패커드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를 걸어 제안을 설명하는 제 편지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혀 응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슈트루켈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매우 지지하는 편지를 써주셨죠. 다른 사람들, 특히 제가 낙담하고 겁을 먹고 겁에 질려서 다시 학술 논문 쓰기로 돌아가서 모두가 이 모든 문제를 잊어버리기를 바랐던 델리아 학장님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제리 패커드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종신직이 아닌 교수가 자신의 필수 연구 이외의 프로젝트를 맡게 될까 봐 진심으로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발언이 솔직하지 못하고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연구나 제 출판물에 관심을 보이는 학과 선배 교수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 출판을 막는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제가 학문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패커드에게 "저는 임기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교환은 큰 오해였습니다. "종신 재직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일리노이 대학에서 종신 재직권을 주든 주지 않든 상관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학계 밖에서 제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커드는 제가 한 말을 조교수로서 자신감이 넘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 발언이 다소 억지스럽고 회의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켈로그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폭넓은 지지는 받았지만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대학의 공식적인 지원 없이 학장의 평범한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혼자서 가능성을 타진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제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만나자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인문대학에서 여행 경비를 일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로써 제가 소속 부서의 지원 없이 떠난다는 가장 큰 논란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제리 패커드는 저에게 다가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커피 한 잔 할 시간이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그의 강의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대학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부서장에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다음 날 커피를 마셨다면 패커드가 저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임용 심사와 나의 경험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했을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암시했을까요? 저는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 여행

서울 여행을 위해 시카고를 떠나기 며칠 전에는 정말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마지막 순간에 학교 신문인 데일리 일리니에 문의한 결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대학신문에 제 기획안을 실어달라는 요청에 따라, 저는 먼저 제 학교부터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출국 전날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콘셉트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고, 신문사에서 저를 인터뷰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일리 일리노이지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신문사로, 어떤 일에도 과감하게 나서는 것을 꺼리는 편이었죠.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2000년 7월 18일 서울행 비행기가 이륙해 착륙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과 남북한 교류의 획기적인 물꼬가 트인 지 한 달 만에 서울대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방북에 함께하지 못한 아내의 가족을 방문했을 때, 나는 높은 수준의 흥분과 기대감을 느꼈다. 진정한 화해와 통일의 길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느낀 바를 생각하면 저 역시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해 버스를 타고 서울대학교로 이동한 뒤,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대학원장 우 교수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우 교수는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 가방을 옆에 두고 의자에 앉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소 당황스러운 순간에 저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제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수백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는 제안의 개념과 그 잠재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대가 이 개념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하고 있으며, 추가 조치를 고려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총장에게 자문을 구했고, 조만간 몇 차례 시범적으로 화상 회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1995년 유학 시절 함께 일했던 국문학과 교수 권두환 교무부총장을 찾아갔어요. 권두환 부총장은 제가 보낸 제안서가 경제와 문화가 통합되는 이 시점에 한국에 매우 적합하다고 말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비록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서울대에서 이 제안에 대한 공감대가 다른 어느 학교보다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교수님은 미술사학과 박낙규 교수님이었습니다. 1995년 서울에서 고전문학을 공부하던 시절 대부분의 작업을 그의 연구실에서 했고, 그 후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었죠. 박 교수는 당시 화상회의의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충분한 준비를 하면 대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기 전에 동료들과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논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느낀 점은 서울대는 이미 이 개념을 도입했고, 다른 대학들과 함께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절친한 친구인 국문과 정병솔 교수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들은 바에 따르면 고위층에서 이 제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댁에 짐을 싸서 베이징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상당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베이징대 교수 기숙사의 작은 방을 예약하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에게 나눠줄 중국어로 된 제안서 20부를 준비했습니다. 서울행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에 자리를 잡자마자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매우 열정적으로 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칭화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가르치는 교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베이징을 방문하는 이유를 물었고 저는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제안에 대해 언급했고, 그는 끝도 없이 매료되었습니다. 칭화대는 베이징대의 주요 라이벌이자 강력한 기술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전부터 칭화대에 제안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안을 말했고 그는 흥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즉시 칭화대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고, 다음 날 캠퍼스를 둘러보고 고위 교수진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겐 너무도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중국 최고의 기술 대학에서 저와 이 프로젝트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술 전문가가 비행기 옆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 순간 이 프로젝트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고, 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영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북경대에서의 실제 만남은 조금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국제학술교류처에서 여러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사려 깊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의 허우 교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는 어떤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일리노이 대학과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가 하버드가 아니라는 사실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원격 학습과 관련된 우리 기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도쿄대학교에서 겪게 될 경멸은 전혀 없었습니다.

민 부사장은 당시 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지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미 방문이 그에게는 민감하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가장 가깝고 처음부터 저를 가장 지지해 주셨던 엔샤오탕 교수님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엔 교수는 일본과 중국 문학을 비교 연구하는 온화한 학자였고, 이전에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엔 교수는 베이징에 있는 동안 야후를 통해 읽을 수 있었던 매우 이례적인 이메일을 보내주었는데, 그 이메일에서 그는 대학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국제 협력을 위한 저의 제안에 동의하며 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 교수, 특히 학장이 보낸 그런 편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토록 이른 시기에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 후 그 이메일의 사본을 기록으로 남겨두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이메일이 나중에 이상하게도 사라져서 여행의

세부 사항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에서 보낸 이메일은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오키나와 나고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둘째 날인 7월 22일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것이 제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경제 통합의 중요성과 중국과의 협력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더불어 언론의 중심 화두였습니다. 일본 신문은 G8 정상회의 이후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시아가 G8 정상회의 논의의 초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장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관찰한 유럽 중심적 태도와는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할 커버 레터의 내용인 에세이 한 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직후 6개월 동안 도쿄대학교에 유학하러 왔을 때 방을 빌려주었던 코다테 가족의 집에서 나흘간 머물렀습니다.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이 가장 정겹게 기억에 남습니다. 같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와 다른 뉴스들은 아시아의 전례 없는 수준의 통합을 어떻게 활용하여 아시아의 새로운 지정학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로 제 마음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원격 교육과 대학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활동을 통해 이 지역의 새로운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진행되었습니다. 대학의 역할에 대한 혁명적인 개념과 신기술이 가져올 커뮤니케이션의 획기적인 변화의 잠재력이 결합된 이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지역 인쇄소에서 몇 시간 동안 컴퓨터로 원고를 작업하며 일종의 걸작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문을 읽고, 인터넷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인터넷 교육 제안이 어떻게 아시아의 다음 단계 통합과 연결되고 일본이 새로운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복잡한 논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북 정상회담, 중국의 WTO 가입 가능성,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을 배제한 G7을

비판하며 일본이 이웃 국가들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글을 더 자세히 쓰면서 저의 주장은 교육보다는 지정학에 관한 것이 되었고,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이후 제가 중국어와 한국어로 쓴 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안서와 함께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면서 한국 및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저의 주장을 확장했습니다. 한-중-일 3 국으로 구성된 유럽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설득력 있어 보였기 때문에 편지와 다양한 이메일은 말 그대로 저절로 쓰여졌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 인터넷 기반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일리노이 대학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제 일에 대해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역사적인 순간이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시아의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지나치게 거창했는지 여부는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코다테 가족에게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시간 단위로 컴퓨터를 빌려주는 컴퓨터 센터를 찾아 그곳에서 편지, 이메일, 기타 작곡 작업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일본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심화할 책임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동아시아의 국가 간 문제가 문화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내에 이들 국가 간의 협력을 제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말기인 당시에는 통합과 협력을 선호하는 정책이 일반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일리노이 대학과 무관하지 않은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프로젝트가 모든 수준에서 관련 국가를 위해 성공하고 인류가 기후 변화, 기술 개발 및 기타 새로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안서에 첨부할 정교한 커버 레터를 작성하기 위해 컴퓨터 센터로 가서 이 프로젝트의 역사적 중요성을 설명하고 일본이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했습니다. 물론 저는 순진하게도 아무도 이 노력을 무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이러한 통합을 지원하려는 노력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본 것에서 영감을 받아 몇 시간 동안 계속 글을 쓰고 수정했습니다.

도쿄대학교 고마바 캠퍼스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학과장 다케우치 노부오를 만났습니다. 제안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저를 지원하고 싶지만 원격 교육에 대한 세부 사항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음 해에 저를 객원 교수로 초빙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친구이자 동창인 토쿠모리 마코토와도 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일리노이 대학은 물론 아시아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제안을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낙규 교수님이 주신 서울대 교수 명부를 복사해 가지고 있었어요. 도쿄대 비교문학과에 주려고 복사본을 만들었죠. 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단과대 이름도 일본어로 번역했습니다. 두 대학이 최대한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도쿄대에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도쿠모리 교수님은 그 대가로 도쿄대 교수진 명부를 제게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는 도쿄대에서 아는 사람으로만 한정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이 매우 독창적이고 제 편지가 매우 강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그리고 일본이 중국을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캠퍼스 내 200여 명의 교수들에게 제안서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인쇄물로 우편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내 일부 관리자들은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도쿄대 교수 200명이 이런 제안을 받으면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사업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훨씬 더 많은 청중이 제 아이디어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

영향력의 규모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알게 되었지만, 그 부분은 확실히 사실이었죠.

저는 컴퓨터 센터로 돌아가 교수님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개별 교수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편지를 맞춤화했습니다. 그런 다음 편지와 제안서를 인쇄하여 도쿄대학교 고마바 캠퍼스 근처의 커피숍으로 가져가 평소 좋아하던 중국식 찻집에 앉아 교수님들의 이름과 주소를 손으로 직접 적었습니다. 찻집에 앉아 봉투에 적힌 주소를 봉투에 직접 손으로 적었습니다. 편지와 제안서를 봉투에 넣은 후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교수님들의 우편함에 넣거나 홍고 캠퍼스에 사무실이 있는 교수님들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끝날 무렵, 저는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폭넓게 다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안을 무시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제안에 진정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셋째 날이 끝날 무렵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도쿄 시나가와 역 근처에 있는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 들렀습니다. 그랜드 프린스 호텔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초고층 복합 건물입니다. 기차에서 본 순간 꼭 가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역에 내려서 걸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 행동은 제가 도쿄대학교 재학 시절(1988~1992년) 도쿄에서 살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책과 논문 몇 권을 들고 나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카페에 들러 두세 시간, 때로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곤 했죠.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제 급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급 호텔을 돌아다니는 것을 즐겼습니다. 지금은 그런 공간을 낭비적이고 끔찍한 부의 집중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2000년에는 아직 세상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니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커다란 창문을 통해 도쿄 남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바가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디지털 목록에서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제공된 이어폰으로

다양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U2 의 "With or Without You"라는 노래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진토닉을 마시며 그 노래를 30 분 정도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일본에 대한 제 복잡한 감정이 이 노래에 담겨 있었어요. 일본이 제 인생의 중심이었던 시절을 떠올리며(평생을 일본에서 보낼 줄 알았던), 왠지 모르게 일본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일문학 교수였지만 더 이상 일본 학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일본어 실력은 웬만한 미국인 전문가보다 높았고, 일본어로 석사 논문을 썼으며, 일본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왠지 모르게 일본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쿄대학교 고마바 캠퍼스에서 옛 여자친구인 고바야시 요시코 교수와 2 분간 짧게 만났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제안서 사본을 나눠주다가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안서 사본을 건네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6 년 전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묘하게 끝났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10 년 전에는 누가 우리를 볼까 봐 걱정하며 캠퍼스를 돌아다녔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여행이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여러 교수진으로부터 이 제안에 대해 매우 열정적인 이메일을 50 통 정도 받았으며, 조만간 화상 회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흥미로운 논의와 다케우치 교수의 이듬해 방문 교수로 오라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G7 회의가 끝난 직후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을 끝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까지는 거의 2 년이 걸렸고, 2003 년 여름에 두 달간 그곳에 머물기는 했지만 다시는 그곳에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비행기에 올라 시카고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저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엄청난 반응에 상당히 흥분했고, 비록 화려한 저녁 식사를 하거나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아마도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돌파구라고 생각했고,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대학들 간에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전통적인 성공의 길로 안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실이었지만 보상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 삶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했지만, 미국으로 돌아온 저를 맞이하는 환영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바로 내 나라였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로 돌아가기

제가 일리노이 대학으로 돌아온 후 벌어진 일련의 기이한 사건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고, 가족, 친구, 동료들 중 대부분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제 직계 가족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저와 2000년 8월부터 2001년 8월까지의 사건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찰한 패턴은 모순적이며 모든 수준에서 상당한 간섭 패턴이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저를 저급한 수준의 괴롭힘(컴퓨터 고장, ATM 문제, 자동차 고장, 부서 내 문서 분실 등)을 가하도록 배치된 정보 요원들이 있었지만,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제 처지에 공감했고, 어떤 경우에는 저를 괴롭히는 와중에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괴롭힘 행위는 본질적으로 유머러스한 것이었고, 때로는 스팸 이메일, 내 우편함에 있는 이상한 메모, 낯선 사람의 댓글 등 저를 희화화하고 비꼬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편지의 형태로 저에게 보낸 살해 협박이나 심지어 펜 옆면에 인쇄된 내용도 때로는 상당히 무서운 편지로, 때로는 제가

마치 팀의 일원인 것처럼 느끼게 하려는 유머러스한 농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비밀 파트너'와의 경험에서 관찰한 분열은 연방 정부의 깊은 균열이 최고위층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말이 안 되는 모순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제가 장기간에 걸쳐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았고, 때로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모든 전환점이 쉽게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CIA 와 FBI 요원들이 밤낮으로 저를 감시하는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지루한 일상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 지루했을 테니 그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 내에서는 단순히 관료주의적 문제였던 일들도 있었죠. 다른 교수진과의 문제는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도쿄에서 돌아온 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삼페인의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일문학 조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시아와 많은 미국인들의 생각을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제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찮은 존재인 교수가 정책 수립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바지에 비해 너무 커지면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사건은 누구에 의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널리 알려졌습니다.

삼페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가로수길에 있는 캠퍼스 근처에 있는 1920 년대에 지어진 목조 건물의 훨씬 멋진 아파트로 이사하는 작업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1 층 아파트는 제가 자란 워싱턴 대학교 맞은편 파크뷰의 집을 떠올리게 하는 목재 장식이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저는 같은 프로그램 대학원생 6 명에게 빌린 뱅에 가구를 실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대학원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다음 날 아무도 제 이메일이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아마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가구와 책 상자를 3 개 층으로 내려가서 트럭에 직접 실어야 했습니다. 이사 막바지에 한 중국인 학생이 나타나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사는 정말 힘들었어요.

FBI 요원이 대학원생 한 명 한 명에게 그렇게 일찍부터 제 이사를 도와주지 말라고 요청하거나 학과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너무 이상해서 저는 다소 당황스러웠고, 지금까지도 학생들이 제 메시지를 받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고 생각합니다(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어났던 것처럼).

새 아파트에 정착한 후, 저는 아시아에 있는 여러 대학에 재학 중인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의 친구로부터 사려 깊은 답장을 받았지만, 아시아 여행 전에 비해 아시아에서 저에게 오는 답장의 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중국의 정치 상황이 더 민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본과 한국은 사람들이 제 메시지를 받지 못하거나 제가 그들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당한 저급한 괴롭힘과 더불어 다른 이상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괜찮았지만 새 아파트의 장거리 서비스가 약 10 일 동안 작동하지 않았고, 여러 번 전화를 걸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서비스가 복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다소 의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저를 귀찮게 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국무부 코리아 데스크의 데이비드 시어와 제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부서장과 학장의 반대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고위층은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도록 만들고 싶었고, 독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FBI와 CIA 요원들을 시켜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캠퍼스에 있던 사람들은 저에게 화를 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점점 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느끼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가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유명한 도예가가 만든 그릇을 새 아파트 현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997년 결혼식 때 선물로 받은 그릇이었죠. 그릇에 넣으려고 생선가게에서 파란 열대 가재를 샀어요. 그릇에 담긴 가재는 꽤 눈에 띄어 보였고 저는 제 자신에게 가장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가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청소를 하고 이사를 갔을 때도 집안 어디에서도 가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끄러운 도자기 그릇에서 가재가 기어나올 방법은 말 그대로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를 끝없이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저는 이 사건도 침묵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하는 재미와 게임의 일부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에 대해 여러 일본 교수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였는데, 그 중 몇몇 교수들은 놀라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제 아이디어의 장점에 대해 도쿄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일본에서 온 이메일이 뚝 끊겼고 다시는 일본에서 온 이메일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답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00년 8월까지 저는 일본 학자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 다음 일리노이 대학교에 있는 친구 몇 명에게 여행에 대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답장 수는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여름 방학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여름방학이 이 이상한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에 계속 관심을 보인 몇 명을 발견했습니다.

얼 켈로그 부총장에게 성공적인 여행에 대해 편지를 보냈더니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는 모두가 돌아온 8월 말에 캠퍼스에서 회의를 열어 다음 단계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든든한 후원자인 브루스 보작 공과대학 부학장님과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다음 주에 미팅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시아에서 근무하던 2000년 7월 5일자 데일리 일리니에 실린 동아시아 여행에 관한 기이한 기사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저를 지원했던 교수진 중 한 명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였습니다. 기사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당시 부서장이었던 제리 패커드와의 인터뷰는 놀라울 정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페스트라이쉬는 동아시아 대학의 관리자들과만 대화할 것입니다. 그는 대학의 공식적인 대표로 활동하지 않습니다."라고 EALC의 책임자인 제리 패커드가 말했습니다.

"부서원들은 그에게 냉정을 되찾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Packard는 말합니다.

EALC는 페스트라이쉬의 여행에 어떠한 자금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 관리자들이 페스트라이쉬의 계획에 대해 "구매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페스트라이쉬는 다른 부서에도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지만, 패커드는 페스트라이쉬가 여행 경비를 대부분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기술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대학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 페스트라이쉬는 해외에서 더 큰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관료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라고 Packard는 말합니다. "중국은 관료주의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이라면 더욱 어렵죠."

제리는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가 학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리가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제 여행에 대해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상해 보였고, 아마도 제리에게 상당한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캠퍼스 내 12개 단과대학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대학 발전에 헌신하는 젊은 교수로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리의

성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캠퍼스 전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학과 후배와 인기 있는 프로젝트를 두고 대립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리는 저에게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공과대학 부학장인 브루스 보작을 만났을 때, 그 역시 제리가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제리가 그런 발언을 하게 된 데에는 대학 내부(그리고 아마도 외부)의 깊은 정치적 분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델리아 학장의 정치를 아는 한, 그것은 큰 실수인 것 같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교수 회의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학기에는 교수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 9월에 라스베이거스 대학 학장실에서 비서 중 한 명과의 만남은 제가 경험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돌아오자마자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제 성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몇 주 후 복도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인사를 했지만 매우 이상하게 보이는 태도로 저를 피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둘 사이에는 어떤 싸움이나 문제도 없었습니다.

9월 초에 저는 찰스 스투어트 부학장으로부터 여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사무실로 오라는 친절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델리아 학장의 서한을 건네주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그 순간부터 동아시아와의 모든 교류는 학장실에서 담당할 것이며, 저는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으니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스튜어트는 저에게 편지를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좋아했고 프로젝트 초기부터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스투어트에게 도전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스투어트가 매우

정치적인 부학장이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학장은 조교수인 제 행동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장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 생각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더 큰 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진행되는 인터넷 기반 수업은 학장의 도움 없이도 제가 기획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 제안은 이미 일리노이 대학의 다른 부서에서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대학이 가져야 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학장이 저에게 보낸 편지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학장을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자칫하면 학장직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공과대학의 해리 힐튼도 이러한 관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델리아 학장이 정치적 바보이며, 캠퍼스 내 다른 사람들이 결국 그를 정신 차리게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학장님도 이 모든 문제를 잊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8월 말에는 일본에서 중요한 이메일도 몇 통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도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인 사토 히로아키가 보낸 편지였는데, 그는 제가 그곳에서 공부하던 마지막 해에 저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계속 머물렀다면 꽤 친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죠. 그는 일찍부터 제 제안을 매우 지지해줬어요. 그는 제가 도쿄대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다카다 야스나리 교수가 매우 짜증을 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카다 교수를 비롯한 다른 보직 교수들의 주된 문제는 도쿄대가 워낙 명문 대학이기 때문에 서울대, 북경대, 일리노이대를 파트너로 삼자는 제안은 도쿄대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뭔가를 한다면 하버드나 케임브리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메일은 제 제안의 주제가 대학 내에서 널리 논의되고 있으며(저에게 연락한 사람이 전혀 없더라도), 상당한 반대파와 상당한 지지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몇 통의 이메일 외에는 그 논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8년 동안 단 한 명의 일본인 교수도 제 제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없었던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쿄대 교수 200여 명에게 제안서를 보낸 것은 제가 도를 넘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큼 열정적이었고, 처음에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여행에 대한 설명 어디에도 제가 할 수 없다는 말은 없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불분명한 방식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제가 옹호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일리노이 대학교가 향후 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간을 내어 제 행동에 책임을 지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긴밀한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는 다카다에게 우편으로 보냈고 이메일로도 사본을 보냈습니다. 그에게서 답장은 받지 못했지만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2015년 경희대학교 행사에서 한국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눴고 도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991년에 수업을 들었던 일본어 문학 교수 신지 노부히로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노부히로 교수님도 인터넷 교육 제안에 대해 다카다 교수님께 연락해 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는 제가 한 일이 어떤 식으로든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보다는 관리자로서 다카다 교수의 민감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저는 다나카가 희생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 제안에 대해 화를 낼 이유가 없었고, 일리노이 대학의 찰스 스튜어트처럼 저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저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류 강화 과정을 막으려는 세력이 자신의 신원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특정 교수에게 책임을 떠넘기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도쿄대학교의 또 다른 일본사 전공 교수인 미타니 히로시 교수로부터 상세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미타니 교수는 제 제안에 대해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고, 이식과 관련된 관료적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지적 역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에 관여할 시간은 없지만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쿄대학교의 이토 켄 교수로부터 장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토 켄은 작곡가, 지휘자, 문화학자로서 물리학 및 컴퓨터 과학에 대한 탄탄한 배경 지식을 갖춘 학자입니다. 이토 교수는 제가 제안한 정보학 학제간 이니셔티브 및 학제간 정보학 대학원과 정확히 같은 시기에 출범한 도쿄대학교의 혁신적인 학술 프로그램 설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저는 여행을 준비할 때부터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관련된 모든 교수진에게 편지를 써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토 교수님이 가장 흥미로워 하셨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죠.

그는 이메일을 통해 도쿄대학의 고위 관리와 교수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 제안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미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제안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토는 매우 사려 깊은 독자였고, 그가 지적한 모든 사항과 제안은 상당한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2 주간의 격렬한 서신 교환 후 저는 그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가 토론에서 물러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받지 못한

이메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전화로 연락할 계획이었지만 다른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2년 후 도쿄를 잠시 여행할 수 있었고, 아키하바라 근처에서 이토 교수님을 만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문학,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자신의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2000년 10월 이후 어떤 일본인도 제 프로젝트에 대해 저에게, 혹은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9월에도 서울대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교수님으로부터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이메일은 저에게 직접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북경대학교가 개최하는 화상회의에 참여하라는 초대장에 제가 여러 명의 공동연구자 중 한 명으로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에 가장 흥분했고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수님은 제 요청에 "죄송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메일을 보내면 안 되는 건데..."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기괴한 일이었습니다. 두 대학은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저에게 유출한 것이죠. 저는 이 이메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대학에 상당한 손실이고, 저를 의도적으로 소외시킨 관리자에게는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충분히 높은 수준에서 취해진 일부 조치는 본질적으로 무기한 비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과 한국 언론에 인터넷과 교육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처음 제안한 내용을 아주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기사도 많았습니다. 세 학교 간의 긴밀한 학술 교류와 인터넷 기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모든 기사를 저장하지는 않았지만, 제 제안과 가장 근접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기사 몇 개를 스크랩했습니다.

몇몇 교수님들이 저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셨고,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를 대신해 그런 노력을 해주신 교수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모론에 대한 깊은 고민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항공공학과 교수였던 해리 힐튼은 대학이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유능한 젊은 교수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사실 제가 가진 아이디어는 일리노이 대학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했고, 그는 저의 노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관리자를 만나러 데려가지 않은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그 어떤 대학과도 화상 회의를 주선해 주지 않았고, 제가 며칠 만에 아시아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최소한의 자금 지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힐튼도 어느 정도는 이 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에서,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전 과정은 저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은 숨어 지내려고 했지만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저를 무시하고 부서장이 갑자기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약한 학과와 게으른 학장이 저를 상대로 몇 달에 걸쳐 복잡한 음모를 꾸밀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9월 초에 제 아내와 저는 동료인 라니아 헌팅턴의 집에서 저녁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라니아는 하버드대 동창이었고, 저는 그 부서에서 그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인도계 미국인 디페시 나브사리아는 의학을 전공했고, 우리는 그 부부와 사교적으로 자주 만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빅토리아풍의 낡은 집을 방문해 푸짐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디페시는 제가 부서장님과 겪었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논의나 부서장과 어떻게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보다는 심리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치료사를 찾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정말 기괴하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울하거나 지나치게 화가 났다는 느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실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가 치료를 받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라니아는 이 순간 극도로 긴장한 표정이었고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대화가 너무 이상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디페쉬는 제 3자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코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답지 않은 행동이었죠.

저는 다음 날 오후 9시쯤 또 다른 동료인 낸시 아벨만의 집에 들렀습니다. 낸시도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우리 학과에서 촉망받는 교수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고 글쓰기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시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갑자기 학과 선배 교수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게 된 실제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한다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 말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다른 교수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2000년 가을은 제가 고등연구센터로부터 받은 보조금 때문에 강의를 쉬는 학기였습니다. 게다가 신경학 전문가인 빌 그리너프가 고급연구센터의 소장이었고, 우리는 처음부터 매우 잘 지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책 원고 작업을 하면서 물론 화상 회의도 해보려고 했어요. 저는 일리노이 대학교에 그 학기 연구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제가 고급 연구 센터에서 한 학기를 맡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서와 떨어진 곳에 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시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즐거운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과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에 대응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 때문에 책 원고를 거의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2000년 9월 중순에 아버지는 저를 샌프란시스코로 초대했습니다. 애쉬버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제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를 방문하여 치료사에게 검진을 받도록 약속을 잡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최근에 뇌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방문이 좋은 생각이라고 권유하셨어요. 저는 기꺼이 아버지와 함께 치료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1999년 7월에 오른쪽 측두엽에 생긴 양성 종양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1998년 가을에 아버지와 인연을 맺은 유명한 뇌외과 의사 Mitchel Berger가 UCSF에서 집도했습니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저는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 몇 달 동안 경미한 발작을 일으켜 약을 복용했습니다. 게다가 그 후 몇 년 동안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UCSF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에 조금 놀랐습니다. 버거 박사나 신경과 의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뇌수술 후 회복에 대한 질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제가 심리학자를 만나도록 약속을 잡으셨어요. 저는 그와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인생과 결혼 생활, 그리고 제 경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몇 가지 메모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상한 이유로 치료사는 아버지와 따로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한참 후에야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갑자기 "의사가 '사람은 가끔 너무 똑똑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대화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의사가 아버지에게 제가 어떤 종류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2000년 9월, 제 아버지인 피터 페스트라이쉬가 절친한 친구인 잭 홀 UCSF 부총장과 제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잭 홀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 그의 아들과 두 번째 부인도 알고 지냈습니다. 잭은 제 아버지에게 제 상사이자 잭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신경과 의사인 빌 그리너프에 따르면 부서장에 대한 저의 행동이 상당히 비이성적이며 최근 뇌수술로 인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 입장을 들어주시기보다는 이 대화와 치료사를 만나러 간 이유에 대해 저에게 비밀로 하셨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범죄 음모에 가담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는 깨닫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2001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그리너프를 만났습니다. 그리너프는 제 정신 건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제가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회의에서 깊은 충격을 받으셨고, 많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도 이 만남을 철저히 비밀로 하였고,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2001년 2월이 되자 많은 가족들이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관찰된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Greenough의 말만 믿고 제가 한 모든 말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9월에도 아버지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가 제 정신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고, 법적인 조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 전체가 제 정신 질환에 대해 언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으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말 그대로 아무런 조언도 받지 못했다는 점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 대한 가족들의 이러한 행동 변화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부모님의 조언에 의지해 왔습니다. 아버지는 키비츠를 좋아하셨고, 우리 대화의 대부분은 직장에서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에도 저에게 그런 정치적 조언을 자주 해주셨죠.

이번의 놀라운 침묵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 대한 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언가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행동은 지극히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며, 필연적으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9월 말이 되자 일리노이 대학교의 환경이 너무 답답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저와 만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부서원들은 모두 제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지 않거나 복도에서 저와 대화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 누구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가장 열렬히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도 이제는 저와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0월 1일경, 저는 찰스 스튜어트 부학장에게 아직 받지 못한 LAS의 아시아 여행 지원금에 대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다는 짧은 이메일과 함께 자금 지원 약속에 대한 서면 기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다고 무미건조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학장은 제게 여행 경비를 제 주머니에서 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돈을 요구한 이유는 학장이 편지를 통해 대학에서 자금을 지원받으라고 명시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대학에 부탁하지 않고도 여행 경비를 쉽게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부학장으로부터 이 프로젝트가 대학에서 인수될 것이라는 편지를 받은 후에도 제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캠퍼스 내 다른 사람들과 인터넷 교육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한 것이 갑작스러운 변심의 원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교직원에게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우에 화가 났지만 찰스 스튜어트 학장도 자신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는 항상 저를 매우 지지해 주었고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캠퍼스 내 지지자들에게 제 여행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대학 내 여러 부서에서 지원금을 받았지만 제 부서와 대학으로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런 이메일을 100 통 정도 보냈고 그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제리 패커드로부터 그의 메일함에 적대적인 이메일이 넘쳐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학장은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고 저는 캠퍼스 전체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학장은 제가 학장에게 압력을 가하는 동안에도 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을 단 한 가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 외부의 누구와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고, 대학 내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과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해결책은 쉬웠지만 학장과 학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기밀 권고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월에 모든 교수진에게 발송된 제리 패커드의 이메일을 통해 학과에서 새로운 교수직에 대한 모든 요청이 거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임 학과장인 론 토비와 학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의 이유가 학장이 우리 학과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은밀한 협박 때문인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이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패커드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지 이틀 후, 그리고 찰스 스투어트로부터 쪽지를 받은 지 5일 후, 저는 부총장 얼 켈로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현명하고 사려 깊은 켈로그 부총장에게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학장의 행동이 명백히 복수의 한 형태인 것처럼 보인다고 썼습니다.

저는 얼 켈로그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귀하가 언급한 사안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학과장이나 부학장에게만 문의해야 합니다"라는 매우 형식적인 이메일을 저에게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어조와 내용이 전혀 상식 밖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편지가 리처드 허먼 총장의 변호사이자 고문인 티나

곤잘레스가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메일의 블라인드 사본은 제 제리 패커드와 부학장 찰스 스튜어트에게도 전송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편지는 제가 학장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을 제 몰래 학장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켈로그는 12월에 자신이 블라인드 사본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델리아 학장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학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패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저에 대한 일련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의 극심한 인기 하락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은 다소 순진한 가정이었습니다.

현실이 어떠했든, 그 시점에서 저는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패한 세력은 저를 고립시키고 일리노이 대학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를 파괴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한 캠퍼스에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캠퍼스 곳곳에서 문과와 이과의 협력을 장려하고, 후배 교수들의 정책적 기여를 독려하며, 동아시아 연구에 대한 헌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발표되고 있었죠. 제 아이디어에 대한 이러한 지지의 상당 부분은 저와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저를 분명히 지지했던 총장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알지 못하는 캠퍼스 밖의 다른 세력들이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인류학 교수인 John Lie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100여명의 교수진에게 전달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이메일에서 그는 Delia가 너무 무능해서 제 제안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사적인 메일을 공유한 저에게 상당히 화를 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우리 우정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저는 나중에 John에게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약 10년 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9월 말 프랑스에 있는 집으로 휴가를 떠나려고 하셨어요.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조언이나 도움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막연하게 저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는 아내 승은이와 함께 프랑스에 있는 자신을 방문하라고 권유했고, 저는 그 다음 주에 흔쾌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부서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저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는 제리 패커드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보내고 부대표인 데이비드 굿맨에게 복사하여 부서가 저에게 행한 매우 불법적인 일 8가지의 목록을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목록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학과에서 학장의 사임을 강요할 수 있는 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보다는 어리석은 화상 회의 몇 번만 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다음 날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에 부대표인 데이비드 굿맨을 만났습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저와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듯 다소 중립적인 어조로 "이메일을 받았습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오면 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여행은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에 있는 것보다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대학 시절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버지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키비츠를 즐기며 자랐고, 아버지가 교향악단의 까다로운 사람들, 가장 유명한 사장인 브레이튼 윌버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잊고 긴장을 풀라는 말만 하셨죠. 전혀 아버지답지 않게 들렸어요.

일리노이 대학교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서장은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저는 부서원 누구로부터도 이메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과대학에서 가장 큰 후원자였던 해리 힐튼, 지도교수인 빌 그리너프 고등연구센터(하버드 경제학 교수인 이리에 아키라의 딸인

이리에 마스미 조교), 옴부즈맨 사무실의 재클린 보우먼 소장 등 핵심 그룹 외에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재클린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제 말을 들어준 유일한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즉시 파악하고 회의를 주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 찰스 스투어트와의 만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사람들이 저와 교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메모가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본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공문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재클린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아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그녀에게 편지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재클린에게는 부총장에 해당하는 빌 그리너프처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해리 힐튼은 제가 여러 교수진에게 해야 할 말에 대해 계속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었지만, 제가 주장하는 바를 분명히 소중히 여겼지만 첫 달이 지나자 미팅을 주선하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암울해 보였습니다.

더 복잡한 관계는 빌 그리너프와의 관계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빌과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성격이 약간 까다롭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와 잘 지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경학과 과학에 관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제 생각과 인터넷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죠. 빌은 저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 소송에 대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털어놓지 않았어요. 그는 제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을 보면 그가 상당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교수진들이 자신의 업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이전 직책에서 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너프와의 많은 대화가 엄청난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얼 켈로그에게 보낸 이메일(학장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한)에 대해 언급하면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 켈로그 학장에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쾌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갔고, 몇 시간 후 저는 얼 켈로그에게서 그 이상한 이메일의 블라인드 사본에 대해 알려주는 메모를 받았습니다.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와 매우 비윤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리너프 학장이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저에 대한 기밀 자문을 제공한 일리노이 대학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특정 비상 상황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극도로 혼란스러운 일련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것뿐이었어요. 저는 즉시 제 부서에 대해 불평했던 기억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저의 미숙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면 찰스 스투어트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빌 그리너프는 찰스 스투어트로부터 제 작업에 대한 향후 논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찰스 스투어트는 12월에 다음 학기에 공동 인터넷 강의 제안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친절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겨울방학 전에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업무에 대해 매우 친근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제가 학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 것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찰스가 취한 모든 불쾌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에게 어떤 적개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에도 제리 패커드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는 매우 친절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학기에 제 업무에 대해 논의했고 그는 제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저는 그에게 지난 9월에 부서에서 저에게 취한 8가지 불법적인 조치를 나열한 편지를

파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슨 편지요?"라고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제 부서나 총장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0월에 조지 W. 부시의 고문인 칼 로브는 부시의 라이벌인 존 매케인을 상대로 포로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정신병에 걸렸다고 비난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캠페인은 저 역시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하는 저에 대한 캠페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주변 세력이 정치적 압력과 무력 위협을 통해 플로리다 주 선거를 중단시키고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사건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부시 일가와 연계된 수많은 군사 및 정보 자산과 부시의 집권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다른 세력들은 현금과 힘을 이용해 선거 부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기업 언론은 부시를 승자로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이 앨 고어에 대한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리도록 노골적인 협박이 이루어졌고, 선거 재검표는 불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고어는 6개월 동안 유럽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국가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제 주변 교수들은 그냥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도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반대파를 질식시키기 위해 정보 자산의 국내 활동 권한을 확대한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시 행정부 출범의 혼란 속에서 부시 정권 인수에 반대하는 군부와 정보기관 내 세력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저는 1 월에 부서의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제안을 언급하기 전에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학과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고, 다시 두 명의 학생 조교가 제 업무를 도와주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전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들에게 다시는 저를 위해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제 부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돌아갔습니다.

2 월 초 어느 날 저녁 빌 그린어프로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상한 메모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최근 이메일이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암호가 담긴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리너프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그가 어떤 이메일을 언급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에 있는 제 친구 10 여 명에게 플로리다 선거가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전달했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논의를 억압하려는 음모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아시아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FBI/CIA 부서가 이 사건에 대해 보고했고, 그리너프는 저를 막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배경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후 갑자기 빌이 저에게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가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했고, 어떤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제 시간을 낭비하고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후속 이메일을 보내 더 이상 그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는 마지막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분명 이 모든 과정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모두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보다 제 상황의 심각성을 더 잘 이해했기 때문에) 제 다른 이메일에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리 약속한 회의 때문에 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는 전날 저녁에 주고받은 이메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그는 불쑥 "총장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있습니다. 진짜 권한은 총장에게 있죠."

이 발언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총장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총장에게 그런 종류의 권한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은 리처드 허먼 총장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권의 더 강력한 인물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죠.

그 대화에 이어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이상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를 후 교육대학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만나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바라보며 "네가 아직도 웃고 있다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또한 그 주에 열린 대학 리셉션에서 법대 동기인 필립 맥코너웨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수천 명의 적을 거느린 임마누엘이 여기 있군"이라고 말했죠. 이 말은 기괴했습니다. 학장과의 문제가 한창일 때에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끌어들이 아시아에 새로운 개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저의 노력을 싫어하여 미사일 방어 및 기타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위협하는 군과 정보기관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대화와 잘 알지도 못하는 관리자들이 저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는 일리노이 대학과 미국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그냥 몸을 낮추고 제 일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저 스스로 옹호했습니다. 저는 법치를 옹호하겠지만 화상 회의와 교육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교수진들의 이상한 힌트가 너무 완벽하게 조율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볼 수 있도록 특정 포스터를 붙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떤 것은 위협적이었고 어떤 것은 격려적이었습니다.

제 메일이 읽히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CIA/NSA 팀은 점점 더 엉성해졌습니다. 제가 당하는 일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그들이 어떤 동정심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았습니다. 낮에 일어난 사건들이 전날 밤에 제가 작성한 이메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분명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찰스 스튜어트에게 제 이메일을 읽고 있다는 편지를 썼는데 다음 날 아침 로그인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상황은 약 8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상한 스팸 메일도 받았습니다.

적대적인 의도가 분명한 행동도 있었지만, 저에게 배정된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점점 더 장난스러워졌습니다. 찰스 스튜어트에게 보내는 나의 편지도 점점 더 그들을 겨냥하고 있었다. 저는 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제 자신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치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중국어로 인터넷 기반 교육의 잠재력을 설명하고 인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글에는 미국이 중국, 일본, 한국과 협력해 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인 장홍성(북경대 학생)의 도움으로 2001년 2월 21일 중국 학술지 중화독서일보(中華讀賣報, 중국독서일보)에 기사를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부시 행정부가 묻어두려고 했던 의견이었으며, 저는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접근이 차단된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중국어로 이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었고 중국 측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군산복합체의 적들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와 함께 군부에 새로 들어선 세력들은 최근에 획득한 권력에 취해 있었고, 누구에게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한 집단은 단순히 '사고'나 '자살' 또는 다른 사악한 수단을 통해 저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배정된 정보 그룹은 그 파벌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2월, 새로운 부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파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괴롭힘은 새로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 이메일은 계속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들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이상한 살해 협박이 삽입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인부들이 저희 아파트 앞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문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제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죠. 저는 그 두 남자를 다른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만났습니다. 그 후로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낯선 사람들과도 적대적인 만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월 20일 밤 9시경에 집주인이 갑자기 저희 아파트로 찾아와서 집안에는 별일 없는지 물어보면서 억지로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에 온 적이 없었고, 그녀의 방문은 저에게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무덤덤한 표정을 짓고 곧 자리를 떴지만, 겁에 질린 듯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인터뷰만으로도 우리가 완전히 미지의 극도로 위험한 바다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2월 24일에 아버지가 샴페인에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러 오실 계획이셨고, 아내 제이미도 곧 오실 예정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버지는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다면 직접 저를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방문이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숲 속 깊은 곳을 산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해 보였습니다. 결국, 나는 아버지의 모든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깊이 걱정하는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후 세 차례에 걸쳐 아버지에게 밖에 나가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셨지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셨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제안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는 기밀 조언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의 끝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전체 모험에서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삼페인 공항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저희 아파트에 짐을 맡겼어요. 그런 다음 집 근처의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고 그는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10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친구인 잭 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기 며칠 전에 잭과 제 일과 일리노이 대학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죠. 저는 관료적인 문제에만 집중했고, 더 깊은 고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잭은 제가 학과장 및 부학장과의 대화, 그리고 그들이 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허락했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이나 학과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제가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에 대해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그는 "당신이 너무 흥분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정교한 음모론도 제시하지 않았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13 살 때부터 저를 알고 지낸 잭이 제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무시한다는 사실에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잭이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당시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최근 잭 홀과의 대화 이후 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노골적인 분노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잭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며, 잭은 저에게 어떤 식으로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그리고 화를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도와주려고 했던 잭에게 그런 불신을 표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왜 재크에 대한 신뢰를 잃었는지 묻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하지 않으셨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잭은 아버지가 갑자기 일리노이 대학으로 날아가 저를 직접 만나기로 결정하기 일주일 전에 아버지를

방문했었습니다. 저에게 비밀로 유지된 두 사람의 만남이 아버지가 오기로 결정한 진짜 이유였고, 몇 달 후 아버지가 우연히 그 만남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저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리노이주에서 저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기 일주일 전, 아버지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빌 그리너프와 잭 홀을 만났고, 빌은 아버지에게 제 정신 상태가 매우 걱정스럽고 제 행동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대학에서 해임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아버지와 비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후 저는 갇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이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제가 왜 그런 미친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후 제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려 하자 그녀는 깊은 짜증을 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그녀는 "왜 이런 일로 저를 괴롭히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저를 고립시키려는 캠페인은 완전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가족, 친구, 아내, 동료들과 단절된 채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일리노이 대학의 다른 교수들이 서명에 은밀한 살해 위협을 삽입한 이메일을 보낸 것을 생각했고, 포기할 때가 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신병자 진단을 받거나 대학에서 해고되거나 다른 운명에 처할지라도 아버지, 잭 홀, 학장이 제안하는 대로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아무도 저를 지지하거나 이 주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제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제 휴대폰을 두드리고 제 이메일을 읽어주는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저에게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에서 살해 협박과 강력한 지지의 약속을 번갈아가며 보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찰스 스튜어트에게 이메일을 몇 통 더 보냈습니다.

찰스에게 보내는 편지는 저를 감시하도록 지정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저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에서 조지 W. 부시의 집권이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묘하게도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착용했던 빨간색, 검은색, 흰색의 대학 스카프가 사실 데이븐포트 대학 스카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븐포트 대학은 예일대 학부 중 가장 '슈'(예일대 속어로 잘 사는 학부생을 일컫는 속어)가 많았고, 엘리트 WASP 가정이 주를 이루던 대학이었죠. 하지만 브루클린 맨해튼 비치에서 약사의 아들로 태어난 유대인인 아버지는 1955년 예일대에 입학하는데 성공했고, 대학 시스템에 다양성을 더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추천 제도를 통해 데이븐포트 대학에 배정되었습니다. 1983년 예일대에 입학했을 때 저도 데이븐포트 칼리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와 관련된 두 사람 역시 데이븐포트 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프레스콧 부시 상원의원의 아들인 조지 H. W. 부시는 아버지보다 먼저 데이븐포트 대학에 다녔고, 그의 아들인 조지 W. 부시는 아버지 다음으로 나보다 먼저 데이븐포트 대학에 다녔다. 그래서 저는 제 스카프에 다소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제 모험의 여정에서 꽤 많이 공감하게 된 해리 트루먼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데이비드 맥컬러가 쓴 전기의 정확성을 의심하게 되었지만, 당시 저에게 해리 트루먼은 윤리적 문제에 집착하고 타협하지 않는 리더의 모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해리 트루먼이 "가장 높은 직책을 맡고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며 가장 용감한 개혁을 수행한 사람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댓글로 이메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대사의 요점은 트루먼이 어떻게 기계 정치에서 시작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시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는 호소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 호소는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트루먼에 대한 신화는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이기도 했습니다.

제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고, 제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해서인지 별다른 노력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2 장

거울 너머로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아내와 아버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아버지는 그날 오전 11시에 샴페인에 있는 칼 클리닉의 치료사를 만나러 가자는 이메일을 빌 그리너프에게서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날 저녁에 대화를 나눈 후 갑자기 이 이메일을 받은 것이 아버지에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빌이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전적으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빌은 이 모든 과정이 수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불안한 사실을 무시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절차에 충실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사고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칼 클리닉에 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신경심리학 및 심리학과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약 20 분 후 호출을 받고 신경심리학자인 조셉 알퍼 박사를 만났습니다. 알퍼 박사와 아버지, 그리고 제가 함께한 30 분간의 면담은 제가 경험한 가장 이상한 면담 중 하나였습니다.

조셉 알퍼는 대머리에 덩수룩한 갈색 머리, 금색 안경 뒤의 작고 강렬한 눈매를 가진 다소 작은 체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다소 유머러스한 스타일의 내레이션을 구사했으며, 그의 연설에는 아이러니와 유머가 끊임없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중서부 시골에서 눈에 띄는 브루클린 억양을 사용했는데, 이 억양은 그를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알퍼는 저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션 내내 저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최대한 공감하고 정중한 태도로 저에게 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당신은 뇌의 실행 기능 장애로 인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뇌종양과 1999년 수술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인해 사회적 공감 능력이 저하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조직에서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은 귀하를 걱정하고 있으며 귀하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핍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쳐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즉시 한 학기 또는 1년의 병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내레이션을의 수단이 놀라웠습니다. 알퍼의 시선은 제가 아닌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제 쪽을 쳐다보기는 했지만, 마치 "이 루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머러스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보내는 시각적 신호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아버지가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신경심리학자가 자신의 노트를 낭독하는 것으로 구성된 면담에서 환자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회복할 수 없는 집단 정신병 상태에 들어갔고, 당시 교육을 받은 다른 많은 미국인들과 그 상태를 공유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알퍼의 대화는 브루클린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분은 같은 동네 출신이었기 때문에 브루클린의 옛 모습, 특히 맨해튼 비치와 쉽스 헤드 베이에 대한 추억을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고, 우리가 떠날 때 아버지는 알퍼 박사에게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고 그의 모든 말을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초기 심리 평가에 아버지를 함께 초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버지를 중요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쇼였고, 아버지는 완전히 속아 넘어가셨죠. 의학적 평가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알퍼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저와 다른 교수진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소문과 루머가 적힌 준비된 종이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떤 테스트도, 질문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정신 질환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이 바로 내려졌습니다.

사실 정신 질환은 종양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후 3년 동안 치료를 받는 동안 MRI를 찍거나 다른 표준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의사들은 모든 치료가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의미 있는 모든 치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퍼가 언급한 "집행 기능의 실패"는 의학적 평가라기보다는 부시 행정부가 연방 정부를 장악한 후의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내내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의 촌극처럼 다소 유머러스한 대화가 오갔고, 그 과정에서 간접적이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라도 실제 문제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할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은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제 주변에는 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후 15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나 정리의 과정을 통해 이 이야기의 다른 많은 부분이 명확해졌지만, 조셉 알퍼 박사의 지위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 CIA에 고용된 전문 심리학자라고 생각했고, 아마도 전년도부터 저를 관찰하던 팀의 일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CIA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고, 나중에 그들 중 몇 명을 만날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또한 알퍼가 브루클린 출신의 유대인이라면 제 행동과 의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었죠.

게다가 알퍼는 의사나 극도로 높은 수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서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극도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회의 전날 급하게 그곳에 배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제가 제 3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몇 가지 발언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알 수도 없는 사건을 언급하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알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 메일을 읽고 알퍼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화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에게는 어떤 허가도 없었고, 대화가 진지해졌을 때 아무도 저에게 방을 나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또한 '심리학 외교관'이라고 적힌 명함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정치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여러 가지 유머러스한 디테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농담은 알퍼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저를 관찰하는 사람들 사이의 농담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고, 저는 그림을 그리거나 함축된 의미를 담은 사진을 찍어 알퍼나 다른 사람들에게 댓글로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글과 게시물의 오락적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니다.

나중에 저는 알퍼가 실제로는 칼이나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였는데, 이 일을 알게 되어 정식 준비 없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맡게 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2012년에 일리노이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알퍼와 커피 한 잔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임시 임무를 맡은 CIA 요원이었다면 몇 년 후에 이직할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저는 2012년 일리노이대학교와 한국 기관 간의 과학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틀간 샴페인을 방문했습니다. 노스캐म्퍼스에서 알퍼 총장을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셨죠. 그는 여전히 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더딘 진척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둘은 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했고, 저는 그에게 꾸준히 이메일을 보냈지만 비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세 번이나 커피를 마시러 만났지만... 흠... 비공식적이지 않나요?). 때때로 그는 가혹하거나 심지어 약간 잔인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가 단지 명령을 따르는 것일 뿐, 그 과정에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술 한잔하러 가자고 했을 때 그는 "그리고 싶어요"라고 말하긴 했죠.

제 경험상, 우연히 저와 마주쳤다는 이유로 극도로 민감한 사안에 일시적으로 관여하게 된 다른 많은 일반인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팀은 매우 민감한 작업에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도적으로 영성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알퍼가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엄청난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2001년 2월 알퍼와의 만남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약국에서 약을 좀 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제가 살지 죽을지, 아니면 정신병원으로 보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져서 빨리 약을 먹고 싶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약국에 도착하자마자 약을 먹고 승은이와 아버지, 제이미(함께 도착한 새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더욱 불안해졌고 심지어 약간의 편집증까지 생겼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약 두 알을 삼켰습니다. 3분 후 저는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제 뇌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갑자기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니다. 정신이 완전히 맑아졌고 긴장감이나 편집증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저도 모르게 약을 먹었고, 그 약의 방향 감각 상실 효과를 막기 위해 이 신약을 투여받았으며, 이 약이 제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 이 약을 투여받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아버지는 병원에 갔던 일에 대해 조금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모든 것을 다 꾸며낸 것 같았고, 일종의 편집증적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저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 정부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부정선거 이후 미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저를 처리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요원인 알퍼 박사를 만났다는 사실요.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깨에서 엄청난 무게가 벗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침 일리노이주 엘진에 있었지만 다음 날에야 도착할 예정이었던 동생 마이클이 그 순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일리노이 대학에서의 문제에 대해 형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거대한 망상의 일부였으며, 형을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분명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모든 것을 상상했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저는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야기의 일부가 사실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현대 정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렸고, 제가 기억하는 정치적 사건들이 편집증적인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은 미국의 정치적 위기에 대해 깊이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정신병적 망상에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제 가정이 본질적으로 정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모든 이야기가 정확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은밀한 살해 협박과 기타 괴롭힘이 담긴 이메일은 모두 존재했습니다.

병에서 깨어난 그 순간은 저를 불안하고 편집증적으로 만드는 약을 투여한 후 그 약에 대항하는 약을 투여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창조된 사건이었고 저는 그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저에게 심각한 질문을 했다면 모든 이야기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가족은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미국이 지금 군대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이 신호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신병자라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 정신병에 대한 이야기를 믿는 것은 그들이 망상을 붙잡기 위해 필수적이었고, 말이 안 된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에 집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의심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활동의 현실을 직시해야 했고, 그것은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족과의 관계는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이야기 전체가 허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제이미에게 이야기가 더 복잡하고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들은 제가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진짜 질문을 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든 지금도 그렇지만, 만약 제가 갑자기 '자살'이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면 가족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저를 잊어버렸고 진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없었죠.

다음 날 아버지는 델리아 학장, 티나 곤잘레스 총장 보좌관 등 고위 관리자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를 돌아다녔어요. 그들은 모두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저를 얼마나 깊이 걱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저를 만난 적이 없었고, 저는 부학장 외에는 누구와도 이 문제를 논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지만 나중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접촉하지 말라는 기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하신 순간이 몇 번 있었고, 아버지는 자신이 듣고 있는 이야기에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딘 델리아를 만나고 나서 "딘 델리아는 당신의 열렬한 팬이에요"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가 가능한 한 빨리 그를 만나고 싶다고 제안하자 아버지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네가 이메일에서 그에 대해 쓴 몇 가지 글을 봤거든."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정도는 제가 이 모든 문제를 상상했다고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상상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저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진지한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저를 돕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도와주려는 계획의 증거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삶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더 기뻐하는 것 같았고, 제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제 동생 마이클이 엘진(지명이 중요한가요? 조금 난해하긴 하지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 무렵 저는 부모님께 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너무 지쳐 있었어요. 또한 당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가 질문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저에 대한 모순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하루 종일 저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다소 놀랐고, 동생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완전히 믿지 않고 단순히 진실을 아는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서 더 깊은 차원에서 은폐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질문을 던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부세이 애비뉴에 있는 우리 아파트 앞 계단에 앉아 있는데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뭘 알고 싶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살해 협박이 진짜였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대답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그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볼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마이클은 그 후 20년 동안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정신 건강이 어떤지 묻지도 않았고, 그날 또는 그 전날과 그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2006년이 되어서야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고집을 부리기 전까지 그는 저와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제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편지를 썼을 때도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칼 클리닉에 가서 알퍼 박사를 만나 향후 치료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2005년 1월까지(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끔씩) 4년 동안 제가 겪게 될 저급한 괴롭힘의 첫 사례를 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길을 따라 칼 클리닉에는 자살, 실종 아동, 정신 질환 등에 관한 무서운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 저를 위협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트렌치코트를 입은 한 무리의 남성들이 무장한 듯 위협적으로 보이는 복장을 하고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웃으며 지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알퍼 박사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린 후 알퍼 박사가 저를 만났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퍼 박사는 제 건강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고 몰래 투여한 약 때문에 몸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무도 이 사건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퍼는 제가 "실행 기능"에 결함이 있다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서류에 서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년 동안 의료 휴가를 받으신 후 다시 경력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되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사형 선고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알퍼는 상황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과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매우 통찰력이 있고 신중한 경청자이며 저를 인간적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가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에 정통하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플로리다는 원래 작동해야 하는 방식과 실제 작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에서 재검표가 중단된 것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질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는 타협점이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제 기록에 정신 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그는 유머러스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상원의원에 출마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알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저를 강렬하고 흥미롭게 바라보더니 "진심이에요?"라고 물었습니다.

"꼭 상원의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직책이어야 합니다."

"치료를 성공적으로 받고 서류가 파일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 기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서류에든 서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는데, 알퍼는 관리자와의 회의에서 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나서자 알퍼는 "스카프가 정말 멋지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예일대 데이븐포트 대학과 제 선친의 스카프입니다. 조지 W. 부시와 그의 아버지도 그곳에 살았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찰스 스투어트에게 보낸 이메일의 전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오후에 군용기가 우리 집 바로 위를 매우 낮게 비행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행 경로가 이례적이었고 분명 의도적인 비행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응원의 표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캘리포니아에서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오셨어요. 저는 어머니와 꽤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함께 보낸 시간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미 전에 전화로 어머니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고의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도착한 다음 날 아침 가벼운 대화를 나눈 후 샴페인 시내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조금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셨지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가 얼마나 정신병자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녀의 세계관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와 함께 있던 첫날 약국에서 받은 약에 대해 제가 한 말을 그녀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약국에서 고의로 약을 먹여서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건가요?"라고 묻더군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보안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서 10 미터 정도 걸어갔다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들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 직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제가 한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미국인에게 그런 일을 한 선례가 있는지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 문제를 조사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전적으로 그럴듯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세 시간 정도 떨어진 세인트루이스로 함께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저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자랐고, 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서점인 **Left Bank Books** 에 들러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셨던 작가의 소설 낭독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 행사를 즐겼고 마침내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레프트뱅크 북스의 주인인 배리 리버먼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그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당시 제 노력에 대해 실제로 감사 인사를 해준 사람은 그가 유일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 모호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무엇을 고맙다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든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온 후 바인더를 꺼내 보니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병가를 받던 날 데일리 일리노이에 실렸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주룽지 중국 총리가 꾸며낸 부패 혐의로 부당하게 해임된 중국 공무원을 칭찬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소 인위적인 것 같았고 제 사건에 대한 언급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 기사가 데일리 일리노이 1면에 실릴 이유가 전혀 없었죠. 저는 어머니에게 이 기사를 읽어보라고 건네며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저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녀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중국 관료에 관한 기사예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부당하게 해임된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심란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그 이상한 기사를 읽고, 그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제 가족 중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준 사람은 어머니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비이성적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실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서류를 태우고 모든 파일을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행동의 모든 측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큰 열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긴장해서 그 문제에 대해 어떤 분리도 할 수 없었고 대화는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른 아침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극도의 불안과 긴장감이 느껴졌고,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5분 동안 운전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 긴장감도 약물로 인해 유발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확신하셨고, 그날 그 주제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나흘 후 저에게 전화를 걸어 스트레스를 받는 특정 사람들이 어떻게 정교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친구가 설명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이 일화가 제 사례를 충분히 설명해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당시 미국에 만연해 있던 부정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군사 쿠데타로 국가가 점령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았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무시했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인들은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어머니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영향은 이미 끝났고, 괴롭힘 작전은 저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저에게 배정된 요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하거나 저를 도우려고 할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당시 저를 감시하도록 배정된 CIA 팀원들과의 교류도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고, 메일을 읽고 저를 관찰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방적인 관계일지라도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단계를 밟았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메일 초안을 작성할 때 광범위한 청중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명백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장 높은 등급을 가진 사람들만 저에게 배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제 아이디어를 피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밖에서 일하도록 배정된 특정 사람들은 제가 쉽게 알아볼 수 있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숨기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첫째, 우리 아파트의 문을 고치는 일을 맡은 한 청년이 캠페인이 한창일 때 저에게 적대적인 표정을 지으며 위협적인 태도로 비웃은

적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웠죠. 나중에 저는 그에게 제 소개를 하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는 2 주 동안 저를 괴롭히도록 배정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배려해 준 것에 대해 상당히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샴페인을 돌아다닐 때 군중 속에서 우연히 그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 근처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저희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차는 경미한 손상만 입었습니다. 같은 청년이 운전자였습니다. 우리 차 뒤쪽에서 연기가 나는 등 사고 전체가 약간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펜더 벤더 사고로 인해 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이상해 보였기 때문에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사고는 괴롭힘 캠페인의 일환이었지만, 그 무렵에는 그와 충분히 친숙해져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다른 조는 캄보디아 사람 두 명으로 구성되어 3 주 동안 집 외부를 페인트칠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저와 어떤 연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지나갈 때마다 말을 걸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 작은 청동 불상이 있었는데, 그 불상을 선물로 주고 싶었습니다. 불상을 트럭 운전대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팀원들이 저를 지켜보면서 제 집에 놓아둔 여러 가지 유머러스한 물건들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싶었죠.

그런데 제가 트럭 문을 열려고 하자 큰 경보음이 울렸고, 그들은 다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부처님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선물에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트럭에 원숭이를 태워서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모험을 즐겼지만 동시에 부시 행정부가 미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쿠데타에 대한 미국인들의 무관심에 대해 깊이 우려했습니다. 알퍼와 모호한 비유를 통해 정치 상황에 대해 농담을하는 것은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알퍼에게 비밀스러운 메모가 적힌 엽서를 여러 장 보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엽서는 미국

정치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D.W. 그리피스 감독의 영화 '인톨러런스'의 바빌론 장면이 담긴 엽서였습니다.

이러한 사내 농담의 가장 생생한 예는 아마도 제가 부서장인 Jerry Packard 에게 보낸 이메일일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저의 모든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물고기를 잡아야 하니까요."

나중에 알퍼와의 대화에서 이 편지를 언급했더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그가 바로 그 이메일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이후 알퍼와 저뿐만 아니라 캠퍼스 안팎에서 '부시'가 '물고기'와 비슷하게 들리고 '우리는 더 큰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문구가 부시를 가리킨다는 내용의 개그가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생선 튀김에 대한 언급은 신문, 광고판, 심지어 우편함의 정크 메일까지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광경이었죠. 우리는 다음 날 저녁 케빈 킴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생선 튀김이 특별 메뉴인 레스토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주말이 지나자 생선 튀김 농담은 식상해졌습니다.

이 캠페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제 부서장과 알퍼 사이의 사내 농담에서 시작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참여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일종의 거대한 장난으로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부시 행정부가 사실상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규모 그룹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 조금도 겁을 먹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2001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끔씩 저강도, 때로는 고강도의 괴롭힘을 당한 저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행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장교들이 있었고 때때로 명백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진정으로 화를 냈다기보다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불법적인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를 겁주거나 제 행동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게임 규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 주변의 모든 사람과 지휘계통의 윗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지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는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를 만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적은 월급으로 생활했고, 정신 질환에 대한 가짜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도 상당했습니다. 병가 기간 동안 번역, 집필, 컨설팅 및 기타 업무에 대해 사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말 그대로 정규 급여 외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사회적 교류도 똑같이 제한되어 아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기밀 권고에 따른 미국 내 수입 및 활동 범위 제한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저와 상호작용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시받았습니다. 제가 가택연금되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이 과정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지 제한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협은 유머러스하고 심지어 서정적인 순간과 결합되었습니다. 저를 담당하도록 배정된 남성과 여성은 지루한 협박을 뚫고 작은 신호를 통해 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의 작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의 수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수천 명, 아니 그 이상이 이 작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불법의 규모와 연루된 사람들의 수를 감안할 때 왜 이 사건이 공개되지 않았는지 지금까지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작전에 대해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나를 겁주려는 목적이 컸다. 저를 겁주기 위한 상부의 실제 명령이 있었지만,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은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드물게 예외가 있기는 했지만, 살해 협박은 어이없거나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저에게 가해진 일은 저를 처벌하거나 제 행동의 잘못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 지식인도 백주 대낮에 최악의 정치적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모두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규칙을 만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괴롭힘은 너무나 노골적인 방식으로 계속되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정도였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일급 기밀은 아니더라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보이는 이벤트에 모르는 사람이 참여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를 대하는 CIA/FBI 내에는 저를 동정할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행동의 자유가 없다는 점에서 토론티의 맨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은 거의 처음부터 저에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돌아다닐 때 제가 마주칠 수 있도록 설정된 많은 장면들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애정을 갖고 저와 다양한 상징적 수준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원래의 메시지는 내가 낙담하고,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희망이 전혀 없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순적인 작전 구조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간섭 패턴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협박 과정이 저를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대담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시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더 있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은 있지만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행동과

관련된 이해관계로 볼 때 저와 비슷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정에서 제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에 능통하다는 사실보다는 글쓰기에 대한 애정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로웰 고등학교에서 마이리어드 시(詩)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작가로서의 역량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한 농담을 좋아했고, 시사를 간결하게 요약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1년 1월부터 2004년 11월경까지 몇 년 동안, 제 사생활의 다소 모호한 측면에 대한 내부 농담, 간접적인 언급, 때로는 힌트들이 언론에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흔한 곳은 데일리 일리노이였지만, 제 생각에는 샴페인 뉴스 가제트, 뉴욕 타임즈, 기사의 이상한 문구 또는 광고 등에서 다루는 주제에서 때로는 상당히 노골적인 암시도 있었습니다. 톰 투모로우의 칼럼인 "이 현대 세계"에서도 정기적으로 제 사건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데일리 일리노이의 데일리 포춘에도 제 사생활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전체 작전이 너무 방대해서 비밀로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종이에 자주 낙서하던 꼬불꼬불한 낙서가 갑자기 Target의 광고 디자인과 광고 분야 전반에서 인기 있는 테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작품이 유명 광고 아트에 통합되었지만 저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모든 곳에서 제 모습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004년 12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해임되면서 그런 재미와 게임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런 숨겨진 메시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스크랩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겪은 정치적 박해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중국 정부에 의해 처벌받은 중국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 기밀 작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차단하는 비밀법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것을 암시하는 귀여운 방식이었죠. 약간 역겹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것이 저의 지나친 상상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그 메시지는 꽤나 직설적이었던 것 같고, 2004년 11월에 그 과정이 본질적으로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그런 설명에 맞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많은 사람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가졌는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매우 지지해 주었고 일부는 극도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쓴 모든 이메일이 광범위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제가 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매우 명확한 메시지와 지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호하거나 암시적인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메시지가 다소 기발했고, 누군가가 단서를 만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 이상한 문구로 제시된 작은 퍼즐이나 알퍼 박사의 댓글, 제 메일함에 남겨진 다른 이상한 메모는 제가 도저히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3월에 일리노이 대학교의 사무실을 비워야 하고, 교수진 및 대학원생들과의 모든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알퍼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 전에 대부분의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조치가 정신 질환 치료의 일환이며, 동료들과 대화하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들과 대화하는 데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사무실에 있던 책들을 모두 비우고 아파트 지하에 보관했습니다. 부서장은 제가 사무실을 비운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일주일 후 제가 모든 것을 가져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병가 중이던 16개월 동안 부서는 제 사무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했습니다. 저와 직접 대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대와 지지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 좌절했고 심지어 화가 났지만 동시에 제가 모든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모든 재미있는 농담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는 상당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좋았던 것 같지만 당시에는 솔직히 제가 "자살"을 당할지, 시설에 입소할지, 장기 실업을 당할지, 공공 지원을 받게 될지, 아니면 다른 일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매우 비꼬는 말부터 다소 무서운 말까지, 강도가 낮은 괴롭힘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주제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독서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책, 휴이 롱의 전기(정치에서 카리스마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의 책, *인간의 의미 찾기*(어머니의 추천으로)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많은 기사와 논문도 읽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역사 공부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위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퍼에게 보낸 이메일과 편지의 주제는 역사, 정치, 문학,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강의 제안서를 위해 썼던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견해를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괴롭힘과 심각한 활동 제한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퍼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글쓰기 과정은 저를 변화시켰고, 10년 후 주로 동시대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단편 에세이 작가로 부상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3월 중순, 알퍼는 저에게 "대학의 누군가, 총장 또는 국무부 장관"이 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몇 주 동안 저는 뭔가 큰 돌파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큰 개선이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끝없이 많은 양식을 작성해야 했고, 그 양식을 잃어버리고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 양식들은 일리노이 대학교에 복학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일하고 싶다는 제 꿈은

잊어버리고 일리노이 대학에 남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의 교수진으로부터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수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서신으로 보냈지만 단 한 건의 계획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중국에 건설될 쥬라기 공원형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 중인 회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최자와 몇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제안을 담은 편지를 쓰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최자가 보여준 엄청난 열정과 제 모든 조언에 대한 그의 따뜻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작업에 대한 대가를 한 푼도 받지 못했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돈을 벌 기회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병가로 받은 수입으로 생활해야 했죠. 다른 일에 대한 대가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전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분명했고,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남은 3년 동안 저에게 주어진 프로젝트는 약 30~40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고, 해외로 여행하고, 컨설턴트가 되고,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결국 저는 그 누구에게도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는 저에게 상당히 먼 곳이 되었고, 아시아인들과 교류할 기회도 급감했습니다.

3월 25일경 어느 날, 앨퍼 박사가 갑자기 저에게 아시아 및 전 세계에서 미국이 직면한 진정한 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에세이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치 제 의견을 정직하게 알고 싶어 하는 단체를 대표해서 요청하는 것처럼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그날 저녁에 앉아서 다소 복잡한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미래에 필요한 보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근본적인 재정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안의 개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완전히 재편해야 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 주제에 대한 제 생각은 아직 잘 정립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무기 체계가 완전히 구식이어서 우리가 직면할 도전과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한 미국이 살아남으려면 중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저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앨퍼와 친구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는 듯했지만 미국 전체에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알퍼를 만나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저의 특이한 위치로 인해 발생한 동료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기애애한 대화였지만, 동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소 무의미한 대화였습니다. 사실 동료들이 저와 다시 교류하기 전에 저는 소외감을 느끼고 아시아학에 대해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그에게 제가 보낸 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 편지가 부적절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글쎄요,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해 생각하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가끔씩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시 미국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우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001년 4월 1일, 적어도 공식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미 해군 정보 항공기와 중국 제트 전투기 간의 공중 충돌로 중국 비행기가 추락하고 조종사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 사고는 발표가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가 알퍼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했던 농담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 대비하고 항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었죠. 비행 중 날개를 잃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요.

물론 제가 한 말과 실제 일어난 일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정확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이상한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두 대의 비행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뭔가 큰 돌파구가 생길 것 같아서 약간의 흥분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이메일이 아무리 인기가 있고 도움이 되더라도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몇 년 동안 항상 적자를 내는 하위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때때로 저는 상당히 낙담했습니다. 늦은 밤 혼자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곤 했죠. 지금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U2 나 다른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전환했고, 사람들과 완전히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에서도 제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제 직계 가족은 처음에 제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정직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믿으셨는지는 의문이 들지만, 너무 끔찍한 다른 가능성에 직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신 것을 (제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가족들은 제 치료 상태나 기분, 업무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버지, 어머니, 형제가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진짜인지, 어떤 부분이 망상인지 알아내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해고되고, 장애 등급을 받고, 결국 병가를 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어떤 논의도 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간단한 질문을 하면 공식적인 이야기에서 화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질문을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미 있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질문한다면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난 후에야 가족들에게 한 명씩 제 이야기를 듣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절대 묻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한 후에도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조사하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형제,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변해 CIA가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이 엄청난 사기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고, 문제가 있다는 암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CIA 요원들은 가족보다 더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죽었다면 아버지는 제 장례식에서 아들이 어떻게 목숨을 끊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연설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진실을 알아내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죠.

저는 미국 사회의 중상류층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이 전반적으로 문화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시민들이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가족에게 역겨웠고, 가족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이상한 이야기를 영원히 물어버리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직접 실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에 대한 범죄 음모에 대한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주 드물게 이 과정을 기꺼이 암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저는 문제가 조지 W. 부시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문화의 부패와 유능하지만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완전한 허구를 유지하는 데 만족하는 지식인들의 수동성이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몽유병자들"(Die Schlafwandler)은 오스트리아의 소설가 헤르만 브로흐의 장편 소설 제목으로, 제 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붕괴하는

유럽의 문화 질서에 휩쓸려 그 혼란을 겪은 세 명의 가상 인물의 삶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브로흐는 당시 독일 교육받은 계층의 기괴한 심리 상태를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몽유병 환자처럼 사회에서 유능하고 직장에서 유능했지만,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경제 및 시스템 붕괴의 징후를 완전히 망각한 채 살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 채 사회를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그리고 오늘날에도) 일어난 일만 봐도 미국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군사 쿠데타로 점령당했고, 소수의 사람들이 정부 전체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많은 부분을 장악했습니다. 2001년 1월 이후 약 1년 동안 언론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선전을 쏟아냈고, 수면 아래에는 희귀한 보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쿠데타와 반쿠데타가 시도되었지만 좌파, 우파, 음모론 블로그를 수없이 읽었지만 인터넷에서 그 과정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은 분명하지만, 저를 위해 연출된 유머러스한 사건, 제 최근 이메일을 인용한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거나 제 책상에 남겨진 스케치까지, 극심한 고립 속에서도 어떤 즐거움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혼란스러울 정도로 복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저와 제 가족에게 살해 협박까지 받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지만 매우 잘 기록되어 있고, 아마도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많은 문서를 포함하여 많은 관련 문서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문서 요청을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메일 작성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실수였는지 이메일을 쓰는 것이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게 되었고, 그 중에는 저를 괴롭히기 위해 파견된 FBI와 CIA 직원들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에게 매우 적대적이었을 수도 있고, 제가 제공한 정보를 악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에게 일어난 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기본적으로 저에게 동정심을 갖고 제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외교 정책이나 나중에 다른 보안 문제에 관해 제가 제공한 조언이 낯선 사람들에게 의해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CIA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환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를 돕기 위해 심각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의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든 함께 일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계집애들을 위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위험은 다음 주에 더 커질 것입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기회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가 악용될 위험이 있더라도 당시 미국의 혼란을 고려할 때 무언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도박이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국무부 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선택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유일하게 가능한 직업 전환이었죠. 시험은 2001년 4월에 치러졌습니다. 대학에서 일하고 싶다고 연락했던 다른 사람들은 답장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제 자리가 될 거라 생각했던 하버드대 교수직에 후보자로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국무부 기회는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던 아내는 제가 외교부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만 매달렸고, 중서부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상징적인 행위에서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4월 18일경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제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운전 중 아내에게 아무렇지 않게 "CIA에 입사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죠. 아내는 제 말에 깜짝 놀라며 국무부에 지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왜곡의 위험이 있고, 미국의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대해 저와 앨퍼 사이에 오갔던 정확한 서신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저는 CIA 전체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저는 CIA가 수십 년 동안 벌여온 범죄 행위와 마약 거래 및 돈세탁과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은 내가 만난, 나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더 정확하게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 파견된 CIA와 관련된 소수의 사람들의 규율과 원초적인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뜻이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부시 행정부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이 소수의 사람들을 활용하여 미국의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 주변에서 본 지식인들이 겁쟁이들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유일한 기회를 가진 것은 사실 CIA 자체와 군대 내의 이 작은 파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후의 모든 용감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내의 용감한 영혼들은 미국의 제도적, 문화적 붕괴를 막을 수 없었지만 2001년에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알퍼 박사와 그의 사무실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세 번 그와 만나고 있었는데, 정신 건강 문제보다는 정치와 외교 정책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책상

맞은편에 앉자 그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아내에게 지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의 강한 성격으로 아내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대사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 전에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알퍼는 사전에 완벽하게 연습한 듯이 모든 루틴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내의 고집을 언급하며 제가 국무부 시험에 응시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화 중간에 "난 국무부에서 일하지도 않고..."라는 가장 임신한 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아내와 차 안에서 나눈 대화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팀에 합류하길 바란다는 매우 강력한 의견(아마도 팀 전체의 의견일 겁니다)을 저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IA의 채용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죠. 제 생각에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는 청중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으니까요. 그 청중이 그 당시나 그 이후에 얼마나 많았는지는 궁극적으로 결코 답할 수 없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대화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알퍼는 다소 특이한 어조를 취했습니다. 그는 무표정하면서도 편안한 태도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까지 제 주변의 미국인 누구도 선뜻 말하지 못했던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알퍼는 "이 나라는 지금 아노미 상태입니다. 완전한 정치적 혼돈입니다." 그는 부시 일당이 정권을 장악했지만 정부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의 심각한 무질서를 공개적으로 설명했습니다.¹ 그는 또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실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저는 내전을 상상했지만, 그가 의도한 것보다 그의 말을 더 많이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가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제 역할에 있어서도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국제 관계에 대한 의견을

¹ 쿠데타로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조지 W. 부시 주변 사람들, 그의 극단적인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 일부는 폭력적인 행동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 혼란을 틈타 조직 내에서 권력을 장악했지만 반드시 부시 지지자는 아니며 군벌에 가까운 사람들 등 적어도 세 그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폭력 없이 그런 수준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언젠가 배울 것입니다.

제시하긴 했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고, 그저 조언을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는 미국 정부의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극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고, 저를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호소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제 비전을 제 성격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또는 오만함)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전체 쇼를 누구보다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나쁜든 제 성격이었고, 저는 앞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법적인 작전에서 저를 감시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분명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위험도 있었습니다. 저 개인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용한 제안을 했을 때 나중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저는 인텔리전스가 부정적인 역할이 아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적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저와 교류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제 신뢰를 남용하지 않았고, 정보를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그들의 영향력과 원초적인 용기를 이용해 부시 행정부에 저항하려는 노력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글의 궁극적인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른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궁극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패하고 반민주적인 기관 중 하나인 CIA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시 제가 본 것을 토대로 볼 때, 당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보기관 내 이 파벌은 말 그대로 이 나라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미국의 모든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기관이 무너진 상태였죠. 일리노이 대학의 그 누구도 위기에 대해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CIA 에는 기업을 돕기 위해 뻔뻔하게 법을 어기는 세력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를 위해 기꺼이 엄청난 압력에 맞서 싸우는 소수정파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형성되고 있던 대안 정보 커뮤니티는 결국 어나니머스나 위키리크스와 같은 단체에 영향을 미쳤고, 에드워드 스노든, 브래들리 매닝, 그리고 정보기관이나 군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 활동을 폭로하거나 정부에 책임을 묻고자 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의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항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독선적인 폭로자들은 제 사건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억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군대와 정보기관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완전히 베일에 가려진 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좋은 나쁜든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고, 제가 했던 말들이 악용되었을 수도 있으며, 의도치 않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서 본 비겁함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소설의 독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이야기의 일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적어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베이비시트 임마누엘' 작전은 매우 복잡하고 집약적이어서 상당한 문서가 존재할 것이며, 언젠가는 그 세부 사항이 공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전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전혀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을 꼭 써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CIA 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농담과 조롱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야기를 전달하여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는 CIA 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은 적이 없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여 스스로를 모욕하는 일을 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명백히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도 저는 대체로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시 미국에서 독립적인 예산이 있고, 부시 행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파벌과 반체제 인사에게 어떤 직책도 줄 수 있는 복잡한 권력 서열을 가진 유일한 조직이 CIA 였다고 상상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CIA 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저는 습관처럼 대학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역기를 드는 중간중간 여러 종이에 미국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제언을 적었습니다. 결코 급진적인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간결한 발언과 제안은 제가 생각하고 쓴 글 중 가장 잘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는 적었지만 그 함의는 방대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메모의 내용을 짚은 편지로 다시 썼는데,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국어로 쓴 글을 포함해 모든 자료를 봉투에 넣고 "알퍼 박사"에게 보냈습니다. 봉투 뒷면에는 떠오르는 해와 지는 해를 그렸는데, 이는 질문을 던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쇠퇴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인가? 물론 그 모양은 CIA 로고의 모양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를 살리기 위해 그토록 많은 위험을 감수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용기와 상상력으로 어떻게든 CIA 또는 그 일부를 선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키고, 나라를 바꾸기 위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소 순진한 가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봉투 뒷면의 표시일 뿐이며, 그 어떤 계약서에도 달리 설명하는 내용이 없었으니깐요. 제 발언은 간결했고, 제가 비스듬히 언급한 위기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내 제안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CIA 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한 입장을 취한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고, 훗날 이러한 노력을 이어갈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CIA 는 파괴적인 방향으로 전진했고 오늘날에도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부시 일족의 소유로 간주되는 한 조직에서 시작되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만적인 정부 내에서 법치와 능력주의의 일부를 조금씩이라도 지키기 위한 용감한 싸움은 오바마 정부에서 (제한된 의미에서) 일부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쓴 글에 대한 기록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고, 미국에서 저강도 내전이 벌어지는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꼈으며,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않는다면 제가 쓴 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관점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당시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서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CIA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후 몇 년 동안 친구와 동료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 '캠페인'(거의 유머러스한 성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아시아 언어를 많이 아시네요. CIA에서 일하는 것 같네요." 비교적 무해한 루머 캠페인이었지만 저는 이 루머 캠페인이 그다지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에 대한 결론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계약에도 서명한 적이 없으며, CIA와의 협력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조언을 했고, 그 조언에는 정보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었지만, 청탁을 받고 한 조언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CIA의 지시에 따라 제 3자에게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요원으로서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IA나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아이디어는 때때로 고위급에서 후속 조치를 취했지만, CIA는 저를 보호해줄 수는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월급 문제나 제가 당한 사소한 괴롭힘의 끝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세 명의 교수보다 더 오래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에서 제 급여는 다른 교수들 중 가장 낮았습니다. 저는 존재하지도 않는 질병의 치료비로 빚을 지게 되었고, 4년 동안 끊임없는 괴롭힘과 협박(가끔 유머와 지지 발언이 섞여 있음)에 시달렸습니다.

이메일, 광고, 정크 메일, 미디어에 숨겨진 메시지가 너무 흔해서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닌지, 있지도 않은 것을 보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2월 일리노이대학교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런 메시지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간혹 어떤 장교가 저에게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경험을 몇 번 한 적은 있지만, 그런 순간은 극히 드물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대화는 2004년에 끝났지만, 제 업무와 활동에 대한 기밀 제한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2001년 4월 20일, 저는 이미 칼 클리닉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라디오 뉴스에서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대마약 작전을 수행하던 페루 공군 전투기가 세계침례교전도협회와 계약을 맺은 마약 밀매 의심 비행기를 향해 발포했다는 내용이었죠. 두 명이 사망하고 비행기는 비상 착륙했는데, 이는 CIA가 운영하는 비행기가 제공한 정보 덕분이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CIA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었는데, 전날 오후에 제가 알퍼 박사에게 썼지만 아직 전달하지도 않은 편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방송을 듣자마자 그 언급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는 동안 이미 편지가 복사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방송이 제가 쓴 편지에 대한 명백하고 직접적인 언급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예상했던 대로 알퍼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일련의 심리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이미지와 도형을 맞추는 테스트였는데, 그 중 상당수가 제 편지와 매우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CIA 연구소의 누군가가 8시간 동안 제 자필 편지를 읽고 그럴듯해 보이는 형식으로 이 '테스트'를 구성한 것이 매우 재미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부터 저는 미국 시스템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신문에서 본 저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 일리노이 대학에 게시된 포스터 등을 통해 저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부시 행정부에 대해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비상사태가 심각한 폭력 사태나 심지어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틀렸지만, 당시의 혼란 속에서 정부 내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어떤 일을 당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혼란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일어서려는 CIA 내 소수 그룹과 협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치이자 윤리적 의무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행동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일과 연관되거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용당하거나 조작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시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종 완전한 재앙이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많이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제가 제안한 것들이 나중에 범죄가 될 행동과 확실히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변경에 제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 '뷰티풀 마인드'가 당시 일리노이 대학에서의 경험, 특히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부시 행정부에 맞섰던 CIA/군부 내 이탈 그룹에 대한 저의 관여를 어느 정도 묘사하기 위한 *영화인지에* 대해 저에게 질문해 왔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론 하워드 감독의 이 대작 영화는 존 내쉬 교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특히 프린스턴 대학교 재학 중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수학 신동으로서의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많은 부분은 제 사례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줄거리는 제 사건에서 일어난 일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줄거리가 제 사건에 더 잘 맞도록 수정되었고 존 내쉬의 실제 경험과는 덜 일치하도록 수정되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1년 12월에 개봉했는데, 일리노이 대학에서 저의 신분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때였기 때문에 영화에 나오는 많은 언급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잊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많은 부분이 당시 정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비슷한 학대를 받았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밀 작전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 등 제 삶과 일치하는 부분이 분명했습니다.

내쉬가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은 제 경험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내쉬의 실제 삶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제 소박한 삶에 맞게 이야기가 정리되었습니다. 하워드스 내쉬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세부 사항과 그의 성적인 실험에 대한 내용은 빼버렸습니다. 내쉬는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둔 이성애자이자 다소 단조로운 교수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2001년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아들 벤자민이 생후 몇 개월(영화 속 남자아이와 같은 나이)이었을 때의 저를 훨씬 더 잘 표현한 것이죠.

게다가 책 <뷰티풀 마인드>에 묘사된 내쉬의 망상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습니다. 미국 내 거대한 공산주의 음모부터 UFO의 방문에 이르기까지 환상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쉬의 환각은 논리적이지 않았고 일관된 줄거리를 형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외계인이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빨간 넥타이를 맨 사람은 모두 비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교황이자 남극의 황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신이 보낸 메신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군/정보기관의 기밀 작전에 예기치 않게 투입된 한 교수가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는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누명을 쓰고 직장에서 해고됩니다. 사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이며, 문서로 기록된 CIA와 관련된 실제 사건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스토리라인의 수정이 존 내쉬보다 저에게 훨씬 더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첫 장면에서 넥타이를 매는 장면이 완벽한 예입니다. 존 내쉬는 칵테일 파티에서 다면 유리를 통과하는 빛의 굴절에서 반태양 무늬를 형성하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이 패턴을 오렌지 조각에 투사한 다음 다시 유리 화병을 통해 빛이 굴절되어 학생 중 한 명의 넥타이에 투영됩니다. 넥타이에는 여러 개의 작은

떠오르는 태양 모티브와 하나의 큰 태양 모티브가 빛에 의해 비춰집니다.

내쉬는 "넥타이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수학적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넥타이에 대한 이야기는 내쉬가 빨간 넥타이를 매는 남성을 공산주의 음모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무서워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뷰티풀 마인드*'의 경우 넥타이는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내쉬는 넥타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겨워합니다.

2002년 초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저는 그 장면을 바로 CIA 로고의 나침반 모양과 미국이 떠오르는 태양인지 지는 태양인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대로 미국이 떠오르는 태양인지 지는 태양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직관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영화를 보고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절대 알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사건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평범한 교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영화와 내쉬의 삶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차이점은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실제 내쉬의 결혼 생활은 병이 진행되는 동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았고 다른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런 경향 없이 충실하고 가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영화 속 몇 가지 장면은 실제 제 인생에서 일어난 일과 매우 흡사하며, 특히 가족 모두가 당국으로부터 제가 정신병자라는 말을 듣고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시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더욱 그러합니다.

내쉬와 그에게 배정된 국방부 요원 윌리엄 파처(에드 해리스 분)의 대화는 제가 알퍼와 함께한 경험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장면이 있을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영화에서 내쉬가 했던 것처럼 엄청난 양의 신문 스크랩을 보관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 경험을 암시하는 기사와 광고를 오려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대부분의 스크랩을 버렸습니다. 영화에는 당시 비슷한 처우를 받았던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마지막에 존 내쉬는 노인이 되어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수십 년 동안 어떤 공적인 역할도 맡지 못할 것이고, 그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더라도 내 인생에서 매우 늦은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2년 만에 한국, 적어도 아시아 전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위기가 닥치기 1년 전부터 일리노이 대학을 떠나고, 가능하다면 학계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버드대 교수직에 지원했고, 국무부에도 지원했습니다. 두 곳 모두 제가 꿈꾸던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폭넓은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원격 교육 분야의 혁신이 제 경력을 쌓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제안서에서 설명한 아이디어의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제 경력이 끝났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제가 했던 조연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깊은 감사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저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저에게 몇 가지 재미있는 일을 해줬고 위협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유력한 후보로 보았지만 하버드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 명단에서 제외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해외 근무 지원은 계속 진행되었고 저는 1차 필기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월에 해외 근무 면접과 시험을 위해 시카고로 오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알퍼에게 해외 근무 면접에 대해 말하자 그는 "병을 생각하면 좀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때요?"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지만, 계획대로 차를 빌려 시카고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시카고 대학교 근처의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엄청난 모험이었지만 대부분 즐거웠습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로, 멋진 몰딩과 목공예품이 제 취향에 잘 맞았어요. 안타깝게도 더 이상 방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는 제가 받은 이메일에서 발견한 주제와 당시의 정치적 사건을 언급한 포스터와 광고가 가득했고, 지금은 잊어버린 내부 농담(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알 수 없는)을 언급하는 포스터도 많았습니다. 꽤 재미있는 경험이었으며, 지루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편안한 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미시간 애비뉴에 있는 시험 센터로 걸어갔습니다.

시험은 에세이를 작성하고 함께 시험을 보러 온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기하는 등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관리하는 외무부 직원들과 나눈 대화는 이상하게도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불합격했다고 말하면서 잘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들은 다소 유머러스하고 친근한 태도로 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듯이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밝은 햇살 아래 공원의 푸른 잔디밭으로 나갔을 때, 시험을 치렀던 사무실에 달력을 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달력을 찾으러 다시 돌아왔더니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다른 외무부 직원이 저를 만나 사려 깊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제가 일리노이 주에 있을 때 제 말을 들어주기로 했던 사람 중 한 명인지 궁금해졌지만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자의에 의해 캘린더를 두고 온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연출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렌터카에 올라타서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출구를 가리키는 일련의 화살표에 이끌려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저에게는 여전히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일련의 재미있는 농담과 속임수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특수 작전의 허세였어요. 전적으로 저 혼자만의 이익을 위한 경험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저를 즐겁게 하거나 신비화하기 위해 설정된 그런 이벤트는 그 기간 동안 자주 일어났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음악이 너무 독특해서 방송 전체가 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확신할 정도였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몇 곡은 물론 "호텔 캘리포니아"와 그 유명한 엔딩인 "언제든지 체크아웃할 수 있지만 절대 떠날 수는 없다"가 포함되어 있었죠.

국무부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합격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상황을 잘못 읽은 것이었습니다. 저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궁극적으로 저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실무자들이 저에게 보여준 친절은 아무리 사려 깊어도 제 경력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항을 시작하면서 몇 번의 즐거운 연대의 순간도 있었지만, 2001년 여름이 지나면서 저는 연방 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자비한 싸움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겪었던 저급한 괴롭힘, 동료와 친구들로부터의 완전한 고립, 전반적인 소외감을 다시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제 역할의 결과로 조만간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고, 저와 저를 지지해준 사람들이 곧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를 것이며, 그 결과 제 경력도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거나 감옥에 갇혀서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알지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뷰티풀 마인드'와 같은 작품을 통해 저를 애매한 방식으로 과분한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계속 굴욕과 커리어의 좌절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에 대한 조치가 불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희극을 끝내고 곧 모든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된 저에 대한 괴롭힘에서 노골적인 법 위반을 저지르고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알게 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작전의 목적은 저를 협박하거나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물론 처벌을 받았지만), 최고위층에서 정책을 변경하려는 사람에게 경고의 의미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청을 받은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불법적인 희극에 참여했습니다.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조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부시 행정부"라는 표현을 다소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한다. 부시, 체니, 럼스펠드, 그리고 다른 행정부 구성원들이 탄핵을 당할 만한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내가 목격한 많은 행위는 일찍이 관심을 잃은 고위층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방부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권력 공백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 정부 하층부의 광범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시를 비난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정확합니다. 약탈과 호전성은 부시만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이 단체들이 부시를 위해 일한다고 순진하게 생각했지만, 많은 경우 연방 정부를 파괴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부시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2001년 나의 여름은 느렸다. 2월, 3월, 4월의 활동은 두려웠지만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정 세력 사이에서 제가 받은 모든 관심에 비해 기적적인 회복의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제 경력을 회복하려면 몇 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흥분은 금세 가라앉았고 저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간혹 제가 조언을 해주고 일부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일리노이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질병'에 대한 양식을 작성하고, 의료비 과다 청구로 인한 막대한 부채를 갚고, 새로운 모기지를 갚는 데 할애되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질병을 앓은 적이 없다는 사실, 대학 급여 외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 푼도 벌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극도로 제한되었다는 사실이 그 기간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2월의 최악의 상황을 넘어 새로운 수준의 고립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용감한 투쟁에서 영웅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도, 전 세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유능한 인물로 승진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동료들로부터 오랫동안 별 볼일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더 이상 저와 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수업을 마치고 병가를 낼 수 있게 되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중 하나(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정치적 변화가 생기면 저와 제 가족이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두 개의 수업을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살인 행위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일본 고전 시와 중국 소설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알퍼 박사는 제가 앞으로 두 학기 동안 병가를 낼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안도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후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의 수업을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한 번 받지 않았고, 병가를 내야 하는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병가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뻔히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저는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전체에 대한 관점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지 W. 부시가 이렇게 명백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짜 문제는 부시 행정부나 전쟁에 대한 그들의 추진력, 또는 그들이 벌이는 다른 재미와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개인 윤리의 쇠퇴와 미국의 제도적 부패로 인해 이 모든 교수, 공무원, 전문가, 심지어 제 가족까지 부시 치하에서 제가 최악의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자신들은 계속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별다른 변화가 없는 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식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들은 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가족들은 제 이야기의 모호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2월 말 전화 한 통을 마지막으로 제 '정신 질환'에 대해 다시 묻지 않으셨습니다. 가족 중 단 한 명도 제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수백 번의 조작된 굴욕을 당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작전은 전혀 비밀스럽지 않았습니니다. 근처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삼페인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모든 희망과 일리노이 대학의 다소 적대적인 환경은 알퍼가 정신 질환에서 회복하려면 집을 사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명령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삼페인을 떠나 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대도시로 이사하고 싶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강의하던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삼페인과 같은 중서부의 작은 마을은 어린 자녀를 키우기에 좋지만 전반적으로 저와 아내 모두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에 좌절감을 느꼈고, 동정심이 없는 동료들에게도 충분히 지쳐 있었습니다. 집을 구입하면서 저는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몇 년 동안은 삼페인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 벤자민은 2001년 6월 11일에 태어났고, 그의 존재는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벤자민을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카펫이 깔린 아파트 바닥에서 씨름을 하는 등 벤자민과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훨씬 더 바빠졌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려 깊고

끊임없이 가장주의 깊게 경청하는 놀라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택 연금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정 생활의 즐거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가족들은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기조차 꺼려했습니다. 저는 동료들로부터 깊은 소외감을 느꼈고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군사 쿠데타를 겪고 심각한 정치적 갈등의 가장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를 교묘하게 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벤자민이 태어난 직후, 우리는 샴페인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대학에서 조금 떨어진 처치 스트리트에 있는 1930 년대에 지어진 단층 방갈로였습니다. 당시 단돈 7 만 5 천 달러에 구입할 수 있었던 아주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당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정도였죠. 꽤 매력적인 목공예품과 제가 자란 집처럼 균형추가 달린 클래식한 창문이 있었죠.

처음에는 집을 사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어쨌게든 가까운 장래에 샴페인에서 탈출할 수 있으리라는 은밀한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러나 알퍼 박사는 집을 사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까지 본 것을 보면 그런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일리노이에서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제 경력에 대한 희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산만함이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목공예품을 닦고, 지하실을 수리하는 데 보낸 시간 동안 저를 마비시켰던 더 큰 지정학적,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상을 찾으면서 다소 불규칙했던 제 삶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저는 정규직도 없었고, 끊임없는 압박과

모호한 위협에 시달렸으며, 국가가 어떻게 될지, 심지어 제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집 수리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지하실을 다시 칠한 후 남은 여름은 토마토와 오이를 심고, 잔디를 깎고, 벤자민을 유모차에 태우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음식 준비를 돕는 등 일상을 보내는 데 보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멀리 있는 워싱턴 D.C.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2001년 7월, 알퍼 박사는 일에 대한 저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났으니 컨설팅 일이나 번역 프로젝트를 구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이고 번역 일을 찾고, 친구들에게 컨설팅 일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한 대가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정규 급여 외에 일한 대가를 받은 적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또한 아시아와 협력하는 다른 회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그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자격을 갖추고 있고 많은 조언을 제공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한 푼도 지불하지 않으려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친구로부터 중국에 쥬라기 공원형 테마파크를 기획하는 계약을 맺은 캘리포니아의 한 그룹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고 제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상세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브로셔를 편집하고 유용한 제안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중국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곧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개해 준 친구가 꽤나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꽤나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고 다시는 편지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2001년 여름부터 2004년까지 컨퍼런스 초대, 워싱턴 DC 세미나 참석 기회 등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누군가 제게 접근했을 때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돌파구를 마련한 것처럼 보일 때쯤이면 일이 틀어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대화를 나눈 많은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있었고, 삶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지만 저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몇 가지 경험은 흥미로웠지만, 알퍼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일리노이 대학으로부터 병가 수당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저는 책과 신문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 동료나 친구,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알퍼를 거의 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 흥미롭고 자극적인 이메일 서신을 보내곤 했습니다. 교수, 사업가, 비정부기구(NGO) 책임자, 정부 관료일 수도 있습니다. 토론이 흥미롭고 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나면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제 활동 영역이 적극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이력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낯선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경험은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워싱턴 DC에서 일할 때 무한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4년까지 저는 잘못된 시작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의도적인 괴롭힘(특히 정부 기관에서 지시한 경우)은 모두 완전히 불법이며 중범죄에 해당하는 저급한 심리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희극을 즐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과거 사건을 조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제 주변의 교육받은 미국인 전체가 평화를 옹호하고 권위주의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절차에 따라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제가 깊이 존경하게 된 관철은 노동자 계급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고, 학계 동료들에게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언어와 사회성을 회복하는 1년짜리 재활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단순히 가택연금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활에 참여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친절하고 심지어 유머러스했습니다. 이 훈련의 요점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지식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었고 사실상 저항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재활 프로그램은 일리노이 대학의 심리학 조교수인 줄리 헵스트가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성인기 인지-언어적 의사소통 장애' 전문가였고, 그녀와 그리스에서 온 대학원생 안티고네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저와 만났습니다. 저는 언어적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만남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약 16년 후부터 언어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대중 연설과 글쓰기에 대한 좋은 조언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학자라기보다는 대중 연설가로 거듭난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제 경력에서 신문 기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학술적 글쓰기를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앨퍼가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제 의견을 물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줄리는 매우 친절한 여성으로, 개인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저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녀의 가족(그녀의 두 딸)과 여러 번 만났고, 그녀는 개인적으로 제 안녕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대본에 따라 연기하는 것을 완벽하게 기쁘게 생각했고 프로젝트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어떤 의심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리노이 대학은 물론 다른 대학의 동료들 중 누구도 제게 말을 걸어주지 않을 정도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우정은 큰 변화를 가져왔고, 저는 그녀의 조언을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유일한 조언이었기 때문에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그녀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가 감당하기 힘든 자리인 만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퍼 박사는 저와 몇 시간 동안 미국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회의에는 의료적인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는 가끔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수많은 양식 중 어떤 것을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01년 7월, 갑자기 그는 일본과 중국 문학에 관한 제 책 원고를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동료와 가족 모두 제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은 교수가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알퍼와 학과장의 발언을 통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물론 이는 제가 이전에 여러 차례 밝혔던 학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열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가 이 책을 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하버드 대학 출판부의 거절이 상당히 의심스러웠고, 고전문학에 관한 책을 읽는 과정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약 10년이 지난 2011년에야 원고의 절반을 책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저에 대한 괴롭힘 작전의 일환으로 원고가 거절당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판부의 *하버드 동아시아 모노그래프* 시리즈 편집자인 존 자이머는 저와 거절 이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원고의 문제점을 나열한 편지를 받았지만, 그 어떤 것도 원고를 거부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2년 후 아시아 연구협회 컨퍼런스에서 자이머를 만났을 때 그는 저와 대화를 피하기 위해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직업적 관계의 변화는 하버드에서 저의 지도교수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스티븐 오웬과의 교류에서 가장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오웬은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여러 방면으로 저를 지원해 주었고, 대학원 생활 내내 문학, 역사 및 기타 여러 주제에 대한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그 서신은 제 글 중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고, 제가 지식인으로서 제 자신을 생각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오웬이 쉬운 성격은 아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01년 4월, 오웬은 제 원고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는 짧은 자필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원고도 어떻게 거절당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감동적인 쪽지였지만, 그것이 우리의 서신 교환의 끝이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제 이메일이나 편지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005년 아시아학회 학술대회에서 그를 잠깐 만났을 때 짧은 인사를 나눴지만 그 이후로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보스턴을 여행할 때마다 오웬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에 대해 설명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오웬은 내가 문학 교수로서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고, 내가 변해가는 모습에 대해 별다른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나 나는 잠재적으로 그가 나에 대한 괴롭힘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시는 나에게 편지를 쓰지 말라고 명시 적으로 지시 받았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시아학 동료들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어요. 알퍼는 정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저는 고전문학에 대한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책 원고 작업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거의 불가능 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라도 몇 가지 수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중소설이 한국과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책을 쓰기로 하는 대신 중국 소설의 일본 수용에 대해서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 여름에 일본에서 이 원고를 작업할 기회를 얻었고, 2011년에는 그 내용을 수정해 서울대학교에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일리노이 대학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던 2001년 10월, 저는 친구인 아담 쿤의 초대를 받아 하버드에서 학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돌파구라고 생각했고, 곧 학자로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하버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절친한 친구인 에릭 말러와 닐 카트코프와 어울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2001년에 일리노이주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하버드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곳에 어떤 혼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정도의 혼란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 중이던 하버드대 카트코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중 한 명인 닐이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사실상 제 말을 끊어버린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그 누구도 9/11 테러에 대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저에게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고, 그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는 군부 통치하에 있는 나라에서 모든 것이 관찮은 척하는 미국의 지식인과 전문가 집단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제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작전은 미묘하거나 제한적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고, 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허구를 퍼뜨리고, 전 세계 동료 및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을 차단하고, 저급한 괴롭힘을 가하기 위한 노력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저는 이에 저항하거나 비판하려는 시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립 속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간도 몇 번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오클라호마시티의 알프레드

P. 머라 연방 빌딩 폭파 사건의 공모자로 기소된 티모시 맥베이 사건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부시 행정부가 2001년 5월 그를 처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의 정치적 혼란과 그의 지지자들이 추가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제안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FBI가 대량의 문서를 공개하면서 재판이 강행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를 도우려고 노력한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만한 부시 행정부의 위험한 절차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맥베이는 2001년 6월 11일에 처형당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동료나 저를 감시하는 사람으로부터 굴욕적인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때는 대학과 미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 대항하는 조직화 노력의 중심 인물로 일하면서 어떻게 제가 그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누구와도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똑같은 학대와 끝없는 재정적, 관료적 도전에 시달려야 했죠.

아마도 부시 행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연방 정부의 특정 부분을 다시 통제할 수 있었지만 부시 총성파를 일부에서 쫓아 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기이하고 예측할 수 없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 속에서 많은 미스터리한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차원에서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여전히 선의의 우리에게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정교한 설정을 통해 새로운 경력, 새로운 수입원 또는 흥미로운 네트워크에 나를 환영해 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패턴은 다소 예측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로 제안이 쇄도했고, 그다음에는 전화로 대화가 오갔으며,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자리를 맡아달라는 이야기가 오갔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김없이 제안이 성사되지 않거나 그냥 사라지곤 했습니다. 사업가, 연구원, 정부 관계자와의 연락은

서서히 줄어들다가 완전히 끊어지곤 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저는 제 일에 대한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경제-정치적 통합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는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예산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국방부 세력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벌의 목적이 제가 계획했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어떤 일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괴롭힘을 당한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히려 CIA와 다른 기관들은 저를 보호하고 지원했으며,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솔직해지도록 격려했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괴롭힘과 활동 방해의 의도는 오히려 완전히 독창적인 일을 시도하고, 좁은 진로에만 집중하지 않고 방황하며 너무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급진적인 탄압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수파나 중국 위협을 강조하는 군사 매파는 저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군부 일부에서는 이 젊은 자유주의자가 중국에 대한 고도의 이익이 되는 봉쇄 정책을 되돌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고, 그것도 아무런 승인 없이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분노가 있었겠지만, 그 요인은 크지 않았고 나중에 내 글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판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미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연방 정부 내에서 저항을 조장했다는 사실 때문에 제 '정치적 파괴력'이 상세히 기록된 두꺼운 파일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적인 능력과 교육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혼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어떤 조직에 참여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야심 찬 젊은이들은 하버드대 교수나 성공한 변호사,

상원의원, 심지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목표이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정해진 경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00년에 제 경력에 대해 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과 국제 관계의 본질을 재창조함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꺼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소 위험한 접근 방식이며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제 원격 교육이라는 개념에서 그만한 가치를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참을 수 없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가보다는 내가 옹호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스스로 구성하고 그것을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설득력 있게 글로 써서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 아이디어가 상식적인 것처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념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청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기꺼이 이야기할 의향이 있었고, 일리노이대에는 보수적인 인사들이 친구로 많이 있었습니다.

2001년 가을이 되자 장기적인 정치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저는 다시는 공적인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물론 비공식적으로 자주 거론되긴 했지만요).

미국에서 정치적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행정적 또는 조직적 역할도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저에게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때때로 제 글을 미국 및 전 세계의 일부 저널에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주로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부터 제 가족, 친구, 동료들은 저와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저에게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 사건은 너무나 이상하고 심각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 친구와 동료들 중 누구도 저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당시 미국의 특징이었던 기괴한 비겁함과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가족(아버지, 어머니, 양부모, 형제자매, 사촌, 이모, 양가 삼촌)의 경우, 제가 고집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주제를 꺼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단순히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밀로 분류된 조언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지침이 수백 건이 전달되었고, 지난 18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수천 건이 전달되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중 하나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법적인 지침을 대부분 그대로 따랐다는 점입니다. 편지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두 번째 정책은 사건의 전모를 언론과 이메일 교환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없었던 일로 처리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이 포괄적인 명령은 음모론 블로거와 좌우파의 다른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석에서도 아무도 저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물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야기를 공개하거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중단하도록 옹호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제가 매우 노골적이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브루스 커밍스 같은 저명한 '진보적' 지식인을 포함해 이 희극에 기꺼이 동조하는 동료 지식인들에게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음모는 좌파가 비난할 만한 끔찍한 범죄였지만 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동료 미국인들과의 경험은 2000년 실제 사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피해를 입혔습니다.

3 장

나의 패티 허스트 시대

제 상태의 변화 속도는 병하와 같았지만 실제 변화는 있었습니다. 2001 년 가을에 받았던 언어 치료는 계속되었고, 2002 년 봄에는 또 다른 심리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앞으로 다시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저의 고립감이나 재활에 필요한 끊임없는 좌절과 서류 작업을 줄이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가 기간 동안 저는 집을 청소하거나 아들 벤자민과 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도 벌지 못했고,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동료들이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동료들과 어울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범죄자의 통치를 허용하고 지지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제가 속한 사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후 몇 달 동안 군부와 정보기관에서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보였던 그 사건 전후의 상황은 극우와 극좌의 웹사이트와 관련 음모 페이지를 검색해도 제가 찾은 어떤 텍스트에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순간이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침묵 속에 지나쳐 왔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 놀랍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2002년 1월, 2001년 12월에 권력을 장악한 음모자들이 여전히 군부와 정보기관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정부 내에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는 않지만 혼란을 틈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다른 세력도 존재했습니다. 행정부가 권위를 잃었지만 대통령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군부 세력은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9/11 테러는 오늘날까지도 모호하게 남아 있는 작전입니다. 부시와 체니의 직계 추종자들에 의해 수행된 작전이었을까요? 럼즈펠드의 사람들도 관여했나요, 아니면 반대했나요? 그 과정에서 백인 민족주의자, 이스라엘, 조직 범죄 및 기타 관련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슬람과도 관련이 있었나요, 없나요?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을 폭파한 반정부 백인 민족주의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면 어떤 역할을 했나요?

9/11 테러는 애국자법을 통과시키고 국방비를 대폭 늘리며 경찰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 공격으로 인해 부시 진영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정부 내 완고한 반대파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9/11 에는 다른 의미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제가 쓴 글에 따르면 "오리엔트 특급에서의 살인"이었습니다. 즉, 다양한 세력이 서로에게 칼을 겨눴다는 뜻입니다.

주목할 점은 부시 행정부에 반대하는 군 내부의 조직화된 세력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당시 실질적인 장악에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9/11 테러는 부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부시나 체니의 소행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9/11 이 부시와 체니에 반대하는 세력의 소행이거나 이상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와 같은 신문들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를 암시하는 메시지와 함께 친부시 선전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당시 부시 행정부에 대한 깊은 적대감을 암시하는 이 이상한 기사와 광고 중 상당수는 이후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완전히 편집되었습니다.

어느 회의에서 미국 정치에 대해 논의하던 중 앨퍼가 "요즘 당신이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친부시파와 반부시파가 동시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말 그대로 뒤에서는 서로 격렬하게 싸우면서 동시에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2002년 1월 13일 조지 W. 부시가 프레즐에 질식해 기절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괴한 사건으로 연방 정부 내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였고 어떤 전문가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안 허가를 받은 정부 관계자들을 겨냥한 내부 농담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제가 "더 큰 물고기(즉, 부시)를 튀겨야 한다"고 했던 농담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프레즐은 물고기 입에 걸린 갈고리를 의미하며, 부시가 미끼를 물었으니 이제 낚아채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비밀경호국은 당시 몇 시간 동안 부시를 거칠게 다룰 수 있었지만, 그들은 전쟁 추진과 국가 경제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오만한 태도로 그들을 대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하고있었습니다. 선의의 사람들이 연방 정부의 상당 부분을 탈환하여 오바마가 당선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9/11 테러로 인해 가속화된 체제의 내부 붕괴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체니 세력과 그 동맹 세력이 점령한 펜타곤의 주요 부서를 되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세 개 이상의 파벌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협력하면서 여러 차원의 기묘한 정치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척하지 않지만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고 확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시에 대한 반대파는 사소한 문제로 부시를 처벌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대한 포용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니와 그를 지지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연방 정부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시 주변의 부패 세력은 우파와 좌파의 많은 사람들을 매수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행동하고 공식적인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기꺼이 돈을 받았습니다.

제헌 대회(물론 남북전쟁) 이후 연방 정부를 지탱해 온 이데올로기 전체에 독이 들어갔고, 일부 관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구조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2002 년 봄, 저는 우리 대학의 다른 학과, 특히 공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교수님들과도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당시에는 저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학과 교수진이 없었습니다. 미국 내 어느 누구로부터도 동아시아 연구와 관련된 학술 활동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앨퍼 교수님은 제 책 원고를 수정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동아시아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리노이대학교를 더 나은 학교로 만드는 데 일조했든, 동아시아학 분야를 발전시켰든, 미국의 군국주의와 전체주의에 맞서 싸웠든, 제가 성공했거나 시도했던 일들에 대해 조금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나오는 것처럼 뒤떨어지고 모호한 공적도 많지만, 그것은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암울해 보였지만, 2018 년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희망이 남아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돌파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2 년 4 월, 알퍼가 저에게 "너무 기뻐하지 말라"며 이메일로 사무실이 다시 주어졌다고 알려준 날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모든 책을 처치 스트리트에 있는 집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데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에 사무실을 배정받았다는 것의 상징적 힘은 엄청났고, 나중에 알퍼가 말한 바에 따르면 이 조치가 엄청난 숨은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무실을 배정받은 방식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일리노이 대학이 아닌 알퍼 박사가 저에게 병기창에 임시 사무실을 배정했다고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이메일은 이번 발령이 다소 중요한 성격의 돌파구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이 미군이 통제하는 대학의 한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돌파구였다거나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사회에서 부시 정권에 대항할 수 있고 제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미군 내부뿐이었습니다.

저를 군에 맡기기로 한 결정은 미국의 비극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익히 알고 있던 시스템과 문화 전체가 심각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학자들과 행정가들은 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강요하는 데도 무감각하게 따랐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극우 세력에 맞서고 부시 행정부의 범죄 행위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군대 그 자체였다. 나중에 에드워드 스노든과 브래들리 매닝의 경우 이러한 아이러니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녹색당이나 다른 환경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았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노든이나 매닝과 달리 저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유명 인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알퍼로부터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 부서의 새 사무실 열쇠를 받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비서인 잔느 풀 씨를 만나러 갔고, 그녀는 친절하게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노동자 계급 출신의 점잖은 여성인 저는 항상 잔느의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평범한 방식으로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행동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일리노이대학교를 떠날 때쯤 저는 그녀와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달리기 트랙에 햇빛이 비치는

아치형 천정 창문이 양옆에 있는 거대한 건물인 무기고로 걸어갔습니다. 중앙의 공간은 학군단이 훈련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곳에서 여러 차례 조깅을 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2 층의 다소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 기괴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사방이 노란 유약을 바른 벽돌로 덮인 창문이 없는 작은 방에 들어갔는데, 가구라고는 구석에 놓인 작은 금속 책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한 노인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을 선임 관리자라고 소개했습니다(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는 저와 악수를 나눈 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애초에 그가 그 옷장에 있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한동안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아, 제가 최근에 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종종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저와 저 혼자를 위해 마련된 재미있는 이벤트 중 하나였습니다. 덕분에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싸움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유머와 연대에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특별한 대우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새 사무실은 엄청난 혁신이었지만 가능한 한 가장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 친절한 영혼들이 그 타격을 완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기고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제가 본질적으로 군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군이 저를 보호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바뀌었는지 궁금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 사무실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무기고와의 제휴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신병 모집병, 하사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다른 장교들을 포함하여 무기고의 다른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속한 부대의 구성원들과는 달리 진지하게 저와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속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새로운 군인 그룹, 그리고 나중에 안보 및 국제 관계 문제를 연구하는 교수들과 함께 국제 관계, 기술, 때로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학계와는 거리가 멀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일본 고전문학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저는 미국의 군사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미국 군국주의에 완전히 반기를 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순진하게도 이 그룹의 사려 깊은 멤버들과 함께 세계에서 미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무기고에서 보낸 시간을 "패티 허스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패티 허스트는 부유한 출판업자의 딸로, 좌파 단체에 납치되어 테러

활동에 협조하도록 강요받았던 인물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들의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심지어 그들의 이념적 슬로건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패티 허스트는 주변 혁명가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의 자유 의지로 그런 행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저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부터 한동안 상당히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쟁의 본질 변화, 드론 및 사이버 전쟁에 대한 토론을 비롯해 안보 문제에 관한 수많은 이메일을 썼는데, 이는 저와 교류했던 군 인사들의 가정에 부합하는 주제였습니다. 제 주장은 복잡하고 부시 정권 전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훗날 제가 이 시기에 썼던 이메일과 다른 글들이 빛을 보게 되면, 제가 나중에 한국 평화운동의 창시자이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옹호자로서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제 생각이나 행동에 내재된 모순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가치와 제도의 붕괴로 인한 제 삶의 위기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물론이고 녹색당과도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미국에서의 일상 생활에서 배제되었고, 소위 진보주의자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외면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저의 자연스러운 동맹이 될 수 있었던 인물들도 저와 거리를 두고 지시를 따랐습니다. 제가 드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글을 썼을 때, 그 주제가 제 관심사라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모든 동료들과 단절된 채 1년 동안 군인들과만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끝나자 제 활동도 바뀌었습니다. 패티 허스트처럼 저도 그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제 3자에 의해 배치된 곳에서 유일하게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끌렸습니다. 제가 만난 군 장교들 중 일부는 저에게 거의 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다른 장교들은 말과 행동에 사려 깊고 진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미군과의 교류에서 계급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족 중 누구도 직업적으로 군에 복무한 적이 없었고, 그런 이유로 군대는 저에게 상당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가 많은 노동계급 미국인들에게 직업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본 가치를 배우는 수단으로서 어떻게 공통의 길을 형성하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미군에 입대하도록 강요하는 경제적 압박을 처음으로 목격했고, 자신의 일을 정당화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그들의 노력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사회에 대한 이전의 시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는 여전히 부시 행정부의 전체주의 추진에 저항하겠다고 다짐한 군부 내 세력이 결국 어떤 형태로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나는 다소 순진하게도 군대를 통한 미국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 이 부분은 제가 틀렸지만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시 행정부와 그의 지휘계통 위반에 반대하는 많은 군인들은 민주주의나 적법한 절차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단지 부시가 자신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관행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국이 미래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는 체니와 다른 자신만의 군 개혁 의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등 다양한 이유로 부시에게 분노했다.

제 가족과 고학력 중상류층 미국인 전체가 저를 죽도록 내버려두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방식에 대한 제 자신의 감정적 반응도 당시 제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같이 가장 익숙했던 미국 사회의 일부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았죠.

제 주변의 정보기관과 군인들이 적법한 절차와 진실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 저를 보호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경우에서 사람들이 저를 도와줌으로써 얻고자 했던 것은 모호하고 복잡한 정치적 게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지 W. 부시와 그의 내각이 항상 저에게 적대적이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게임에는 많은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무기고에서 근무하는 장교들에게 저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했고,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곧 미군에 입대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시 교수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군 장교들은 저에게 부시 행정부에 대한 우려와 당시의 위험성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들의 개인적인 발언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순진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많은 사려 깊은 의견을 제시하며 미국 정책에 대해 상당히 사려 깊고 심지어 비판적으로 보이는 한 육군 하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라크 전쟁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만난 하급 관리들의 꾸밈없고 솔직한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제 생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1 년 이후 미국에서 살려면 근본적인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상당 부분이 무자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이용한 딕 체니와 같은 용병과 냉소적인 이윤 추구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몇 가지 문제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나라가 똑같다고 생각하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전자의 가정을 선택했고,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편안한 무감각과 부정의 상태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길을 잃었습니다.

주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 국제 관계와 안보에 관한 기사를 많이 읽었습니다. 이 작업은 저를 이전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만들었고, 결국 현대 국제 관계에 관한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9/11 이후 미국이 동아시아 및 중동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군비통제 군축 및 국제안보(ACDIS) 세미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치학과의 에드워드 콜로지(Edward A. Kolodziej), 물리학과의 제레미아 설리반(Jeremiah Sullivan) 등 ACDIS 소속 교수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들은 저에게 귀중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매년 미 공군 대령들이 ACDIS 에 배치되었고, 저는 3년 동안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저도 군대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2002년 12월 대만에서 열린 제3세계 연구협회 연례 회의에 처음으로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7월 불운하게 중국, 일본, 한국을 방문한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에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 부, 문화, 기술'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본토와 대만, 21세기 '민족 국가'의 변수와 씨름하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준비했는데, 이 강연은 나중에 인터넷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제가 미국 학자로서의 평범한 커리어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2003년 봄, ACDIS 프로그램에서 제가 대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관계에 대해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ACDIS 프로그램에 합격했다고 느꼈고, 병가

중이어서 강의를 하거나 학과와 교류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에게 소속을 허락했습니다.

2003년 1월과 2월, 부시 진영이 장악한 군부 세력이 이라크 전쟁을 강행하기 위해 다른 군부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미국 내에서는 말 그대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펜타곤에서 벌어진 그 암울한 전투에서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론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야 하는 이유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넘쳐났습니다.

전체 과정이 너무 희극적이어서 정치적, 재정적 이득을 위해 과장된 전쟁에 대해 가족과 친구들이 침묵하는 것에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쇼 전체에 혐오감을 느꼈고, 이 사태 이후 군과 함께 하는 ACDIS 프로그램 이벤트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군 내부에서 전쟁 추진에 공개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을 결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세력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추진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알퍼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고,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일을 설명하는 이메일도 몇 통 보냈습니다. 물론 그 이메일은 다소 암시적인 내용이 많아서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 제안은 부시 행정부가 세운 독재 체제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며 펜타곤의 일부를 장악하려는 군 내부의 작지만 헌신적인 그룹의 주요 노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료가 기밀 해제되면 제 조언과의 연관성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 년 3 월 20 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몇 주 전, 미군이 이 지역의 군비 증강을 축소하고 평화적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일부 방송사에서는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한 분석을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국방부 내부의 물밑 싸움은 격렬했고 인과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 보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고, 정확한 날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군사적 저항은 회의적인 CIA 보고서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추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반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행동으로 인해 전쟁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고 체니의 선택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슬픈 사실은 부시 행정부가 전쟁을 추진하기 위해 군 전체를 완전히 통제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추진을 막으려는 노력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군사적 반대 세력의 약점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놀라운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소수의 군 장교들만이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지만, 말 그대로 그런 종류의 도박을 하려는 민간인은 없었습니다.

우리 집 지하실 바닥 한가운데 놓여 있던 탐폰을 발견하면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시청자들이 저에게 남긴 특별한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군의 마지막 저항에서 저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당시 군 내부에서 이라크와의 전쟁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과 관련하여 유포된 많은 성명서들은 이라크 전쟁 3 주 전에 제가 쓴 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군내 모든 저항 세력을 결집해 전쟁 추진을 막아야 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직후 침공 준비를 마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움직임이 뉴스에 보도되었고, 이라크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CIA 보고서를 비롯한 언론의 내러티브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시 일가에 대한 정부 내 저항을 다시 효과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너무 멀리 나아갔습니다. 2 기 미국 정부의 강력한 새 세력은 제가 다시는 미국 정책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않기로 결정하고 저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가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워싱턴 DC 의 유명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내부자 트랙 정책 논의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겪었던 위협과 극심한 괴롭힘에서 벗어났지만 미국 측의 활동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할 것이 있어도 더 이상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퍼 박사는 제가 일본 문학 서적 원고 작업을 중단하고 현재 관심사에 맞는 외교 또는 안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ACDIS 의 연구원들, 미 공군에서 온 방문 학자들, 그리고 이메일 소개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곧 워싱턴 DC 에서 가능한 일자리에 대해 연락할 수 있는 상당한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다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와 이야기를 나눈 모든 사람들이 국무부, 국방부, CIA 또는 다른 곳에서 초급 직원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시간을 내서 세부적인 과정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정보학 교수이자 중국 안보 문제 전문가인 로버트(밥) 서터(Robert (Bob) Sutter)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 6 개월 동안 저를 보좌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조언해 주셨고, 제가 대화해야 할 사람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중 몇 명은 제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와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워싱턴 DC 에서 밥을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밥은 제가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강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기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10 년 후 이메일을 통해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2001 년에 제가 일자리를 찾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 다. 밥이나 다른 사람의 소개로 학계, 정부, 정계 인사를 만나면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이메일 서신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그 과정이 끝나고 일할 기회나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단 한 번도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은 제가 열심히 일하고 선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또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식이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 다.

서터는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명단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싱크탱크, 정부, 기업에서 일하는 약 30~40 명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가능한 직업에 대해 문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 중 어느 누구도 저에게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워싱턴 DC 에서 저를 위해 무언가를 주선해 줄 수 있는 지지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밥이 소개해 준 NSA 직원은 전화나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004 년에 아버지 친구의 소개로 NSA 직원과 잠깐 통화한 적이 있지만, 그 전후로 NSA 와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조직 내 적대감을 시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3 년에 워싱턴 D.C.로 여행을 가서 밥 서터와 그가 추천한 외교 및 안보 관련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워싱턴 DC 는 저에게 낯선 세계였습니다. 10 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국가 안보와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 인사들과 단 하루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일리노이 대학에서의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회로 보였습니다.

워싱턴 DC 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에 관심을 보였고 제 의견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샴페인에서 교수로서 제 역할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저는 적은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몇 년 동안 어디로든 여행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간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워싱턴 D.C.로 이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샴페인을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모든 기회가 막다른 골목이었죠.

이 기간 동안 워싱턴 DC 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연구하는 연구자 및 정부 관리들과 교류한 것이 저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외교관계위원회의 합의에 따른 태도를 취하고 벨트웨이 내부자들의 스타일을 흉내 냈다면, 그들은 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든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무역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옹호하거나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옹호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면 더 많은 기회가 왔을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직접 목격한 부패와 범죄에 역겨움을 느꼈기 때문에 CIA 나 국방부의 유일한 매력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부패에 맞서 싸우려는 소수의 용감한 개인이 그 기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락한 직장을 얻기 위해 기존의 규범에 순응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진로를 택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약 17 년이 지난 지금 그 때를 돌아해보면 연방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다소 순진했던 것 같고, 그 일자리가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도 없었지만,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기회를 모색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은 보안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공식화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의견을 수집하고 반복하는 대신 군과 정보기관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비전통적 위협,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비전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워싱턴 DC 에 도착한 후 이러한 아이디어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견을 온라인 신문인 트루스 아웃에 기고한 글에서 광범위하게 읽히면서도 전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이틀 후,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록클리어 제독은 2013 년 하버드를 방문해 전문가들과 기후 변화에 대해 토론했고, 제가 제시한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논쟁의 대부분은 위험한 지구 공학, 탄소 거래 및 기타 사기 행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트루스아웃에 실린 이 글은 2012년 10월, 제가 존 페퍼와 공동 집필한 '태평양 중심축에서 녹색 혁명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외교 정책 전문지 '포커스'에 게재한 것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기후 변화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완전히 재편된 미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안보에 관한 혁신은 새로운 무기 체계의 제안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안보에 대한 정의도 포함해야 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2003년 대만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국가의 분열을 현 체제에서 간과된 핵심 안보 문제로 논의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기업이 기꺼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적 분쟁에 끌려가 수년간 처벌을 받았던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보안의 정의에 대해 타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은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독특한 것이었지만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3년 봄 시카고 일본 영사관에서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2003~2004년 짧은 기간 동안 일본과 상당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했고 총영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워싱턴으로 떠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류에 다시 합류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본 재단으로부터 일본 문학에 관한 책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어 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제 책의 주제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몇 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했습니다. 도쿄에서의 그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벤자민은 우리가 살던 쿠니타치의 작은 집에서 매우 즐거워했고, 승은이는 동네의 젊은 일본인 엄마들과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셨던 혼다 히로쿠니 도쿄대 교수님은 진보적인 커뮤니티의 친구들을 소개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저희는 벤자민과 공원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놀았고, 벤자민을 지역 유치원에 보내면서 일본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죠.

18 세기 일본 한문 서사의 영향에 관한 책의 새 장을 썼고, 도쿄대 지도교수인 나가시마 히로아키와 신지 노부히로와 만나 작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일문학 교수로서 다시 제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개념이 다시 떠오르면서 원고를 정리해 2011 년 서울대 출판부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3 년 가을에 일리노이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조교수로 복직했는데, 공식적으로 임용 기간이 2 년 뒤로 미뤄져 2004 년에 3 년차 재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개의 수업을 배정받았고

교수 회의에 다시 참석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더 이상 학과의 일원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다른 교수진들과 가끔씩 만나면서 다시 편하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학계 동료들보다 학생들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미국의 엄청난 정치적 혼란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놀랐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 문제를 명백한 토론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몇 안 되는 교수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본에서 보낸 세월이 제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보낸 세월 덕분에 가족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보지 못했거나 보지 않으려는 미국 이데올로기의 왜곡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03년 가을은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처음으로 짧은 설명을 쓴 해이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름은 빼고 큰 윤곽만 5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했습니다. 저는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 아버지, 형제에게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편지를 받았다고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어머니나 오빠로부터는 명확한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와 오빠와의 대화에서 그들은 제가 쓴 글을 읽기는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에 어머니, 아버지, 오빠가 (따로따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는 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미 있는 질문을 하지 않으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의도적인 대화의 창이 닫혔고, 오빠는 다시 제 이야기에 구멍을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7년이 되자 오빠와 아버지, 여동생 안나는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뒤에서 의심하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주장은 그들에게 거의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기사 초안을 작성했던 일리노이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프랜시스 보일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로스쿨의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대학 직원들에게 다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았기 때문에 제 질문이 그녀를 놀라게 한 것 같습니다. 그가 부시 행정부를 상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하면, 나는 그가 나에게 자연스러운 동맹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보일은 저와 현대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지만, 일리노이 대학에서 제가 동정심이 없는 보직 교수로부터 부당한 종신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어떤 문제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보일이 저를 옹호해 준다면 이 커버스토리를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일이 최소한 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04년 봄에 제 3년차 검토위원회에 있던 데이비드 굿맨을 만나 제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보일은 굿맨이 저에게 유일한 문제는 출판물 수가 부족하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는데, 그때까지 저는 상당한 양의 출판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2004년 봄, 재임용이 거부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이 제 미래에 대한 논의에 뛰어 들었습니다. 바로 한국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진보적 학자인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였는데, 그는 제게 자연스러운 동지가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1997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커밍스가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고, 저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저에게 뉴욕타임스에 시사 관련 글을 자주 기고하던 스탠리 피쉬 영문과 교수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커밍스에 따르면 피쉬 교수는 제가 향후 취업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쉬 교수는 짧고 난해한 이메일을 통해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았고, 저와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고상한

사람이 제 이력서를 보고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했나 봅니다.

하지만 제 가족과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저와 그토록 멀리 떨어져서 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했을까요? 저는 나중에 FBI와 다른 기관의 그러한 권고에 대한 선례를 조사하고 제가 생각하는 편지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거부한 것은 아마도 권고의 내용에 따라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신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와의 모든 상호 작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현재 일련의 국가 안보 지침에 따라 미국 내 활동과 관련하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의 내용은 기밀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연방수사국이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페스트라이쉬 교수와의 상호작용의 성격에 관한 모든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저, XXXX 요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FBI 요원이 귀하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는 귀하와 페스트라이쉬 교수와의 모든 구두, 서면 또는 기타 형식의 상호작용에 적용됩니다.

다음은 페스트라이쉬 교수의 미국 내 활동과 관련된 주요 제한 사항입니다. 페스트라이쉬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저와 상의해야 합니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FBI 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미국 내 어떤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도 수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의 업무에 대해 어떤 형태의 보상도 제공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FBI 의 허가 없이 공식적이거나 구속력이 있는 어떤 형태의 고용, 기관 소속 또는 기타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FBI 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그의 경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제공할 권한이 없습니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FBI 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미국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 사진 촬영 또는 기타 방식으로 묘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명시적인 승인 없이 기관 협력, 업무 계약, 연구 프로젝트, 교육 이니셔티브 또는 잠재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사안에 관해 장시간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민감한 국가 안보 조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모든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18 U.S.C. * 2709 (c) (1)에 따라, FBI가 이 서신에 기술된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범죄 대테러 또는 방첩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교 관계를 방해하거나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 U.S.C. * 2709(c)(1) 및 (2)는 귀하 또는 귀하의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 서신의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사람 외에는 이 서신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4 년은 저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 조짐이 보였어요. 저는 일본 센슈대학의 인터넷 기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카모토 모토코 교수와 18 세기 일본 문학^(^h)에 대해 방대한 저술을 남긴 사카모토와 자세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녀의 작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도쿄로 초대하여 우리가 계획한 프로젝트에 대한 일련의 회의를 진행했고, 향후 센슈대학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까지 했습니다.

2004 년 4 월, 저는 사카모토 교수님과 다른 교수진들을 만나기 위해 3 일간 센슈대학으로 날아가 토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안내해 준 젊은 일본 학생들과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사카모토

교수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18세기 중국 소설이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저의 연구(th)에 대해 이야기하며 향후 학술적 협력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느꼈습니다.

센슈대학에서 제공한 일본 여행 경비로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본 교수진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일본 학생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으로 돌아온 지 몇 주 만에 전체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사카모토 교수에게 상세한 감사 편지를 썼지만 일본에서 나눈 대화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듯한 간결한 답장만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조교에게도 편지를 썼는데, 조교는 프로젝트가 지연되었다는 말만 하고는 제 이메일에 아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도 얻지 못했고, 프로젝트에 투입한 많은 시간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일본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면 10년이 더 지나야 했습니다.

2004년 봄, 제 3자를 통해 제게 전달된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징후에도 불구하고 제 경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일본인 교수나 브루스 커밍스의 노력보다는 국무부의 콜린 파월과 중앙정보국(CIA)의 조지 테닛(그리고 국방부 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인물들)의 보호를 받으며 이전 세대에서

살아남은 수준 높은 인물들이 정부 실무진에 다시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가능성의 순간은 현실이었지만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시를 지지하는 세력은 강경파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기 위해 가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04 년 5 월, 훨씬 더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물들이 이끄는 부시 2 기 정권으로의 전환은 이미 결정되었고, 미국에서의 제 경력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제 사례는 놀라웠지만, 데니스 쿠치니치나 론 폴이 하원에서 영구적으로 쫓겨난 방식이나 래리 월커슨 같은 인물이 국무부에서 쫓겨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4 년에 저에게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은 4 월에 시작된 데니스 쿠치니치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일한 것이었습니다. 데니스 쿠치니치는 (론 폴과 함께) 부시 행정부에 맞설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유일한 의원이었습니다(물론 제한된 의미에서 그랬지만요). 그는 탄핵안을 발의했고, 부시 행정부가 내놓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쿠치니치의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가 지지할 만한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4 년 봄, 저는 미국 정치에 관한 온라인 토론 그룹에 몇 개 참여했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헌신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쿠치니치에 대한 이메일 토론을 통해 만난 사람들 중 몇몇은 좋은 친구가 되었는데, 쿠치니치의 캠페인 매니저인 데이비드 스완슨은 전쟁을 종식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운동인 '전쟁을 넘어선 세계'를 운영하며 여러 차례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2004 년에 거의 매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몇 년 동안 온라인에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된 LA 출신 짐 카와카미(Jim Kawakami)도 만났습니다. 가와카미는 나중에 제가 디자인을 도왔던 뉴스레터 등 그의 글에서 민주당의 주류 노선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쿠치니치가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안은 충분히 설득력이 없었고, '평화부' 법안은 너무 순진한 용어로 설명되어 있어서 어떻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후 변화와 부의 분배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른 누구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조했고, 버니 샌더스가 선거 운동에서 제기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쿠치니치의 선거운동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고, 토론 그룹과 그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그가 예비선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강력하고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제안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은 저에게 훌륭한 훈련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 개념과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문학 공부에서 멀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쿠치니치가 경선에 오래 머물 계획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토론 그룹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쿠치니치가 끝까지 경선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주장을 펼쳤고, 그의 접근 방식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여 예상치 못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숨은 주역들이 그가 너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는 발언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토론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의 아이디어가 최고위층에서 거부당하고 있고 쿠치니치가 민주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때때로 그는 망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2006년 워싱턴 DC에서 쿠치니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제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가장 반갑게 맞아주었고,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저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후로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존 케리는 끝까지 선거 운동에 참여했고, 이는 존 케리가 최종적으로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부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적인 발언을 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열성적인 팔로워들이 정치 공작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았고, 대화는 실제 정책 토론에서 벗어나 사소한 이슈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미국 사회에 전례 없는 재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끔찍한 타락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나라의 방향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운동에 대한 열정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치 시스템이나 정부에서 우리가 이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으며 동료 미국인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재앙뿐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쿠치니치 팀과 함께 일하면서 개념과 주제를 간결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작성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훈련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술적인 글쓰기와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이메일은 저를 조금씩 저널리즘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동시대 이슈에 대한 두 페이지 분량의 짧은 기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술적인 글과는 달리 저는 그런 일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연구 동료들과 교류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고, 훗날 다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제가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대한 학계의 영향력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알퍼와 다른 교수진과의 대화, 그리고 대학 행정부가 저에 대해 점점 더 무관심해지는 것을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저는 2004년 5월에 있을 테뉴어 심사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회는 저를 만난 적도 없었고 제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계약에 필요한 학술 출판물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결정권자가 판결을 내리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준비했습니다: 1) 밥 서터가 추천해 준 정부 및 싱크탱크의 다양한 인맥을 추적했고, 2) 평소 같았으면 절대 지원하지 않았을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을 포함해 전국의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술직에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3) 파크랜드 대학이라는 지역 커뮤니티 기관에서 추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원한다면 무기한으로 강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혜택이 없고 급여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샴페인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저에게 당분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편지나 전화를 받고 인터뷰를 요청해 온 대학, NGO, 기업, 기타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내준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제 마르크스주의자 친구는 몇 년 후 제가 계급에 대한 배신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환원주의적 분석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해석에는 일정한 논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말에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전체주의 정부와의 협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스토리라인을 뒤흔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명함을 들고 다니던 저로서는 체계적으로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하는 것이 특히 거슬리고 짜증스러웠습니다. 결국 제 존재 자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모두가 저를 아예 곁에 두지 않는 것이 더 편해졌습니다.

나중에 제 가족과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겪었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금기시했던 블랙리스트에 대한 논의를 피하기 위한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제 부서와 비교적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와 잘 지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 3 자에게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싸움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뉴욕 타임즈나 스팸 이메일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04 년 여름까지 언론에서 제 사건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부 및 국제 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제로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실직 또는 급격한 불완전 취업으로 파크랜드 대학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 면접과 채용 제안으로 이어진 구인 제안이 한 건 있었습니다. 이 기회는 다소 우연하게 찾아왔습니다. 2004 년 4 월, 일리노이 대학교 캠퍼스를 걷다가

일리노이 빌딩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채용을 위한 대규모 취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FBI 와 CIA 가 설치한 부스를 돌아다니다가 CIA 채용 담당자 중 한 명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4 년 동안 정부 기관, 대학, NGO, 기타 조직과의 면담에서 매번 거절당했던 저는 그 만남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채용 담당자에게 명함을 남기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채용 담당자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저는 언어 치료 수업에서 많이 다듬은 제 최근 이력서 사본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이력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몇 주 후 저는 더 자세한 신상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2004 년 가을에 공개 정보를 전담하는 CIA 의 한 부서인 FBIS(해외 방송 정보 서비스)의 일본 부서에 지원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했고,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된 신문 기사를 받고 1 급 시험의 일부로 번역을 해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FBIS 는 전 세계 고위급 신문의 중요 기사를 영어로 번역하여 정부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연방 정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국무부 및 기타 정부 기관의 구성원에게 중요한 정보원이며, 영어 저널이 아닌 현지 언어로 된 기사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번역본으로 제공합니다.

2004 년 5 월, 저는 마지막 해외 근무 시험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했고, 그 기회를 이용해 그곳의 대학과 정부 기관에서 아시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 FBIS 의 일본팀에서 근무하는 한 청년을 만나 사무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도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한국 팀원들과도 마주쳤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 사무실에서 기울인 노력을 보니 제 지원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4 년 여름까지만 해도 FBIS 에 지원하는 것이 취업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파크랜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거나 실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일자리가 사라졌는데도 FBIS 자리가 저에게 남아 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CIA 는 충분한 힘을 가진 조직이며, 내부에 깊고 복잡한 자금 조달 구조, 즉 외부의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파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딥 스테이트' 구조는 매우 위험하지만, 특정 파벌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세력이 CIA 내부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애초에 CIA 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바로 이런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의 마음 속에는 극도로 힘든 시기에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미래가 암울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제가 너무 낙담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2004 년 9 월, 저는 버지니아주 레스턴으로 일본어 번역을 위한 FBIS 채용 면접을 보러 불려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면접이 진지한

것인지, 아니면 정교한 게임의 일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까지 진짜 모호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CIA 가 제 비행기 표를 배상해야 했지만,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후에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날아가 면접 장소 근처의 홀리데이 인에 묵었습니다. 호텔 안은 CIA 면접을 보러 온 20~30 대 젊은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이 젊은이들은 면접의 모든 과정이 비밀에 부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레스턴에서 특별히 비밀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체크인할 때 공개적으로 CIA 패킷을 받았고, 면접 장소로 이동할 호텔 앞 미니밴에 언제 탑승할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만난 젊은이들과 나눈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이상이 무자비하고 민영화된 정부의 제재소에 공급되는 것을 보고 슬펐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일리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제 학생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우리는 단조로운 관료의 짧은 환영 강연을 들은 후,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숲이 우거진 부지에 목재 패널로 된 2 층 건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복합 건물에서 각자의 부서 전문가와 일대일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닐라 봉투에 인쇄된 일정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뷰 내용은 잊어버렸지만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숲이 보이는 구석진 방에서 심리학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정신 건강에 관한 책들이 책꽂이에 가득 꽂혀 있었는데, 마치 알퍼의 사무실을 연상케 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어렴풋한 동유럽 억양으로 말하는 나이든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치관, 부모님의 이혼,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문학적이었고 심지어 장난스러웠으며, 마치 조셉 캠벨의 <천 개의 얼굴의 영웅>과 같은 제 인생의 서사시를 쓰려고 하는 것 같았고 관료제에서 저와 어울리는 사람을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CIA 라는 구조 안에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변창할 수 있었던 인간성의 한 구석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당일의 하이라이트는 고위직으로 보이는 오랜 정보 전문가이자 저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맡았던 '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그를 세 번 만났는데 그가 책임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또한 하루 종일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밥은 상당히 사려 깊게 말을 했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친근한 것을 보면 일리노이 대학에서 저를 가까이서 관찰했던 사람 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실제로 직접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죠.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증거는 없지만, 저는 우리가 즉시 친구로서 교류하는 방식에서 그러한 장기적인 관계를 암시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음을 감지한 저는 짧은 첫 만남을 마치고 헤어질 때 "밥"에게 "저는 항상 낯선 사람의 친절에 의지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사의 표시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30 세 전후의 젊은 남성이 거짓말 탐지기 기계가 있는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모니터링을 위해 제 몸에 전극을 부착하는 동안 누워 있으라고 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그는 제 삶과 업무에 대해 일련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은 다소 뻘하고 진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저 자신보다 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는 약 30 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제 일에 대해 질문했을 때 갑자기 화재 경보처럼 다소 시끄러운 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멈춰 서서 저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확한 질문은 기억나지 않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결코 백합에 금을 입히려는 것이 아니었다. 삐삐가 다시 울렸다. 그 청년은 방을 나갔고, 밥이 대신 들어왔습니다(아마도 저를 뒤에서 지켜본 후였을 겁니다). 밥은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왜 그곳을 떠났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는 무작위로 울렸고 전체 과정이 일종의 코미디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쇼가 지겨워지기 시작했고, "저기요, 제가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했어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천천히 해보세요." 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2000년 7월 아시아 여행부터 그 순간까지의 주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열성적으로 메모를 했고, 사람들의 이름과 대략적인 날짜를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밥이 도를 넘어 저를 가혹하게 대했던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 제 이야기의 일부가 아닌 세부 사항을 제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군대에서 내 생각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그룹이 "미사일 방어"를 추진하는 세력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약 90분 후, 밥은 그날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지만 조만간 다른 세션에 저를 다시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대하겠다고 말하고 악수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우리 둘 다 대화를 꽤나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저는 밥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후속 면접을 위해 언제 워싱턴에 와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CIA 고용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성 직원은 제가 성공적으로 면접을 마쳤으니 이제 배정이 담긴 편지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리노이 대학교로 돌아와서 마지막 학기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마음은 평온해졌지만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리노이 대학교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교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저는 학과에서 사실상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배척당했다기보다는 다른 교수진들이 제가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문제'에 대해 말해서 자신들을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할까 봐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1 월부터 실업 상태에 놓인 저는 저축한 돈도 없고 일자리를 구할 전망도 없는 상황에서 FBIS 의 애널리스트로 채용이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시작 날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테스트에 합격했으며,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집을 팔고 당시 세 살이었던 벤자민과 2004 년 7 월에 막 태어난 딸 레이첼과 함께 워싱턴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샴페인에는 저에게 적합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리노이주에는 저와 저의 친아시아 협력 이니셔티브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 인종차별주의자들도 많았죠.

FBIS 의 제안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일주일 동안 발로 뛰고, 소개받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식으로든 취업이 되거나 적어도 기회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처치 스트리트에서 이 집을 발견했던 부동산 중개인 밥 월러에게 매물로 등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집을 빨리 팔 수 있었고 우리는 몇 천 달러의 작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집 매각 시기와 워싱턴으로 이사할 계획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일리노이 대학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살았던 오차드 다운스 교직원 주택의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빌리기로 했습니다. 방 두 개가 있는 아주 단순한 아파트였는데, 어린 아이 둘과 짐이 많아서 다소 혼잡해졌습니다. 가져갈 계획이었던 가구는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승은이와 승은이가 믿었던 점쟁이는 FBIS 가 제게 멋진 새 경력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공장을 차린 모잠비크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새 직장에 대해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직에 대해 다소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이 제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지 W. 부시 2 기 행정부의 미국은 더욱 억압적이고 파시즘적으로 보였지만, 적어도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메일을 읽고 전화 통화를 엿듣기는 했지만 일상 생활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샴페인을 벗어난 것도 기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외국어관에서 제가 다니던 부서원들을 위한 조출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감 있고 다소 도전적으로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고, 동료들도 대부분 저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제리 패커드는 제게 일리노이 대학교 시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받고 대학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몇 마디 말했죠(정확히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수업을 가르치게 될 새로 채용된 주니어 교수진인 캐런 케슬리(Karen Kesley)가 저에게 "당신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다"는 이상한 발언을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이벤트는 고통 없이 끝났고 저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2004 년 12 월, 우리는 이삿짐 회사를 통해 대부분의 짐을 워싱턴 D.C.로 보내 임시로 보관했습니다. 그런 다음 6 개월 된 레이첼과 4 살 된 벤자민을 포드 토러스에 태우고 소형 U-홀 트레일러를 연결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장대한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오하이오의 한 호텔에 들러 큰 침대 하나에서 모두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도착한 우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돈도 없고 취업에 대한 확실한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워싱턴 DC 와 같은 비싼 도시로 이사하는 데 따르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작은 마을 샴페인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었어요. 워싱턴 DC 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었죠.

승은이는 워싱턴에 사는 언니 영숙이에게 나의 영광스러운 새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모두들 모든 것이 정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최종 확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 워싱턴에 도착해 여러 싱크탱크에서 지인들을 만나면서 부시 행정부가 얼마나 확고하게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지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FBIS 제안에 대한 희망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승은이 누나는 우리가 일주일만 같이 지내면 돈이 들어와서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영숙이는 북부 버지니아의 비싼 동네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꽤 편안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체류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반면 저희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재정적인 재앙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승은이가 근처에 살던 언니와 삼촌에게 제 새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들의 눈에는 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아시아 전문가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도착한 다음 날부터 인터뷰 일정을 줄줄이 잡았습니다. 싱크탱크 전문가, 변호사, 정부 관계자, 컨설턴트, 심지어 아버지가 추천해준 친구들까지 만나기로 했습니다. 승은이는 언니와 함께 주방에 앉아 집안 대소사에 대해 수다를 떨고 남편의 새로운 직업을 자랑하며 행복해했지만, 저는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무부의 외국어 통역사 두 명으로부터 제 이메일에 대한 매우 친절한 답변을 받았는데, 통역 및 번역사로 임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국무부의 최고 중국어 및 일본어 통역사와의 미팅을 위해 포기 바텀 지하철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어 통역사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는 중국인이었지만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어 통역관은 저보다 몇 살 아래인 찰스 허쉬였는데, 수년간 국무부 최고위급 통역관으로 일했던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어 통역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전문 통역의 현실에 대해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통역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잡지를 집어 들고 영어 구절을 큰 소리로 읽더니 중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번역을 해보았지만 다소 불완전했습니다. 그는 저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더니 번역에서 다소 초보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이 깜짝 테스트의 전체 형식이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는 제 이전 경험과 다소 비슷했습니다.

다음 날 찰스 허쉬와의 만남은 좀 더 실질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커리어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서로의 경험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고 며칠 내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틀 후 찰스가 전화를 걸어와서 약 40 분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워싱턴 DC 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종류에 대해 몇 마디 말한 후, 저를 위해 간단한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대단한 쇼였습니다. 시험의 절반은 그가 마치 일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정치인인 것처럼 남부 억양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그는 많은 전문 용어를 던졌고, 제가 동시 통역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저는 이 다소 불가능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경청한 후 "당신은 일본어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실무에 대한 교육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평가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지만, 약 1 년 후 윌라드 호텔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설할 때 통역을 맡았을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싱크탱크와 로펌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반갑게 맞아주었고, 제가 이곳에 온 것을 이상하게도 기뻐했습니다. 그 친절함만으로도 완전히 미쳐버린 세상에서 제정신을 가진 목소리를 내야 하는 제가 계속 버틸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발로 뛰지 않을 때는 수정한 이력서를 워싱턴 전역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중문학과 교수인 제 절친한 친구 빅터 마이어가 저를 위해 1 년 동안 자신의 학과에서 초빙 교수직을

맡는 다소 복잡한 일을 맡았습니다. 이 직책은 수입은 없었지만 명함을 달 수 있는 공식적인 직책이었고, 한 번 방문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소속이 확정되면서 실업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이 생겼습니다.

언니 집에서 열흘 정도 지낸 후, 승은이는 우리가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우리 상황을 속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은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은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는 걸 알았고, 승은이가 제 곁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떠나버렸을 거예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언니의 이런 반응은 다소 불공평해 보였지만, 그런 걱정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은 돈으로 가족들이 한국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고, 제가 미국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겪었던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사촌 형인 매니에게 일자리를 찾는 동안 몇 주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매니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전화로 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제가 아내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워싱턴에서 확실한 취업 전망도 없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고, 핵심 질문인 미국의 유명한 아시아 전문가인 아들이 왜 미국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지에 관한 대화는 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아버지는 당장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00 달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돕기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반응에 상처를 받은 저는 그에게 실제로 제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미 몇 페이지에 걸쳐 주요 문제를 요약한 편지를 보냈지만 아버지는 답장을 보내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저의 '음모론'을 일축하고 재빨리 대화를 끝냈습니다. 나중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저를 도우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아버지가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본질적으로 저에 대한 범죄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가족들과 제 동료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가족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덕분에 저는 진지하게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저는 변호사와 외교관뿐만 아니라 직업소개소 사장님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저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다시는 빛을 볼 수 없는 비서직으로 사라지는 것보다는 제 강점에 집중해 진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낫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사촌인 매니 페스트라이쉬와 함께 지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외증조부인 매니 코한이 아들 내외와 함께 은도금 사업인 코한 엡너를 시작하여 2 차 세계대전 중과 그 이후에 큰돈을 벌었던 이름을 따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나중에 잘못된 사업 결정으로 인해 그 재산이 사라지긴 했지만요). 매니 코한은 대가족 모임을 즐기고 손주들에게 재롱을 부리는 것을 좋아했으며, 가족 모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그의 공장에서 일하던 저임금 흑인 노동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제 이름을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로 지으셨습니다. 유럽인인 어머니는 제가 매니가 아닌 에마누엘로 불리는 것을 조건으로 이 작명에 동의하셨습니다. 1970 년대에 빈민과 병원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깊이 관여했던 아버지의 남동생 빌도 아들의 이름을 에마누엘로 지었지만, 그 아들은 매니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임마누엘과 매니는 어느 정도는 누구의 아들이 더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 약간의 가족적 경쟁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각자의 강점이 있었고, 둘 다 학교 공부도 잘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우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매니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직 노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국제서비스종사자노조(SEIU)에서 조직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받았던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고액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거의 감수하지 않았고, 제 생각에는 다소 반동적인 SEIU 의 입장과 일치했습니다. 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노조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려는 노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수감자들의 파업과 주류 노조 노선을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의 불편한 노력도 무시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교도소 파업에 대해 침묵하는 그의 태도에 충격을 받아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교도소 파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관심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사고방식이 의심스러운 업무로 고액 연봉을 받는 의료 분야 기업 변호사인 멜리사와의 결혼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워싱턴 D.C. 북쪽의 세련된 동네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이들은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몇 년 동안 가끔씩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일대에 입학한 지 몇 년 후 그는 하버드에 입학했고, 우리는 가족 행사에서 서로의 곁을 지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의 사촌이 법치를 옹호하고 군국주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정치적 곤경에 처한 지금 매니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촌이 명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미국에서 일할 수 없고, 미국 정책의 건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 때문에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니에게 그의 집에 머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돈이 거의 없었고, 아버지는 저에게 겨우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적은 금액만 주셨거든요. 저는 또한 우리가 머무는 동안 매니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것이고, 그 이야기를 알게 되면 자신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워싱턴에서 어느 수준에서든 저를 옹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소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전화로 나눈 대화에서 매니는 제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몇 주 동안 함께 지내면 좋겠다고 말했고, 그의 말투는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3 일 만에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저는 매니와 멜리사의 집 3 층에 있는 편안한 작은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매니, 멜리사, 세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줄 수 있는 워싱턴 DC 의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2001 년 후반에 작성하기 시작한 정책 관련 기사의 일부가 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매니와 멜리사와의 대화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매니가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미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거나, 저와 숲속을 산책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단순히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려 깊고 제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깨끗한 수건과 식사를 기꺼이 제공했습니다. 그는 제가 취업 기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여 주었지만, 제가 왜 실직했는지, 왜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으려 하는지,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애써 피했습니다.

멜리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와 대화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저는 멜리사나 매니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워싱턴 DC 에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이메일을 계속 쓰면서 한국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면 명확하게 대답하겠다고 분명히 결심했습니다.

매니의 부모님인 빌과 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중 두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매니와 멜리사의 양가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모인 대가족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충분히 잘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주방에 모여서 나무 바닥이 깔린 넓은 식당에서 뷔페식으로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순간은 매니의 어머니 앤과의 짧은 대화였습니다. 앤은 수십 년간 이어온 친밀한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저에게 눈에 띄는 짜증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저녁 식사 서빙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참석한 다른 사람들과 더 사교적이고 더 유머러스하게 지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있거나 대화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심지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짜증은 제가 실직하고 사촌의 집으로 피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제 상황을 이해할 이유가 없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 같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앤은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왜 한국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그녀의 행동을 받아들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모와 짧은 인사를 나눈 것을 제외하고는 말 그대로 이모와 어떤 말도 주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저녁 식사 후 거실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빌 삼촌이 불쑥 "실업수당 신청하지 그래?"라고 말했어요.

이 의견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5 주 동안 실직 상태였기 때문에 훨씬 일찍 실업수당을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은 생각지도 못했고, 워싱턴 DC 로 이사 오기 전에는 일리노이 대학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살아남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직업을 구하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실수였지만 특수한 상황의 산물이었습니다.

빌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 발언은 내가 왜 실직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나의 현재 상태에 대한 조언만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책임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빈민 운동의 좌파 조직가인 그가 이제 기꺼이 파시스트의 협력자가 되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위선과 부정직이 너무 심했다. 실업 보험은 제 문제 중 가장 작은 문제였습니다. 그가 저를 걱정했다면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췄을 겁니다.

매니네 집에 머물면서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멜리사의 여동생(이름은 잊어버렸지만)이 저녁 식사를 하러 왔을 때 그녀의 일에 대해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민주당에서 수년간 일했고, 헤지펀드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1 년을 쉬고 있었습니다(아마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샴페인에 있는 민주당에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갖게 될 민주당에 대한 적대감이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에게 언제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젠가 민주당 사무실을 방문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자기 차를 일주일만 빌려도 되냐고 물어본 것처럼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긴장한 표정으로 친구를, 그다음에는 멜리사를, 마지막으로 매니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몇 초 더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래, 만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대화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 불쾌하지는 않았고, 멋진 집에서 지하철 정류장까지 가로수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웠지만, 매일 그곳에 사는 것이 저를 타락시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왜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과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오래 전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하는지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 이 글에서는 최선을 다해 진실을 정확하게 포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저와 저의 행동에 대해 매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짓 이야기가 너무 많이 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 사건에 대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세부 사항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와도 달리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IA 나 FBI 요원들이 제 행동과 배경에 대한 보고서를 샅샅이 뒤졌다고 해도 제가 중국, 한국, 일본의 주요 인사들과 나눈 대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 글이 저의 명백한 실수, 심지어 오만함까지 포함하여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객관적인 설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제가 가족이나 동료로 보호하거나 변호할 책임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알퍼 박사, 전 부서장 제리 패커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사촌 매니와 그의 아내 멜리사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볼 방법을 찾거나 제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소한 방법으로 저를 도울 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제가 다른 정치적 문제는 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비겁함 때문에, 그리고 미국 엘리트들을 사로잡은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엘리트층이 매닝, 스노든, 스텔링 사건을 공개하면서 제 사건을 묻어두기로 한 결정이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까지 말하고 싶습니다(물론 저처럼 침묵 속에서 고통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정은 당시의 대규모 부패에 대해 교육받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매우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일종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제 가족들의 노력은 비극이자 희극이었으며, 저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맞서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장

위대한 변화

워싱턴 DC 에서 두 달간 실업자로 지내는 동안 제가 이룬 유일한 성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 외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방문 학자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좋은 친구였던 중국 학자 빅터 마이어가 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이 직책은 저에게 어떤 수입도 제공하지 않았지만, 소속감을 주었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2 월 초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제 연구에 대한 강연을 하도록 초대받았는데, 꽤 잘 진행되었고 워싱턴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미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김상주라는 무명의 인물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곳인지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워싱턴에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주요 정책 인사들을 초청했습니다. 한미연구소 사무실은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방문했을 때 몇 달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던 김상주 부소장을 만나 즐거운 점심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 그는 2 월 24 일 더크센 상원 빌딩에서 열리는 ICAS 세미나에 저를 초대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왜 연사로 초대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행사는 분명 주목할 만한 행사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행사는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병가를 낸 지 4 주년^(th)이 되는 날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날에 열렸습니다.

이벤트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 동계 심포지엄: "인류, 평화, 안보"

미국 상원 더크센 빌딩, 워싱턴 D.C.

2005년 2월 24일

스피커:

패트릭 크로닌, 연구 책임자, 미국 평화 연구소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외교 정책: 한반도와 지역 안정 "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 연구소 선임 연구원

"북한과의 레드라인은 어디인가? 외교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마사타카 오카노, 외교관, 일본 대사관

"일본의 관점: 동아시아의 도전 과제"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방문 연구원

"한반도와 세계 열강 간의 투쟁": 태프트-카츠라 밀약과 포츠머스 조약 100 년 후"

에반스 리비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저는 20 세기 초 미국이 도쿄의 한국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도쿄는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배를 인정한 미국과 일본 간의 비밀 양해각서인 태프트-가쓰라 밀약(Taft-Katsura Agreement,th)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제는 김상주 선생님이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포럼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의 요청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저는 다른 연사들이 언급하지 않은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외교의 본질과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해 제 나름의 명상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취한 폭넓고 성찰적이며 철학적인 접근 방식은 패트릭 크로닌 같은 다른 싱크탱크 인사들의 자극적인 연설보다 게티스버그 연설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워싱턴 DC 의 문화와는 너무

이질적이어서 청중 중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어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와 패트릭 크로닌은 수많은 행사에서 아시아에 대한 기존 관점을 제시하는 호감 가는 인물들입니다. 회의실은 정책 감시자, 의회 및 국무부 직원, 특히 한국과 일본의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제가 미국에서 초청받은 정책 관련 행사 중 유일하게 주목받는 행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대행이자 고위 외교관이었던 에반스 리비어 바로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그 후에도 리비어를 자주 만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점점 더 위험하고 범죄적인 부시 정책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출신인 그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틀렸다.

제가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직업소개소에서 비서직 제안을 거절당하고 두 달 동안 실직 상태였던 제가 워싱턴의 중요한 정책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순간을, FBIS의 일자리 제안과 마찬가지로, 제 지지자들이 저와 그들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워싱턴에서 저와 마찬가지로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의견을 제시했지만, 미국인보다는 일본과 한국의 외교관 및 언론인들이 가장

열광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받은 명함을 가지고 이메일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외교관 한 명만이 커피 한 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물론 그 주에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커피 한 잔을 마셨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서 CIA 의 FBIS 에 입사하겠다는 처음 제안을 철회하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채용 센터

L100-LF7

워싱턴 DC 20505

2005 년 2 월 16 일

페스트라이쉬 씨에게

이 서신은 귀하의 중앙정보국 입사 지원과 관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귀하가 중앙정보국 채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결정은 귀하가 제공했거나 처리 과정에서 밝혀진 정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여 2004 년 10 월 1 일자 조건부 고용 제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리점 고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많은 상황이나 여건은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년 후에 귀하의 상황을 재평가하고 그 시점에 대리점에 다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보안 고려 사항보다는 기관 고용에 대한 귀하의 적합성에 근거한 것이므로, 향후 보안 신청서 및 양식에서 이 결정과 관련된 한 귀하는 보안 허가가 거부된 적이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저희 기관 채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노력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리건 V. 다니엘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상했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행사에서 만난 두 한국인의 열정과 헌신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의 강익현 외교관은 제가 문화적, 역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노력에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스시 점심을 먹었고, 그는 한국 대사관 내에서, 그리고 한국 내에서 저의 노력을 알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함께 일할 기회가 많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명함을 건네준 한국 기자, 세계일보 국기연 기자도 같은 날 늦은 오후에 만났습니다. 국 기자는 워싱턴 DC 에서 가족을 키우며 회사 내 패스트 트랙을 포기하고 워싱턴에 남아 있는 특이한 외신 특파원이었다. 그는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고,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미국인에게 한국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그 누구보다도 노무현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 변호사는 저를 변호하기로 결심하고 약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저를 변호했습니다. 그는 제가 KBS 라디오에서 한국어로 인터뷰할 수 있도록 주선했고, 세계일보에 저에 대한 기사도 써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국 주류 언론에 소개해줬고, 이는 훗날 제가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미디어와의 관계는 그 목록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못했죠.

무엇보다도 기연이는 친구였어요. 그는 저에게 자신과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경청해줬고, 정말 신중하고 사려 깊게 들어줬어요.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솔직히 기연이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는 저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저를 지지해줄 친구를 더 많이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어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안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특별한 편견은 없었습니다. 일본이 제 전공 분야였기 때문에 재학년에 여름방학을 일본에서 보냈고, 일본 학자 세 명과 함께 1 년 동안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제게는 상당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인은 물론 중국인이나 미국인에게도 저에 대한 그런 열정은 없었습니다.

기연이가 전화로 새로 부임한 홍석현 주미 한국 대사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대신해 개인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그가 해온 일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행동은 아닌 것 같았다.

홍 대사와의 면담이 끝나고 30 분쯤 지나서 기연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그간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홍 대사는 제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한국을 잘 아는 하버드 박사가 워싱턴에서 이렇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큰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기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홍 대사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였고, 기연 씨에게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의 새로운 노무현 정부에서 주변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희망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우며 경력을 시작한 진보적인 변호사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권 말기에 각종 부패 스캔들이 드러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으로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자 서방 언론에서는 보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지프를 몰던 미군 병사 두 명이 한국 여학생 두 명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렸고 미군들의 범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시위를 불러일으켰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마이뉴스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노 전 대통령은 주류의 외면을 받으면서도 실제 청중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공개 토론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의 불꽃 튀는 연설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일반적인 후보들보다 더 좌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정부와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전통적인 정치권력의 중심지를 모두 피해 다녔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권력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지는 4년제 대학 학위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미국에서 군사정부에 맞서 싸우면서 옳든 그르든 어떤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처음부터 노 전 대통령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그를 약화시키고 어떤 식으로든 끌어내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살해 위협을 받으며 살아온 노 전 대통령은 쉽게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시 패거리에게 기괴하게 복종하던 당시 주요 국가의 국가 원수 중 유일하게 솔직하게 말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급진주의자라기보다는 미친 세상에서 일종의 균형을 찾으려는 사람이었다.

홍석현 대사는 노 대통령으로부터 주미 한국 대사 지명을 받고 많은 보수적인 친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노 대통령의 견해를 공유했고, 그 임무를 돕겠다는 진지한 의사를 밝혔다. 홍기연은 저에 대한 기연과의 인터뷰 며칠 전에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홍기연은 노 전 대통령과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노 전 대통령의 강력한 연설과 한국의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홍 대사는 한국의 주요 신문사인 중앙일보의 창업주인 홍기진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홍기진은 이승만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이승만의 시민 검거 요구를 모두 거부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홍 장로는 정계 은퇴 후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일본 황실 최고위 공무원 시험인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인 그는 학식과 언변이 뛰어났고, 삼성의 부흥을 이끈 두뇌로 꼽혔다. 훗날 홍씨의 누나는 이병철의 아들인 이건희 삼성 회장과 결혼했습니다.

홍석현은 일반적으로 주류 보수 재계 인사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 대사직을 수락한 것은 다소 의외의 결정으로 보였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무뚝뚝한 스타일과 기존 정치 관행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는 그의 원당인 민주정의당 의원들조차 보수 세력과 함께 탄핵을 요구하는 데 동참하게 만들었다. 노 전 대통령은 언론에서 급진 좌파(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로 묘사되었고, 홍석현이 수년간 주요 학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브루킹스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홍석현은 여러 면에서 보수주의자였고, 미국과 일본의 주요 보수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순간순간 용기가 있었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홍 대사가 대사직을 수락한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고, 그 순간 저를 대사관에 채용하는 것을 고려한 것은 배짱 있는 결단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나 홍 대사가 제가 한국대사관 문화원에 채용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과정이 간단치 않았을 것이고, 두 사람 모두 관여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제가 채용되는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고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미국인으로서 한국 문제에 관심이 있고, 한국어를 잘 알고, 정교한 정치 활동 경력이 있는 저를 상당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한국인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략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1980년대 군사정권으로부터 당했던 대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워싱턴에 자신들의 언어를 배운 미국인이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열렬한 팬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일본, 중국, 미국인들이 종종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한국인들은 앉아서 제 조언을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같은 다른 대사관에서 저를 고용하거나 미국 기관에서 저를 받아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워싱턴 DC 에서 일자리를 찾는 두 달 동안 많은 인맥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한국 대사관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어딘가에서 뭔가를 찾았을지 모르지만 빛은 훨씬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이 저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고, 그 결정은 단순히 제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 13 년 동안 많은 한국인들은 때때로 저에게 매우 솔직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항상 진실을 말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정부 기관 내에서 매우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한국인들이

제가 관계를 맺어온 모든 나라 중 제 성격 유형에 대해 가장 관대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경험이 거의 없는 진보적 정치 집단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와 그의 '악의 축' 연설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시 행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거의 알지 못했고, 싱크탱크 전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외교부 내 관료 조직은 그런 생각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노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그의 측근 고위 관료들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5 일 후, 국기연 씨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문화원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받고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연봉은 연봉 4 만 달러에 불과했고, 건강 보험이나 연금 혜택은 없었지만, 적어도 직업은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홍보를 돕고 홍보물을 편집하는 일을 맡았죠. 대사관이 법적으로 미국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용이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이미 약속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로 채용공고에 응해 지원서를 작성했고, 다음 날 아침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담당 외교관 이현표 씨를 만났습니다.

이현표는 외교부에서 독일 전문가로 베를린 문화원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어보다 영어에 능통하지 못했고,

성격도 까다로운 편이었다. 나는 그가 노 전 대통령에게 지나칠 정도로 충성했기 때문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는 상당히 말이 많았고,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고 항상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는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화 지원 활동에 대한 공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별것 아닌 일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종종 사무실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모욕적인 욕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두 달 동안은 그가 저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점심 외식을 허락했지만, 그는 단지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제가 너무 많이 노출되거나 홍보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는 매우 친절했고, 심지어 저와 함께 워싱턴을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싱크탱크의 세미나에 함께 참석하기도 했고, 저는 그에게 유용한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그가 위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가 저를 내버려두었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외교관들에게 저는 그저 대사관 풍경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지난 4 년간 제 삶을 지배했던 미국 내 고도의 긴장감 넘치는 정치 게임은 사라지고 저는 그저 한 명의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전문 기술을 가진 미국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직원으로서 저는 대사관의 다른 모든 외교관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처음 3 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모든 외교관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저에게 주어진 기회였고, 저는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외교관들은 제 능력을 알아보고 정기적으로 점심식사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문화원 내 낮은 직급을 보고 제 사회적 지위를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식 제안을 받은 후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과 함께 워싱턴으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친구의 딸이 코리아타운에서 아주 가까운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 초록색 마당이 있는 작은 흰색 집을 구해줬어요. 저는 창고에 있던 가구를 집으로 옮기고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집처럼 꾸미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촌 매니의 집에서 나와서 기뻐고,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직업을 갖게 되어 더 이상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굴욕적인 모습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져서 행복했습니다.

애난데일에 있는 집은 넓은 마당 한가운데 있는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동네는 꽤 쾌적했고 코리아타운까지 걸어서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살던 초창기에는 꽤 신이 났어요. 제가 어떤 큰 돌파구를 눈앞에 두고 있고, 어떻게든 한국인들이 저를 도와서

워싱턴 DC 의 주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홍 대사와의 만남에서 저는 그가 저를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외교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대부분 부시 행정부와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니다.

처음에는 홍 대사와 함께 여러 유명 행사에 초대되어 군의 주요 인사들과 미국 및 한국 정치인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니다. 홍 대사는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워싱턴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처음 6 개월 동안 저는 홍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의 많은 사람들과 놀랍게도 접촉할 수 있었고, 많은 행사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문화원에서 워싱턴 인사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몇 가지 유명 세미나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홍 대사의 집무실이나 나중에 절친한 친구가 된 위성락 정무수석의 집무실을 방문하는 것도 꽤나 편했습니다. 하지만 2001 년 7 월, 그 신혼여행은 끝이 났습니니다.

갑자기 서울 MBC 뉴스에서 홍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내용의 10 년 전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고, 당연히 방송에서는 홍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니다. 홍 회장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강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며칠 만에 물러났고 곧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혐의의 정당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홍석현은 독립적인 인물이 한미 외교 관계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 여러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홍석현은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독서량이 많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정책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싱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무부나 한국 외교부의 도움 없이도 사람들을 만날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홍준표는 통일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수주의자였지만 안보에 관한 많은 표준 노선에 반대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는 좋았지만, 워싱턴 DC 에는 독립적인 성향의 인물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는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홍석현이 너무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진지하게 대해주는 저명한 인사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홍 대사는 임기 동안 독창적인 일을 하지 않고 대사관 전체를 잠들게 한 무딘 직업 외교관 이대식 대사로 교체되었다. 개별 외교관들을 만나 워싱턴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대사관 고위층은 제 의견에 관심이 없었고, 이 대사와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위 장관과는 가끔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의 우정은 둘 다 서울로 옮긴 후 한참 후에야 발전했습니다.

부시 정권 인수에 반대하는 미국 정치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제가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끝났습니다. 제가 감시를 받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상한 징후는 없었고, 저와 상의하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되어서야 스팸 이메일이나 잡지 광고 등을 통해 저와 소통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일리노이 대학에서 저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일이 제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 모든 숨겨진 메시지는 매우 극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상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세리던 서클 공원에서 북쪽으로 몇 블록 떨어진 매사추세츠 애비뉴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애난데일에서, 나중에는 아내가 그곳에 더 큰 아파트를 구한 후 웨스트 폴스 처치에서 매일 지하철을 타고 포지 바텀으로 출근했습니다. 매일 아침 포지 바텀 역에서 언덕 양옆을 덮고 있는 20세기 초의 아름다운 예술 저택을 지나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은 도중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 일과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명상의 시간이기도 했고, 때로는 워싱턴이 혼돈의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두려운 트레킹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 책은 상세한 자서전이라기보다는 저의 정치적 투쟁을 간결하게 서술한 책입니다. '김치의 날' 행사, 정기 세미나 개최, 2002 년 월드컵 한일 공동 전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사관과 중국, 한국, 일본 대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영화 시리즈 기획 등 한국 대사관에서 했던 많은 일들이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들이었지만, 미국에서의 책임자 처벌 투쟁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저에게 강요된 현상 유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다른 활동들은 10 년 후 한국 언론에 공공외교에 관한 기사가 연재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개인적으로 공공외교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도 한동안 공공외교 전문가로 여겨지기도 했죠.

문화원에서는 하루 종일 관료적인 활동으로 채워질 때도 있었지만, 다른 날에는 기본적으로 나가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을 만나거나 국무부를 방문하거나 언론인 및 교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를 돌아다니며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문화원은 한국 대사관 건물에서 언덕 아래로 몇 채만 내려가면 보이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4 명과 한국 외교관 3 명, 단기 인턴(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다소 쓸렁한 곳이었어요. 1 층에는 거의 방문하지 않는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2 층 뒤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2 층의 락 크릭이 보이는 책상에서 일했습니다. 임기가 끝날 무렵, 문화 행사와 <다이나믹 코리아> 저널 편집을 담당하는 팀이 제 도움을 많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면서 저는 3 층의 작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집필 작업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에 매일 올라오는 글을 편집하는 한국인 팀이 있었는데, 2005 년 말쯤에 그들은 제가 하는 일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다양한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저널에 실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간의 편집을 맡았지만, 저널의 운영이나 콘텐츠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대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및 각 부처 대표들과 사무실, 카페, 점심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대일 미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사관 내 모든 정부 대표들에게 저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했고,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 내 담당자를 소개해 주거나 워싱턴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서 공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교관들이 해외 특파원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금방 알았고, 때로는 해외 특파원들이 대사관 직원들보다 이슈를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제 글을

기사에 인용하며 저널리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한국에 도착한 후 그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미디어를 위한 글쓰기는 제 경력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기사와 책을 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프로젝트나 일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는 더 적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입니다(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제 활동을 제한하는 기밀 문서가 제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로 글쓰기를 특별히 지목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미국의 주류 언론과의 교류는 항상 크게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차례 극도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미 한국대사관 근무 시절부터 언론에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활동은 아니었지만 워싱턴에서 더 많은 청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글쓰기 능력은 저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신문사 글쓰기는 제 커리어의 중심이 되었고, 한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편집 형식을 익히는 것이 제 주요 표현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저에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에 있는 동안 저는 지적인 동료들과 의미 있는 교류가 거의 차단되어 있었고, 샴페인 녹색당 당원이나 무기고의 군 장교 등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 토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일본 고전문학에 대한 책 원고를 완성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는데, 말 그대로

그 주제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죠. 저는 학술 서적을 쓴다는 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학자 생활을 뒤로하고 일터로, 정책 전쟁터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저를 기다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자유무역과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매번 부딪혔습니다. 대사관 생활은 매력적인 경험이었지만, 분명 직업은 아니었고 주변의 싱크탱크와 대학에서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글쓰기는 싱크탱크 업계의 다른 사람들이 입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했고, 세미나에서 배포된 전문 용어로 가득 찬 글을 읽은 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기고는 아시아 문제 전문 학술지 <재팬 포커스>에 '균형자'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한국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기고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의 한국 정치 비전과 동북아시아의 미래"(2005년 8월 1일)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널리 읽히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노무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보도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제 기사는 그 공백을 메워주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비판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먼저, 평소 친분이 있던 국무부 코리아 데스크의 테드 오시우스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노무현에게 지나치게 동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글이 노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이 한국을 위해 중도의 길을 찾으려는 분명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좌파라고 몰아붙이는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해 상충에 대한 비난도 있었습니다. 한 학자는 *재팬 포커스에* 제가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사가 고용주를 기쁘게 하기 위한 부풀리기 기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간을 들여 기사를 꼼꼼히 읽었다면 누구라도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상황이 워낙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갖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법치주의를 위해 싸우다 미국에서 불법 추방되어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 캠페인은 나중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제 직속 상사인 이현표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글을 승인도 받지 않고 썼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에 대해 사려 깊게 글을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오히려 이명박은 제게 기사를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일반에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 관계를 이전 시대의 영국과 미국 간의 갈등과 비교한 기사였습니다. 2006년 3월 6일에 발표된 "중국은 신냉전의 숙적인가?"라는 기사는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글은 한국의 온라인 신문인 오마이뉴스에 처음 게재된 후 노틸러스

연구소의 NAPS 넷에 등재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널리 배포되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경쟁이며, 군사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구소련, 중국은 신소련이라는 '냉전'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글은 널리 읽혔고, 다른 학자의 복잡한 반박이 담긴 후속 기사가 NAPS Net 에 게재되었으며, 제 답변도 게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언급되었는데, 이는 지난 18 년 동안 저에 대한 내용이 기업 언론에 보도된 극히 드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대사관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는 제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리 국장님으로부터 초청 대상과 논의 주제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코러스 하우스' 세미나 시리즈였습니다. 워싱턴 DC 에서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매년 행사에 참석하는 충성도가 높은 회원들이 생겼습니다. 이 강연 시리즈는 한국문화원 이현표 원장이 고안한 콘셉트입니다. KORUS 는 당시 협상 중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문화원에서 경제와 자유무역의 이점에 관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여러 차례 행사를 진행했지만, 소위 "자유무역"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즐겁지 않았습니다. 자유무역이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었고, 주어진 자료를 반복해서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대사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자유무역에 대한 추진력을 뒷받침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화, 경제(무역 제외), 기후 변화, 사회, 역사에 관한 세미나가 많았습니다. 제가 초청한 연사 중에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매우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외교정책포커스'의 존 페퍼나 전 주한 미국대사이자 조지 W. 부시를 맹렬히 비판했던 도널드 그레그 같은 분들을 초청했을 때 한국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리노이 대학 강연에서 만난 빌 오덤 장군도 제가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메일 서신을 통해 친분을 쌓은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도 초대했습니다. 존슨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여행을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보좌관과 그녀의 컨설팅 회사에서 나눈 흥미로운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 비서는 제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데 그렇게 높은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무례하고 부적절하다는 듯이 저를 경멸하는 듯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서는 분명하게 거절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한국 대사관이 그 회사와 어떤 컨설팅 계약을 맺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에 반복적으로 부딪혔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솔직한 토론의 일환으로 초청했던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미 한국 대사관의 컨설팅을 맡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제가 경쟁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저를 넘을 수 없는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제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짜증을 내는 등 긴장된 상황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코리아하우스 세미나를 무력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프로그램을 워싱턴 DC 의 유명 싱크탱크에서 발표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유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했고, 종종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그 부패한 도시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아시아 전문가들이 제 노력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주요 기관에서 실질적인 직책을 맡지 않는 한 그런 환경에서는 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6 년 봄부터 파트타임으로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계를 영원히 떠나고 싶었습니다.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다시 학술 논문을 쓰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차라리 제 관심사와 능력에 더 잘 맞는 행정직에 종사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 수입이 필요했고, 의료보험이 없는 적은 월급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가르친 과목과 나중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가르친 과목은 젊은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미국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한국 대사관에서의 생활과는 또 다른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조지워싱턴대 학생들 중 몇 명은 이후에도 저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홍 대사가 떠난 후 대사관 내에서 저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었고, 정부 주도의 온라인 브랜딩 캠페인인 '다이내믹 코리아'를 운영할 한국인 스태프가 구성되면서 업무량이 줄었지만, 이 국장은 저를 기꺼이 파견해 CSIS, 브루킹스연구소, 월슨센터, 신미국재단, 헤리티지재단 등 여러 기관의 세미나를 다니며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메일링 리스트에 올랐고, 단기간에 많은 직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명함을 모아 정리하고, 다이내믹 코리아를 위해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코러스 하우스에서 강연을 듣고, 가끔 점심이나 커피를 마시며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는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네트워크로 쌓여갔습니다.

2005년 가을부터 제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두 개의 중요한 스터디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분석연구소의 케이티 오가 싱크탱크의 젊은 한국 전문가들을 위해 주최한 정기 세미나 시리즈였습니다. 케이티는 브루킹스연구소 소속이기도 했는데, 처음부터 저에게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좋은 친구이자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풍자를 좋아하는 다정한 여성인 그녀는 미사일 방어, 북한 위협, 자유무역에 대해 워싱턴 싱크탱크의 '내부자'의 시각을 대변하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미나 시리즈의 다른 멤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 교수로 일한 지 8 년이나 된 저를 젊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멤버들 중 일부는 좋은 친구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독특한 우월성과 영향력을 주장하는 데 어떤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케이티 오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기후 변화와 사회 분열과 같은 당대의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토론에서 이 문제를 빼놓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잘 섞일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일리노이주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충격적이고 대립적이지 않았다면 제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더 규모가 크고 중요한 다른 그룹은 조지타운 대학교의 데이비드 스타인버그와 외교정책연구소의 존 페퍼와 함께 개발했는데, 이 두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가끔 의견 차이가 있긴 했지만 결국 저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스타인버그는 버마 전문가로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썼고, 따뜻한 성품과 끝없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심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저를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데이비드 스타인버그는 워싱턴에서 제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을 자산으로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가끔 저를 코스모스

클럽에 초대해 조찬을 함께 하며 페어뱅크스와 라이샤워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시아 전문성의 위대한 전통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는 아시아 정책 분야에서 가장 오래 활동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아시아재단이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제가 루즈벨트나 애들레이 스티븐슨의 말을 인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잊혀진 전통의 일부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KORUS House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거대한 Google 그룹을 설정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구글에 특별 허가를 요청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벤트에 대해 소통하고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총 인원은 150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구글 그룹을 설정하고 나니 저에게 보낸 메시지가 다른 모든 회원들에게도 전송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 분 만에 이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여러 건 접수되었고, 이 불만은 다시 다른 모든 회원에게 전달되어 더 많은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Google 그룹을 종료하는 데 5 시간이 걸렸고 저는 여러 차례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데이비드 스타인버그와 긴 대화를 나눴고, 그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아시아에 대해 정기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존 페퍼의

도움으로 우리는 10~20 명의 사람들이 모여 활발하고 사려 깊은 토론을 펼치는 정기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제가 워싱턴을 떠난 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고, 한국, 일본, 중국 대사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주최한 단편 영화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2007년 2월 한국으로 떠날 때 저를 배웅하기 위해 기억에 남는 만찬에 초대해준 것도 바로 그 그룹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2년 동안 저를 대신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준 몇 명의 핵심 인물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당시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 인물은 지미 카터의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CSIS 창립 멤버였던 즈비그뉴프 브르제진스키와 리처드 닉슨의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CSIS 창립 멤버였던 헨리 키신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겹치지만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브르제진스키는 기업 세계와 연결된 내부자 출신으로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역할을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학자이자 전략가로 내세우며 궁극적으로 더 큰 대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키신저는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키신저 앤 어소시에이츠(매들린 올브라이트가 모방한 회사)로 연방 자금을 빼돌리려는 사업가였습니다. 키신저는 특히 급진적인 민영화를 옹호함으로써 미국 외교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는 데 그 어떤 개인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헨리 키신저를 만난 적도 없고, 키신저나 그 주변 인물들과 어떤 식으로든 교류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6년에 브르진스키에게 미 하원에서 연설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는 상세하고 정성스럽게 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국가 원수나 저명한 지식인에게서나 볼 수 있는 진지함으로 제 요청에 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 편지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브르진스키가 처음부터 저를 옹호하고 저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비록 촘스키와 14년 넘게 펜팔로 지냈고 이메일 교환 횟수가 수백 건에 달했지만, 그는 모든 편지에 세심하게 답장을 보내준 덕분에 촘스키보다도 저를 더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브르제진스키를 직접 만난 것은 CSIS 세미나에서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리를 두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죠. 제 생각에 그는 공개적인 행사에서 친밀감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극단주의의 부상이나 러시아와의 대립에 대한 브르제진스키의 책임이 무엇이든 간에, 저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때 그가 저를 위해 해준 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르제진스키가 저에게 그렇게 열광한 것이 사실이라면 외교 정책의 냉혹한 환경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브르제진스키 같은 사람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그런 정책 지식인들이 더 이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당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였던 조셉 나이드 저를 도와준 또 다른 사람입니다. 2003 년 일리노이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눴고, 그 인연으로 광범위한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기사 작성을 위해 여러 차례 저와 인터뷰하는 데 동의해 주었고, 이는 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은 비교적 짧았지만 나이와 상당히 친밀감을 느꼈고, 2015 년 하버드대 비교문학과에서 소수의 학생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을 때(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최를 거부한 후) 국제관계와 무관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강연장에 찾아와준 기억이 생생합니다.

국제 관계와 안보 분야에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저지른 악행에 대해 순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의 부정부패에 기꺼이 맞서 싸운 사람들은 군대나 정보기관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뿐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저는 제가 만났던 NGO 와 좌파 단체들의 완전한 비겁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샴페인에서 제 운명이 녹색당이나 여러 좌파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동북아정책연구센터 소장인 리처드 부시도 저를 행사에 초대하고 커피나 점심을 함께 먹으며 워싱턴 DC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를 만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었고, 그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를 브루킹스 연설에 초대하려고 했지만 끝내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나 한국에서 저명한 인사가 되어 주요 행사에 초청받기에 충분한 인물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예일대에서 제 수업의 연사였던 스트로브 텔벗 회장과도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브루킹스연구소에 초대받을 일은 없었고, 실제로도 초대받지 못했지만, 2010년 CSIS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세미나에서 기적처럼 연설할 수 있었습니다. 싱크탱크의 사람들을 코러스 하우스에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래리 월커슨과 커피 한 잔을 마시러 만나기까지 1년이 걸렸지만, 바로 친해졌고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는 무장 해제되고 솔직한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솔직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만남
적은 없지만 공통점이 많은 친구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친구로부터 그의 이메일 주소를 얻어 무작정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두 시간 만에 답장을 보내왔고, 이틀 후 포기
바텀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종종 그렇게
느꼈습니다. 래리는 그 말만 해도 워싱턴의 다른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진지함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래리를 여러 행사에
참여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결국 2013 년 콘퍼런스 참석차
한국에 오게 했지만, 이상하게도 래리는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었고, 저처럼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의 자유는
저보다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해
저를 데려왔고, 저는 그 자격으로 래리가 참석하지 못한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나중에 워싱턴에서 대안 정책 토론 그룹을 시작하려는 저의 노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당시 외교 정책 포커스(Foreign Policy in
Focus)의 디렉터였던 존 페퍼였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는 문학에 관심이 많았으며(여러 편의 희곡을 썼죠), 제가
(문학 교수로서) 외교 정책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도 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지만
때때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존은 나중에 제가 한국에

설립한 아시아 연구소의 펠로우가 되는 데 동의했고, 이후 몇 년 동안 함께 수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2005 년 여름에 비전통적 보안 위협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기 시작하고 컨퍼런스 제안서 초안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조언을 구한 사람은 존,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리처드 부시였습니다.

저는 물 부족과 환경 파괴로 인한 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작은 세미나라도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 제가 '비전통적 위협'이라는 주제를 꺼냈을 때 정책 분야의 일부 인사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웬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 뉴아메리칸재단에서 일하던 화려하지만 그다지 영향력 있는 언론인 정책 전문가였던 스티브 클레먼스와 토론을 하면서 '물'이라는 제목의 안보 세미나에 대한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금과 석유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물"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클레먼스는 그 주제가 "재미있다"며 "언젠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 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스타인버그에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공모함으로 기후 변화나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잘못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위 보안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든 보안에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기후변화를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대 전체를 재창조해야 한다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개념이었고, 저는 이 주제를 더 자세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나중에 메시지를 다듬은 후에도 이 주제는 상당한 정치적 문제의 근원이 되었지만, 2001~2004년 사이에 우리가 겪은 것만큼의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저를 도왔거나 중요한 대화를 나눈 사람들, 또는 저 나름대로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보적 활동가이자 커피 파티의 창시자인 애너벨 박, 사려 깊은 변호사 셸리 존슨, 우리를 자주 집에 초대해준 다정한 남편 찰스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경험은 책 한 권을 쓰기에 충분한 내용이었고, 실제로 그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서울로 이주한 후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집필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공공외교에 관심이 거의 없었는데도 공공외교 전문가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그 사건들은 이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학계 밖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저널리즘 방식으로 글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인들과 꽤 친밀하게 일했고, 한국인들은 종종 제

글을 잘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에 있을 때는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법치주의를 회복하려는 다른 미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우 미국적이었고, 미국을 위한 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열정을 느끼지 못하고 서비스 계약과 정치적 인맥에 더 관심이 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저는 제가 제대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의 정책 인사이드가 되지 못했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기본적인 행동 패턴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저는 제 자신이 대의를 위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문화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000~2007년 사이에 저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훨씬 더 억압적이고 퇴폐적이었고, 부정의 문화가 팽배해졌죠. 하지만 전 세계와 미국의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에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장악에 직면한 교육받은 계층이 바보처럼 행동하는 사태가 오랜 과정의 산물이며 과거에도 제가 몰랐던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계급과 경제 구조 같은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자본과 계급의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제가

관찰한 몇몇 기이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2006년 10월경, 예일대 동창인 이우찬 씨를 안개 낀 바텀에서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약 8년 동안 못 본 사이였죠. 우찬과 저는 1987년 처음 만났을 때 친구이자 묘한 의미에서 라이벌 관계였는데, 당시 우리는 둘 다 일본 인터유니버시티 센터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 등록했고, 같은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우찬은 받았지만 저는 받지 못했죠). 우찬은 한국인이었고 일본어 실력이 뛰어났으며 나중에 중국어도 배울 예정이었죠. 우리 둘 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꽤 야심찼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는 우연한 기회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찬은 국무부에서 몇 년 동안 일하다가 우리가 만났을 무렵 브루킹스 연구소에 많은 기부를 한 억만장자 중국인 투자자 존 손튼의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며 편안하게 살고 있었고, 지금은 일본 여성과 결혼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은행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이 직장이 오래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튼과의 새로운 컨설팅 작업, 스트로브 텔벗과의 관계, 기타 중요한 이슈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래리 월커슨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워싱턴 DC의 제도적 부패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저와는 달리, 우찬에게는 모든 것이 관찮아 보였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수입이 많지 않고 슈퍼리치들과 긴밀한 업무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찬이 보기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국무부에서의 경험과 인맥 형성 노력의 결과로 그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자신의 행보로 인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가 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였죠.

마침내 저는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그 당시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편지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5 페이지 분량의 요점 요약본을 만들어 인쇄해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에 대한 많은 소문과 반쪽짜리 진실이 유포되어 왔고,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리노이에서 제 부서장이었던 제리 패커드가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정치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 외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가족에게 변명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나중에 임마누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고 뻔뻔하게 변명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이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싶었습니다(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편지가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2006년 말,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러 갔고 약 한 시간 동안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제 말을 듣는 동안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인 제이미는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걸으며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함께 걸으며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반박할 수 없는지 살펴보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제 동생 마이클이 저를 보러 왔고, 함께 긴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는 제 말을 경청하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에 특정 사건을 언급하며 제가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필요 이상의 이야기를 듣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 이야기가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며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에서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나중에 너무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를 참여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2015 년에도 비슷한 캠페인을 시작하여 친구와 가족들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와 최선의 판단과는 달리 어머니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견딜 만했지만, 어머니가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예외 없이 저와 가족 사이에는 눈에 띄는 거리감이 커졌습니다.

5 장

한국으로의 이전

한국 대사관에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실 짧은 기간 내에 더 중요한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리노이대학교에서 해고된 순간부터 제 폴더에는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 강연을 하면서 몇 차례 돈을 받긴 했지만,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제의가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는 말 그대로 미국에서 일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마치 진지한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2006년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다른 미국인들과 함께 강연을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행사 콘셉트는 제가 구상했고, 초기 기획안도 제가 썼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문화원 이 원장이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도널드 그레그 회장도 제 사건에 관심을 가져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버지가 예일대에서 사업가로 일하면서 CIA와 인연을 맺은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예일대 출신인 제임스 릴리 전 대사와 도널드 그레그 등 한국계 인사들을 잘 알고 있었죠. 이 친구도 저에게 좋은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잭 홀도 예일대 출신으로 그레그의 가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레그는 제 사건에 동정심을 갖고 있었고, 불공정한 일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나라의 혼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인질 무기 거래의 주역이자 CIA 정치에 냉소적이었던 그레그에 대한 환상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그가 저에게 한 말에서 어떤 진정성을 느꼈고, 그 누구보다 사려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레그는 훗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진보 언론조차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자,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분명 혐오감을 갖고 있었고, 저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7년 이후로는 제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제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강연한 내용이 워싱턴 DC 까지 소문이 나면서 그레그는 2004년 이후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저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채용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2 주 후 코리아 소사이어티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취업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의 모호하고 불안정한 근무(혜택도 없는)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그 제안이 진지한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맨해튼의 유명한 코리아 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일하면 연봉이 일리노이 대학에서 처음 받던 연봉보다 약간 적었고, 한국 대사관에서 받던 연봉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중책을 맡을 자격이 충분했는데도 마치 갓 대학을 졸업한 사람처럼 대우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미국 친구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저를 위해 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2006년 봄, 고려대학교의 테뉴어 트랙 교수직에 면접을 보러 한국에 가자는 제의를 받았을 때 일종의 돌파구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이 제안은 저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처음부터

이 제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려대 총장은 국제화를 위한 캠퍼스 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더 많은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 외국인을 뽑는 자리가 바로 국문과 교수 자리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러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기묘한 경험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의 정책 서클에서 한국 문학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한국 문학 부서에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평생 한국 소설을 대여섯 권 읽었을 뿐이고, 현대 작가 이름도 몇 명밖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문학을 영어로 소개하는 일을 할 사람이 없다면 제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관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은 제게 악몽과도 같았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약 14 명의 국문과 교수님들 앞에서 소설가 박지원에 대해 한국어로 약 50 분간 발표를 했습니다. 몇몇 질문은 사려 깊고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에 관한 주요 학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이 분야의 중요한 연구를 알고 있는지 등 저를 깎아내리려는 교수님 두 분이 계셨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변호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가 그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지만, 만약 저를 채용한다면 국제적인 홍보 활동을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질문은 10 분 동안 계속되었고 회의는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연은 했지만 저녁 식사에 초대받지 못한 첫 면접이었어요. 나중에 교수 중 한 명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의 말을 통해 교수들이 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사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총장이 국제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를 강제로 데려가려 한 것에 분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면접도 실패를 각오한 면접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성공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구체적인 두 가지 제안이 들어왔고, 어떤 의미에서 제게는 매우 다른 두 가지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제 친구 브루스 벡톨(해병대 사관학교에서 퇴역한 해병대 교관)을 통해 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밤늦게까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른 문제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친구였고, 그가 북한에 대해 쓴 글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2006 년 국방대학교의 한 수업에서 졸업식 연사로 초대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대에는 저를 가끔씩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국무부 사람들보다 제가 만난 군인들을 더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군인들을 가끔 만났지만 국무부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브루스가 해병대 사관학교에 교수 자리가 있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래리 월커슨도 도움을 준 것 같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동아시아의 안보에 대해 강연했는데, 기후 변화와 현대 정치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해외의 여러 더러운 전쟁에 깊이 관여한 하드코어 군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싱크탱크의 사람들이 종종 그러지 않았던 방식으로 저를 상당히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대학이나 싱크탱크, 비정부기구(NGO)도 제게 일자리를 제안하지 않았는데 왜 해병대학이 먼저 제게 일자리를 제안했는지는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3 개월 동안 실직 상태였을 때 CIA 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을 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직책을 꿈의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군인들과 함께 일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피할 수 있다면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은 대사관 근무보다는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았어요. 제가 브루스에게 편지를 써서 한국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사관 측에서 저에게 제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006 년 워싱턴 D.C.에서 만난 한국인 중 가장 충실한 친구 중 한 명은 내무부 고위 공무원인 최민호 씨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위인 사려 깊은 사람으로, 저를 알아가는 데 시간을 할애했을 뿐만 아니라 제 가족을 알아가는 데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워싱턴의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줬고, 그는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절친한 친구였던 이완구 전 총리가 2006 년 6 월 충남도지사에 당선되자, 최 회장은 저에게 고문으로 일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대전에서 큰 포부와 인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꼭 해보자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잠시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지만 각종 스캔들로 인해 사퇴해야만 했습니다.

2006 년 여름, 시민저널리즘 콘퍼런스 참석차 서울을 방문했을 때 최민호 기자는 이완구 도지사 당선자와 짧은 만남을 위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대전으로 KTX 를 타고 내려가자고 했다. 흔쾌히 동의했고, 3 시간 만에 일제강점기 석회암을 잘라 만든 건물인 대전 충남도청 정문에서 만났습니다. 넓은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완구, 최민호 두 분과 마주 앉아 글로벌 충남을 향한 야심찬 계획에 대해 꽤나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분은 제가 하루빨리 함께 일하길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약 10 년 동안 진보 정치인보다 보수 정치인들과 더 많이 교류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척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수주의자들은 더 실용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들은 내가 미국의 법치를 위해 어떤 정치적 싸움을 벌였는지에 대해 덜 신경을 썼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과 인맥, 기타 무형의 자산을 이용해 충남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을 해내길 원했다.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버릇없는 미국인을 건드리는 것을 훨씬 더 주저했죠.

한국의 진보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인맥 활동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지와 환경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특정 분야의 외국인들은 고액 연봉을 받고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의 성격상 엘리트주의적인 측면이 많았고, 나중에 한국인들이 위로부터의 국제화에 대해 주저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어딘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었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똑같이 헌신적이었다면 저임금 일자리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내와 가족, 친한 친구들, 그리고 저 사이의 가치관 차이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며, 정부 요원들이 명령에 따라 저에게 행한 일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입니다.

그 후 6 주 동안 최민호는 제 직책과 연봉에 대한 논의를 중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고문으로 받는

수입이 제 생활비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총재는 저에게 대전 우송대학교의 신설 국제학교인 "솔브릿지"의 교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교수직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나중에 '교수 겸 학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받았지만 사실 저는 강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워싱턴 DC 에서 받던 급여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기술적인 이유로 급여의 일부를 받지 못했지만요). 숙소와 사용할 자동차도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제가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계획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제가 어떤 협상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훈련받은 교수진이 있다는 것을 내세워 더 큰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 저를 먼저 데려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워싱턴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점쟁이는 당시 한국으로 가는 것이 실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 회장은 점쟁이 두 명과도 상담했습니다. 한 명은 한국에 가는 것이 실수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렵에는 아내가 믿었던 점쟁이가 너무 많은 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겁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2 년간의 정교한 로비 활동과 워싱턴의 굵직한 행사에도 불구하고 제 능력과 경험에 걸맞은 진지한 제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신분이 실제로

교수가 아니라는 사실과 그들이 약속 한 전체 급여를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도 더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저에게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취직했을 것입니다.

한 달 동안 혼자 일하면서 어떤 일인지 알아봤어요. 작은 아파트를 제공해주셔서 도지사 집무실과 우송대학교를 오가며 시간을 쪼개서 일했어요. 아내는 한국에 오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 몇 년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은 전적으로 제 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내린 결론은 워싱턴보다는 대전에 더 많은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물론 당시에는 한국어를 잘 몰랐고 한국에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활동에는 제약이 있었지만(향후 12 년 동안 분명해지겠지만)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고통스러운 과정과 그로 인해 저와 아내, 그리고 나중에 두 자녀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가가 컸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송대학교(2007~2011 년)와 이후 경희대학교(2011~2018 년)에서의 활동은 대부분 교육, 대학 행정 지원, 국제 교류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한 일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중 이 책과 관련된 일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2007년 4월에는 아내 승은, 아들 벤자민(6세), 딸 레이첼(3세)과 함께 대전에 내려와 우송대학교와 충남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북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와 넓고 텅 빈 사무실에 앉아 브로셔를 수정하고, 교수진을 모집하고,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제안을 하고, 기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몇 달 동안 솔브릿지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솔브릿지는 국제학교가 아닌 비즈니스 스쿨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솔브릿지의 총장으로 영입하고자 했던 두 사람이 국제 관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국제 관계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 결정은 일찌감치 내려졌고, 2007년 5월경에 그 결정이 내려진 후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적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할 수 없었고,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적대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칠 자격이 없었습니다.

솔브릿지 건설을 돕는 일보다 지사님을 위한 일이 더 흥미로웠지만, 6개월 만에 지사님의 오랜 후원자이신 우송대학교 김성경 이사장님께서 제가 주로 대학을 위해 일하고 가끔씩만 지사님 집무실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함께 일본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관광과 다문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사실에서 제 역할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솔브릿지 국제학교(훗날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원)의 새 학장을 영입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송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보안학 전문가 두 명을 이 학교의 학장으로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헤드헌터를 통해 클린턴 정부 시절 대북 협상의 핵심 인물이었던 고위 외교관이자 교수인 로버트 갈루치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갈루치가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높았고, 우송은 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동북아 비핵지대에 대한 사려 깊은 제안을 한 아시아 안보 전문가이자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조지아 공대의 존 엔디콧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워싱턴 DC 에서 엔디콧을 여러 번 만났고, 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잘 맞았고, 저는 그가 우송으로 오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몇 주 만에 대사관, 나아가 워싱턴 D.C.의 억압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후의 행복감을 회복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저명한 학자들은 과거에 긴밀한 교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만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사무실에 전화하고, 연구 조교와 통화하고, 심지어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도 있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4 년 동안 컨설팅과 돈벌이를 위해 저에게 제안된 기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그 한심한 동화 같은 이야기는

빼고 싶습니다. 친구 소유의 회사를 컨설팅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거나,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어떤 프로젝트 등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말 그대로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 공짜 커피 한 잔이나 가끔 공짜 식사 한 끼를 제외하고는 제가 실제로 받은 것은 5%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솔직히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믿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백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국의 잠재적 투자자(또는 해외에 있는 한국 투자자)의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정도 지나자 사업으로는 제게 더 이상 커리어가 없고, 미국에서 겪은 엄청난 손실을 만회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글쓰기와 연설이라는 두 가지 활동에 정착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수 이외의 활동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당시 교수직을 영원히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인맥을 갖추고 있었고, 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단순히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에 대한 의심과 고도의 블랙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컨설팅 기회를 얻기 위해 큰 수고를 아끼지 않다가 갑자기 제안을 철회하는 일부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 제 활동을 제한하는 권고가 꽤 노골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한국어와 영어로 한국에 관한 흥미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어야 했는데, 제안만 하고 실제로 실행된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글쓰기뿐이었죠.

두 가지 짧은 예외가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 저를 컨설턴트로 고용한 건설회사가 있었는데, 6개월 동안 한 달에 2,500 달러 정도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대전의 비싼 국제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교육시키느라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던 저를 안타깝게 여긴 지인의 권유로 성사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대덕연구단지의 해외 진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대덕이노폴리스로부터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준 대가로 9개월 정도 비슷한 액수의 보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강계두 원장님과 제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 전직 관료 한 분의 각별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존 엔디콧이 우송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고 초기의 제도적 문제들이 해결된 후, 저는 그들에게 훨씬 덜 중요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소중히 여기고 하버드와 예일대 졸업생인 저를 홍보했지만, 제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사람들이 새로운 솔브릿지 비즈니스 스쿨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도록 설득하는 데 저를 고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관계가 꽤 잘 풀린 적도 있었지만 긴장감도 있었어요. 우송대 교수들 중에는 경영대학원 교수도 아닌 제가 너무 많은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행이나 취업이 자유롭지 못한 저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저로부터 충분한 가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제가 무자비하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송대학교에 대한 평판은 땅 투기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대학으로 승격했지만 교육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부족한 사립 고등학교라는 다소 비참하고 소극적인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가르쳤던 평범한 한국인 학생들, 즉 철도 행정과 공학을 공부하는 노동자 계급 출신의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몇몇 유학생들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친한 친구를 사귀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 몇 가지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려 깊은 교수님들도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는 혁신의 첫 몇 년 동안 솔브릿지에서 일하게 된 분들도 계셨죠.

무엇보다도 환경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이나 워싱턴 DC 에서 동료들이 저의 정치적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가 될까 봐 저를 멀리했던 것과 달리, 우송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대전에서의 모든 모험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한 대덕 연구 클러스터에서 일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서울 예일 클럽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는데, 대전에 거주하던 두 분의 정회원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대덕 연구단지에서 일하고 계셨죠. 그 중 한 명인 김원준 씨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기술혁신 분야 교수였는데, 저와 여러 차례 만나서 연구단지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설명해 주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어요.

대전에는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클러스터가 있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프로젝트였고, 일리노이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했던 일과도 약간 비슷했습니다.

김원준은 대덕 이노폴리스 직원 김경재 씨를 소개해줬고, 2007 년 겨울이 끝날 무렵인 다음 주에 김경재 씨와 점심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김경재는 매우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제가 대전에 있는 동안 내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대덕연구단지의 '국제화'와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있었지만, 출연연과 카이스트의 국제 교류는 출연연과 카이스트가 자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경재 이사장이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원장들의 명단을 주었고, 저는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제 소개와 함께 연구원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열다섯 분 중 여섯 분이 답장을 주셨고, 저를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그 중 4 명은 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년 만에 저는 모든 연구소와 상당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각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연구소의 관리자는 누구인지 체계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제화를 위한 노력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했고, 이를 위한 자금 지원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당시 양지원 부총장을 비롯한 몇몇 뜻있는 교수님들이 저를 카이스트 교수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카이스트의 국제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저처럼 이공계 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해 작은 규모의 문화기술학과에 인문학 교수로 채용되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도전이 있었고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더 이상 교수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7년 동안 교수로 일하면서 최악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터무니없이 낮은 급여를 받았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고, 교수라는 지위와 터무니없는 임기 압박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의 일은 흥미로운 기회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교수님들은 카이스트가 한국 최고의 공과대학이고,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얻기 위해 온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물론 저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면접 후 몇몇 교수님들이 제가 그 자리에 충분히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있었습니다. 카이스트는 테뉴어 트랙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다시는 쓰지 않기를 바랐던 학술지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크고 중요한 학교라는 이유로 더 까다롭게 요구할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테뉴어를 거부할 수도 있었죠. 그런 근무 환경은 저에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제안된 급여와 복리후생이 우송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열정을 잃었습니다. 지원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전화도 하지 않았고, 그쪽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한국에서 주로 교수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카이스트에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된 기관 자격증을 취득해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대학 서열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책을 영문으로 써서 국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수직을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단순히 학술지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앉아서 학문적 글쓰기에 몰두할 수 있으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우송대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대덕과의 교류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등록금으로 돈을 벌고, 대학 주변에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출할 돈은 많았지만 다른 교육 기관과의 유대 관계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존 엔디콧이 조지아텍과 2+2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때, 그것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들에게 큰 매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했던 유명한 활동들도 김성경 회장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엔디콧이 11년 동안 우송에 머물면서 학교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엔디콧 학교'를 설립한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저에게는 전혀 흥미가 없는 게임이었어요. 4년 내내 여러 방면으로 우송대를 도왔지만, 엔디콧이 그들이 찾던 자산이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허니문은 끝났다. 개인적으로도 그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만남과 인사 활동을 즐겼고, 조지아공대에서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커리어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지낸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노무현 정부의 많은 정책을 후퇴시켰습니다. 거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많은 국민은 그의 친성장 수사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녹색 성장'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환경 친화적인 경제 계획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저를 포함해 이 구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세금을 들여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하고 강과 하천 곳곳에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엉망진창을 만드는 계획으로 변질되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 성장'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저에게 한국에서의 첫 번째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녹색성장이 발표되기 직전에 친구인 존 페퍼가 대전을 방문했는데, 당시 우리는 둘 다 한국의 녹색경제 수용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공동 집필한 기사에서는 대덕연구단지의 첨단기술과 과학연구를 활용해 대전이 모범적인 생태도시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 상당히 순진했던 것 같고, 제 아이디어가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제안서가 나왔을 때 이미 알고 지내던 연구자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전시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우송대 유혁종 교수의 도움으로 연구자, 공무원 등을 모아 대전환경포럼(후에 대전녹색성장포럼으로 명칭 변경)을 결성했고, 제가 공동대표(양지원 카이스트 부총장과 함께)를 맡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대전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거창하고 거창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대전은 변한 것이 거의 없고, 선도적인 친환경 도시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 환경포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거의

연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인정을 받았고, 앞으로 귀중한 인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6 개월 정도는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래 연구비 지원은 카이스트 등 다른 곳으로 갔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초청 연사로 나간 유명 학회도 몇 차례 있었지만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한국에서의 짧은 관심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대전환경포럼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대전과 일본 쓰쿠바 연구 클러스터, 베이징 칭화대 주변 연구 클러스터, 팔로알토와 스탠퍼드대 간의 에코시티 동맹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칭화대와 스탠퍼드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양 부총장과 제가 두 곳을 모두 방문하는 등), 최종적으로 대전과 쓰쿠바, 중국 심천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협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저는 제외되었습니다), 대전, 선전, 쓰쿠바에서 세 차례의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심천과 쓰쿠바에서 열린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고, 그때부터 프로젝트는 흐지부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은 뭔가 큰일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0 년에 부산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의받았는데, 당시에는 받아들일 생각이었지만 대전에서 유망해 보였던 활동과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산으로 이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아내는 여전히 제가 어떻게든 미국에서 다시 고용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를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대덕클러스터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실제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고, 우송대학교가 연구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적대감이 없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전에서 유일하게 일류 연구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 연구기관들과 교류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엄청난 이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프로그램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논리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송대에는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었고, 강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그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프로젝트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에서 1 년 동안 진행한 국제화 전략 연구였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08 년 카이스트에 MIT 출신 서남표 총장이 새로 부임했는데, 그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부패한 행정가로 나오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대전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공통의 관심사로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곤 했다. 서남표는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그 제안이 너무 미약해서 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지면서 대전보다 서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카이스트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은행을 인수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합병의 근거가 모호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했지만 서 총장은 과기부와 청와대 인맥을 총동원해 밀어붙였고, 성공 직전까지 갔다.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KRIBB 의 유장렬 대표는 제 작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카이스트 인수에 대해 기업은행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봤고, 저는 최선을 다해 조언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책 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KRIBB 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하고, 한국 내 지지를 결집하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이 아이디어가 특별히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M&A 이슈에 대해 별다른 감정이 없었지만, 연구기관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생명공학에 대한 저의 글은 좋은 반응을 얻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국제화 및 홍보 전략에 관한 1 년간의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2 년 동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서울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 등에서 비슷한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서울대에서는 훗날 대통령 후보가 되신 안철수 당시 학장님과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 조교를 고용하고, 해외 출장을 가고, 서울에서 열리는 유명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우송대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정당성을 제공한 셈이죠.

대덕연구단지와의 인연은 강계두라는 사려 깊은 공무원이 대덕이노폴리스 대표이사로 임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호흡을 맞췄고 여러 프로젝트에서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 공로를 인정해 주었고, 심지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해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하는 것을 고려해 두 번째 모임인 '대덕융합포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고, 대전환경포럼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진 포럼이었죠.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저를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열정이 덜했습니다.

강계두의 통치는 다소 모호한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2011 년 봄에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든 지원금을 잃었고, 한동안은 모든 기회가 사라졌죠. 아마도 강 대표와 제가 대전에서 너무 영향력이 커져서 특정 정파가 우리를 내보내려 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대전에서 글쓰기는 저에게 열려 있는 유일한 문 중 하나이며, 급격한 기복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고, 이는 한국과 전 세계에서 제 명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널리즘 글쓰기가 제게 활기를 불어넣어준 데 이어 책도 출간했고, 마침내 제

경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명성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베스트셀러 책 세 권과 주요 신문에 가장 많이 읽힌 칼럼을 썼다는 사실은 제가 원하던 직업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교수직을 그만두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한국에서 제 행동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은 무기한 지속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노틸러스 연구소, 외교정책포커스, 오마이뉴스 등에 국제관계와 기후변화(제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관한 기사를 영어로 썼습니다. 일부 기사가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대덕넷에 한국의 과학 정책과 환경 문제, 대전시의 미래에 대한 제언을 담은 한국어 기사를 기고한 것이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장기적인 과학 정책과 관련된 기사들은 제가 대전환경포럼의 공동의장이 된 후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기 정기간행물인 매경경제신문의 기고자로 초빙받게 되었습니다. 기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각종 경제 포럼이나 대전과 서울 소재 기업에서 강연 초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이 <매경> 같은 경제지에 글을 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우송대는 이 돌파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저는 이미

우송대를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고, 글쓰기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증권 신문에 기사를 투고할 수 있었고, 많은 노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교 정책, 기술 규제, 문화, 국제 관계,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쌓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국어로 책을 쓸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서울로 상경한 저는 대한민국 대표 신문사인 조선일보의 기고자로 발탁되는 획기적인 기회를 얻었습니다. 보수적인 이 신문에 6 개월 동안 글을 썼고, 우여곡절 끝에 중앙일보에서 6 년 동안 글을 쓰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으며, 중앙일보 기자증을 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분명했고,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우송이나 더 유명하지 않은 대학에서 늙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송은 저를 홍보하는 데 관심이 없었고, 한국 대학은 SSCI 저널 게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업과 시민단체에서 제 글을 읽고 강연을 요청해왔지만, 실제로 저를 채용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제가 SSCI 저널 논문을 쓰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좁은 범위의 저널로 교수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문을 쓰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제가 원래 전공하던 분야나 다른 학문 분야의 학술회의에 더 이상 초대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술지 논문 작성을 독려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동료들과의 지적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모험과 아시아학에 대한 저의 배경을 담은 책을 한국어로 출간해 많은 독자들에게 알리고, 저의 명백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컨설턴트로는 절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대학이 아닌 다른 조직에 고용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일대 동기 중 한 명(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은 한국에서 불교 승려가 되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제 책보다 더 많이 팔렸죠). 그의 이름은 현각 스님이었다.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되었고, 저는 그에게 제 한국어 책이 출간될 때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저의 어린 시절, 가족 구성원, 아시아에 대한 첫 경험, 한국어 공부,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공부, 한국 전통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 상세한 원고를 영어로 썼습니다. 대전에서의 활동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미션이라는 젊은 여성을 고용해 원고를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2010년 3월이 되자 저는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꽤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은 중요한 원고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프로젝트를 맡으려 하지 않았고, 저를 직접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러던 중 이산하라는 괴짜

작가를 만났는데, 막걸리(쌀맥주의 일종으로 다소 단맛이 나는 한국 술)를 세 잔이나 마시고 나서야 책 출판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산하는 큰 사업 기회를 약속하며 대전에 자주 찾아왔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던 모 사업가의 오랜 친구였다. 하지만 이산하를 소개해준 것은 소중한 인연이었다.

이산하 선생은 1940년대 제주에서 벌어진 한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을 다룬 시를 발표해 1980년대 감옥에 갇혔던 학생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책을 많이 읽고 사려 깊고, 허술하기는 하지만 제 사건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준 지식인이었습니다.

결국 고산이라는 편집자이자 작가이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은 제가 관련 글을 한국어 원고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고산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고 꽤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출판사를 찾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고산 선생님과 작업은 즐거웠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2011년 3월에 이산하 선생님의 출판사 노마드북스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컬트 출판물로 성공을 거두었고, 적어도 15,000부 이상 팔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산하 선생은 후대의 다른 출판사들처럼 판매 부수에 대해 정직하지 않았고, 인세도 극히 일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전국적으로 폭넓은 독자를 만날 수 있었고, 과학 정책이나 연구 클러스터에 대해 할 말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 역사, 현대 사회에 대한 저의 진정한 관심사를 이야기하며 저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책 원고가 완성되고, 주요 신문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다양한 행사에 한국어와 영어로 연사로 초청받으면서도 교수로서의 신분은 점점 불확실해졌습니다. 2010 년 가을, 존 엔디콧 총장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우송대와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대학 등 여러 곳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지원했지만 면접을 보지도 못하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실직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해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분명히 교수로서 고용 안정성이 없었는데). 당시 대덕밸리에서 벌어진 어떤 일과 관련해서 대덕밸리,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이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이라는 도시를 홍보하고, 연구 전략뿐만 아니라 관광과 이미지에 대한 폭넓은 고민을 하며 열심히 활동했죠. 대전의 새로운 로고를 만들고, 재미있는 대전 티셔츠와 버튼을 제작하고, 대전의 흥미로운 장소를 영문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웹사이트 '대전 나침반'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했죠.

저는 이러한 노력이 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시 정부에 있는 친구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묵했습니다. 게다가 그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행사에 초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의 제 활동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나중에 한 친구는

제가 작은 연못에서 너무 큰 물고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는데,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주요 후원자였던 강계두 씨가 대덕이노폴리스 대표이사직에서 갑작스럽게 해임됐는데, 이는 명백히 정치적인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이 주로 대전의 계파 간 싸움이었는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학기는 2011년 3월에 시작되었지만 2월 초까지만 해도 어떤 대학으로부터도 입학 제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의 실직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번의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강계두는 지방인 전라남도 광주 부시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진정한 친구였던 그는 곧바로 제게 일자리를 찾아주었고, 조선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제가 그곳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비록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고, 아내가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동네였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또 다른 기회는 국내 10 위권, 아니 7 위권 안에 드는 명문 대학인 경희대학교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산하가 경희대 졸업생이었고, 그의 지도교수였던 도종일 영문학 교수가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학부생 대상 인문학 프로그램을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2010년 가을에 도종일 교수를 두 번이나 소개해줬고, 저는 나중에 도 교수에게 제 작품에 대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도종일 교수님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1월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제가 연락한 것에 대해 다소 짜증을 내며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2 월이 되어서야 조선대학교에 합격한 줄 알았는데, 막판에 경희대학교에 합격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구직 활동과 동시에 미국 취업에 다시 한 번 도전했습니다. 당시 저는 경제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있었고, 글로벌화를 계획하는 기술연구소의 컨설턴트로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주류 기업 강연에 초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주류에 진입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도전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한국 생활에 대해 매일 불평을 늘어놓았고, 아들은 대전에 있는 고가의 국제학교에 등록해 남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군사주의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던 것을 삭제하고, 이력서를 정리하고 최근 컨설팅 업무를 강조하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요컨대 저는 주류에 편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기업 헤드헌터로 일하며 채용 프로세스 전문가였던 예일대 동창 글렌 구트마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 이력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광고하는 수단으로 LinkedIn 과 Facebook 에 저를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Glenn 의 조언에 따라 제 블로그(circlesandsquares.asia)를 개설하고 팔로워 그룹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글렌은 또한 레오 하멜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레오 씨는 보스턴 근처에 살면서 커리어 컨설팅을 부업으로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미국 내 취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송대와 계약이 끝나기 몇 주 전, 그리고 경희대와 계약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1년 2월 예일대와 하버드를 방문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을 때 딱 한 번 만났습니다. 레오가 저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주었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세련미를 크게 향상시켰고, 제가 훨씬 더 정치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레오는 2013년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의 역할은 짧고 제한적이었지만, 그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명예롭게도 처음 두 달 동안은 도움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2010년과 2011년에 미국에서 다양한 학술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도 면접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존 엔디콧이 특별히 노력해 소개해 준 주요 대학의 선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유망해 보이는 직책이 하나 있었는데, 몇 달 동안은 솔직히 저에게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일대학교가 싱가포르에 캠퍼스를 개설하기로 결정했고,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하운 사우시 교수와 재빨리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운 교수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중어중문학과 비교문학 교수로, 예일대에서 제 지도교수였던 장강이

교수와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친해졌고, 싱가포르에서 예일대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와 일련의 토론을 벌였습니다. 곧 다른 위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말 그대로 제가 위원회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2011년 2월에 예일대를 방문하여 위원들을 만나고 캠퍼스 내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오랜 서신을 통해 친분이 두터워진 하버드 예술과학부 전 학장 헨리 로소브스키를 만나러 갔습니다.

결국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예일대학교 캠퍼스에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시 예일대 총장인 리처드 레빈과 직접 접촉할 수 있었고, 레빈은 저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미국 주류에 다시 편입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미국 기관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미국의 주요 기관 부패에 대한 글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예일대학교와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도록 초청받기도 했는데, 이는 진정한 돌파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시아 연구 분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연구협회 컨퍼런스에 두 번 참석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비록 몇 년 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이 저를 한국 기관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예일대 방문과 다른 활동들이 경희대 교수 자리를 보장해준 것 같습니다.

6 장

다시 주류로 돌아왔다가 다시 빠져나오기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조인원 총장은 제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새로운 학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고등교육의 장점을 한국에 도입하고 아이비리그 명문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그의 계획에 제가 잘 맞았기 때문이죠. 제가 그 중심 역할을 하려고 했죠.

그는 세계 동료 부교수들보다 더 높은 급여를 주기로 동의했습니다(저는 진작에 정교수가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결정은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이는 비생산적이었습니다.

조 총장은 학제 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과 넓은 사무실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경희대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인 '글로벌 콜라보'라는 여름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경희대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예일대, 프린스턴대, 펜실베이니아대 등 유수의 교수들을 초빙했습니다. 짧은 몇 달 동안 저는 드디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내 인맥과 한국 관료사회에서 검증된 능력을 살려 경희대를 국제적인 대학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에서 제가 직면한 정치적 장애물의 규모를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부 성공하기도 했지만, 총장의 강압에 의한 외국인 영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대학 내 교수진의 저항과 미국 시스템에서 저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낮은 수준의 방해로 인해 궁극적으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경희대에서 8 년을 버티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처음 2 년은 영어과 도종일 교수님이 신설한 교양과정인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마지막 4 년은 유일하게 부교수직을 제의한 국제대학에서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정교수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6 년 동안 불필요한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총장 고문, 학제간 연구소장,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 경희대가 펜실베이니아 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의 디렉터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학제 간 연구소를 위한 큰 방을 제공받았지만, 직원이나 가구는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자금 지원 요청은 모두 정중하게 거절당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관리자들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후마니타스 대학의 학장도 좋은 친구가 되었지만 자금 지원에 관해서는 손이 묶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총장은 제가 뭔가 큰 일을 하길 원했지만 말 그대로 불가능했어요.

조금씩 제 책임이 박탈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협업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 취소되었고, 변경 사유에 대해 통보받은 적도 없으며, 심지어 제 지위 변경에 대한 서면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로 사장의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행정부와 거의 교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상한 상황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교수들이 제 역할을 질투했거나 외부인이 갑자기 들어온 것에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학 외부, 심지어 미국에서도 제 역할을 제한하라는 명시적인 명령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을 것 같고, 사실 그 무렵에는 더 이상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는 것에 꽤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 3월부터 하루 종일 서재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가끔 다른 교수님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경희대에 온 것을 매우 반가워하고, 저에게서 경희대의 평화와 인문학에 대한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속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제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제 행동에 심각한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저는 글쓰기에 몰두했고, 기사와 책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8년간의 심리적 공백기 끝에 다시 학술적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전근대 시기 일본과 중국 소설에 관한 책 원고를 (도움을 받아) 완전히 수정해 서울대 출판부에서 출간했습니다. 또한 한국 작가 박치원의 소설을 번역한 원고를 수정해 서울대 출판부에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사라 리우(Sarah Liu)가 편집을 도와주었고, 하버드 대학교 영문학과 대학원생이었던 멜리사 피노(Melissa Pino)라는 사려 깊은 여성도 편집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직접 만날 기회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한국 신문에 매달, 심지어 매주 수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글들 중 상당수가 널리 읽혔고, 그 과정에서 비록 주류에서 인정받거나 아시아학 관련 학회에 초청받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 외에는 활동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처럼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택한 길은 일반 한국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가질 수 없었을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제 인생 경험과 한국 문화와의 만남을 담은 책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는 컬트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저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2012 년이 되자 저는 전례 없이 많은 NGO 단체, 기업, 기타 조직으로부터 강연 초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노암 촘스키 등 유명 학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과제를 다룬 또 다른 책의 원고를 썼습니다. 2013 년 대선에 맞춰 출간된 이 책은 잘 쓰여졌지만 큰 히트를 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저의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책은 저를 언론계의 먹이사슬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2013 년 봄에 국내 3 대 신문사인 동아일보의 칼럼니스트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 제안은 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짧은 기간 동안 저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주류 인사처럼 대접받았습니다. 그 후 2013 년 가을에는 한국에서 가장 널리 발행되는 신문사인 조선일보의 칼럼니스트로 임명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극도로 보수적인 신문사라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저는 한국을 이해하는 미국인으로서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의 정점은 2014 년 봄부터 2019 년 1 월까지 중앙일보의 상임 칼럼니스트로 위촉된 것이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에 대해 효과적인 글을 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제 사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년 동안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 작품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신속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쓴 글을 기꺼이 게재해 주는 저널도 있었죠. 무엇보다도 저는 기업 스폰서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관련성 있는 기사를 쓰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절친한 친구인 왕선택 YTN 기자에게 <한국인이 모르는 대한민국>의 편집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 기자는 한국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전문 기자로서 제 글을 폭넓게 어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했고, 2014 년 최고의 출판사인 21 세기북스(st)에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8 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출판사가 제게 마땅히 받아야 할 인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차원의 인지도에 도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어로 된 두 번째 책을 출간하고 조선일보에 이어 중앙일보의 기고자로 선정되면서 한국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지자 경희대학교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위원회에 초대받았고, 조인원 총장에게 조언을 해주고 연설문을 편집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죠. 더 이상 완전히 봉쇄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2012 년 10 월 프린스턴과 예일대를 방문해 고전문학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마이클 가렛 고등연구소 부소장 등 다양한 인사들과도 인연을 맺을 수 있었죠. 예일대 서부 캠퍼스 부총장을 만났고, 그는 한국 방문에 동의했습니다. 싱가포르 캠퍼스에 취업하려는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예일대의 여러 교수진들과 활발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중국사를 가르치는 친구 마이클 푸엣을 설득해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경희대에 방문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저와 존 트리트(예일대 일본문학)와 함께 강연을 했고, 그 인연으로 1 년간 객원교수로 초빙받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제가 가진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었지만, 몇 번의 큰 성공을 거둔 순간도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종신 재직이나 큰 수입을 보장해주지는 않았지만,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서울 시내에 살던 시절은 제 인생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고, 아내는 고려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 과정에서 공부에 열중하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기존 학과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테뉴어 시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년간 경희대에서 근무한 기간은 테뉴어 트랙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가 출간한 두 권의 책도 테뉴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004년부터 테뉴어 트랙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학들이 제 약한 지위를 마음껏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2년에 학계를 영원히 떠났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교수직을 계속 유지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어쨌든 교수라는 주류의 정의로 돌아가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았다면 경희대 교수라는 직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고, 결국 제 삶과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대학 행정부는 학과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멀리 수원에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국문과에서는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였죠.

많은 한국인들은 제가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동료들과는 달리 여전히 종신 재직권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10년 만에 다시 테뉴어 트랙을 시작할 수 있었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최대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여러 친절한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국제대학에 입학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제가 이 프로그램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으며, 교수진도 애초에 저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인문학 배경을 가진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죠. 교수진 대부분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경제학 교수들이었고, 저는 그들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었어요.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 사회, 특히 한국계 기업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우 유능한 학생들과 함께했고, 사무실 직원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학과 교수들과는 친하지 않았고, 그들의 순응주의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위상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류에 다시 합류하려는 시도가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대학에서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점점 지루해졌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교육 방식과 시대의 주요 이슈에

대한 교수진의 완전한 침묵이 불안했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을 대하는 교수진의 태도가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노동자들의 처지에 점점 더 동정심을 갖게 된 것인지, 아니면 대학이 점점 더 위계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경희대에서 8 년을 지내다 보니 다른 교수님들과 교류하는 것보다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가치도 없고 학문적 중요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학술지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몸담았던 어떤 부서보다 제 역할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이미 2016 년 가을, 저는 경희대학교를 떠날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희대의 국제교류 발전에서 배제되어 강의와 논문 채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학문적이지 않은) 저술 활동과 아시아연구소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학과에서 지시한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다는 이유로 학과에서는 결국 재계약을 (이유 없이) 미뤘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거의 1 년 만인 2012 년 2 월 18 일, 경희대 설립자 조영식 선생이 별세하면서 경희대 문화에도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영식 선생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임종하는 순간에도 그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의지가 강했던 그는 권위주의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며 경희대학교를 일궈냈습니다. 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지원, 환경과 세계 평화에 대한 헌신이라는 강한 전통을 가진 학교라는 점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경희대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조영식 선생은 병상에 누워 계셨고, 저는 도서관에서 읽은 책과 아들인 조인원 총장과의 교류를 통해 그의 사상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그의 지도교수로 일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전임 조영식 총장에 의해 승진한 교수들과 고위 행정관들은 세계 평화에 대한 그의 비전을 공유했고, 저를 지지했습니다. 또 다른 세력은 출판물 발간 등을 통해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고, 대학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조영식 선배가 돌아가신 뒤에는 SSCI 논문과 강의량 증가가 일반화될 것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시장의 힘에 의해 변화하고 있었고, 익숙하지 않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는 저 또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대학은 점점 더 배움의 장소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붕괴에 대한 인식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벽에 인류 멸종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제 가치관을 빠르게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 년이 되자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도 기후변화에 대해 글을 쓰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습니다.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정부의 부패가 심각해져 조치를 취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제 전체가 투자

은행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되고 있었죠. 경제가 왜곡되고 기후가 파괴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SSCI 저널 논문을 쓰는 것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의 집중과 미디어의 죽음은 저를 2001 년에 느꼈던 것과 거의 같은 위기 모드에 빠뜨렸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 가졌던 짧은 휴가가 끝났고, 저는 그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일상적인 대화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교수들이 안보와 외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기후 변화, 부의 집중,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오도하고 있었습니다.

학술지 논문에 집중할 수 없었고, 대학에서는 의미 없는 현대 사회와 관련된 학생과 시민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승진이라는 사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1 년 경희대에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정교수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희대에는 저보다 논문 편수가 적지만 정교수가 된 교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은 7 년 동안 부교수에 머물렀습니다. 2017 년에 재계약 심사를 받았을 때(승진이 아니라 부교수 자격으로 5 년을 더 주기 위한 심사), 학과에서는 제가 재계약 요건에 약간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들이 요구한 정확한 수의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사기였죠.

6 개월 동안 정교수 임용은커녕 계약 연장 여부도 불투명했습니다. 결국 계약을 4 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권의 책을 포함한 제 출판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새로 부임한 조교수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저는 언제 한 학기를 안식년으로 쉬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출판물이 밀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년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즉, 출판물을 쓸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고, 그 과정이 합법적인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저는 분명히 이런 말을 강요당하고 있는 직원들과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위 교수진이 저를 싫어했는지, 아니면 제 3 자로부터 저를 괴롭히라는 명시적인 명령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희대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 건강과 건강이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졌어요. 학장님께 제가 겪고 있는 신경학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학장님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한양대학교 의사가 학장님께 보낸 편지에 제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장은 저를 만나서 제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커녕 편지를 받은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무처 직원을 통해 학장이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규 급여의 3분의 2를 반납하면 한 학기 동안 병가를 쓸 수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죠.

학장의 활동과 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저를 힘들게 하려는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일리노이 대학교의 모습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학장이 다른 교수진들과 함께 저에 대한 요구의 타당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조차 거부한 것은 (다른 교수진들의 요구와는 분명히 달랐던)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너무 강압적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시스템에 맞서 싸울 가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학장의 격려로 제가 기획하고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기후변화 강좌였습니다. 기후 변화의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폭넓게 토론할 수 있도록 계획한 이 강좌는 우리 대학은 물론 한국에서도 유일무이한 강좌였습니다. 또한 화석 연료 회사와 다른 이익 단체들이 전문가들을 매수하여 기후 변화를 어떻게 과소평가했는지에 대한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했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2017년 9월 첫 수업에 총 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경희대에서 6년 동안 강의하면서 학부 수업이 첫날부터 만석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저에게 매우 미스터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과 사무국장으로부터 수강생이 10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수업이 취소되고 월급이 300 만 원 삭감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스꽝스러워 보였고, 제가 가르칠 수 없는 수업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계약 위반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조사 끝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대학에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있었고(교수들에게 비밀로 유지됨), 특정 수업은 필수 과목으로, 다른 수업은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은 교수 한 명당 1 년에 4 과목이 아닌 5 과목을 가르치도록 요구해 강의 과잉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제 수업은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제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 중 상당수가 경제학 수업이나 다른 새로운 필수 과목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수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수업에 대한 수요 부족은 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학과장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는 먼저 이 모든 과정이 계약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친근한 태도를 유지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강의를 필수 과목으로 하고 경제학은 선택 과목으로 하면 어떨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교수진과 회의를 열어 이 새로운 교육

규정과 기후 변화를 부전공으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런 회의를 거부했습니다.

경희대가 영리기업으로 전략해 교수들에게 더 많은 수업을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적은 지적 콘텐츠로 강요하고, 학생들에게는 취업을 원하면 어쩔 수 없다며 더 높은 등록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가르치는 일이나 지적인 추구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학과장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그런 의사를 밝혔지만 몇 주 후에 학과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죠.

저는 한국의 엘리트 대학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못한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와 예일대 교수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러 방면에서 경희를 도울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학생들을 포함한 평범한 아이들이 대학 전반, 특히 교수들로부터 자신의 미래와 우선순위에 대해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전쟁, 기후 변화, 부의 집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죠.

저는 미국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선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실질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는 교수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류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7 년간의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지만, 제 마음은 다른 방향, 즉 급진적인 비판을 향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제 부서에서는 누구와도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2017년이 되자 저는 경제와 정치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급진적으로 비판적인 뉴스 매체에서 얻고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뉴욕타임스에 대한 신뢰를 잃었지만 2007년에는 종종 정보를 얻기 위해 뉴욕타임스를 찾아보곤 했지만, 2017년에는 말 그대로 뉴욕타임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마르크스가 제시한 것과 같은 경제 및 문화 비평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심오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크스의 분석이 단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열렬한 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의 많은 주장은 전적으로 정확하고,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목격하고 있는 상황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01년에만 해도 미국 정부에서 일할 수 있고 2014년쯤에는 저를 위한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그런 일은 거의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일하는 것조차 심리적으로 힘들 것 같았습니다.

경희대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데에는 건강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1999년 7월에 종양으로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1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심각한 신경학적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경 대전에서 왼손에 힘이 빠지고

가끔씩 몸의 왼쪽이 저리는(마치 발이 잠든 것처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무슨 문제인지 문의했더니 예상되는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MRI 를 찍어볼 것을 제안했지만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11 년 겨울, 싱가포르 새 캠퍼스에서 가르칠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예일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몸의 왼쪽 전체가 끌리는 느낌이 들었고,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고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걱정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실 신경학적 증상은 단기간에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사소한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스턴에 있는 매스 제너럴 병원에 가서 MRI 를 촬영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청구되었지만 사실상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1 년부터 2018 년 사이에는 운동 조절 능력에 분명한 퇴행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옷을 입는 데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며,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도 귀찮은 일이 되었습니다. 타이핑 속도가 느려졌고,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옷을 잡아당길 때 넘어질까 봐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나중에는 잠을 잘 못 자고 귀가 울려서 오랫동안 누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었고, 교수님들은 제가 살든 죽든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수원 캠퍼스로 가는 고된 통학은 점점 더 싫증이 났습니다. 수면 부족과 컨디션 문제도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단순히 그곳의 문화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아내가 이전보다 더 짜증을 내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경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녀도 18 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지 않았다면 심리적 부담은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 패턴이 나빠지고 귀가 울리는 것이 괴롭힘의 결과인지, 다양한 저수준 에너지 빔을 사용하여 수면을 방해하고 장기간에 걸쳐 신경계를 손상시킨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에 관한 문서가 NSA 에 의해 기밀 해제되었습니다. 제 증상은 문서에 기록된 유사한 괴롭힘과 유사하며, NSA 는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여 표적이 된 시민의 건강을 괴롭히고 손상시켰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그러한 괴롭힘에 대한 문서 외에도 중국이 고주파를 사용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인을 공격한다는 미국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의 그러한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었지만 미국 자체가 그러한 관행에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괴롭힘을 당했는지, 어느 정도였는지는 기밀 문서에

접근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종의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한 사람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2016 년 이후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과 문제를 일으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동안 주관적으로는 최악의 불면증과 귀울림을 경험했다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당시 제가 그러한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 괴롭힘을 막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형태의 괴롭힘이 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가해자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더 심한 형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타협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괴롭힘, 의도적인 신경학적 상태 손상,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심각한 신경학적 상태의 자연스러운 결과의 전체 과정은 궁극적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

한국인 및 전 세계 독자를 위한 글쓰기

2011 년부터 2017 년까지 제 한국에서의 커리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작가로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작가가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위한 첫 번째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턴트로 일하거나 고문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런 일을 잘 하긴 했지만 큰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저에게 적합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제 활동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되 강의와 글쓰기는 가능한 활동으로 열어둔 기밀 권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 아니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이슈에 대해 직설적으로 글을 썼고, 그 글들이 주요 일간지에 실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도 않았고, 그동안의 삶에 지친 아내가 취직도 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몇 가지 독특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동안 저는 노틸러스 연구소의 외교 정책 전문지 Foreign Policy in Focus 에 글을 기고했고, 그 중 일부 글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전에 도착한 후 저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솔브릿지에서 일만 잘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신문인 대전일보에 기사를 썼고, 과학기술 관련 일간지인 대덕넷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널리 읽혔습니다. 제가 쓴 기사 중 일부는 기술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2010 년 <매경 비즈니스 위클리>의 칼럼니스트 제의가 들어온 것이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제가 쓴 글은 다른 칼럼보다 더 흥미롭고 지적으로도 복잡했습니다. 결국 여러 주요 신문에 폭넓게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3 대 일간지 중 하나인 동아일보에 글을 쓰기 시작한 2013 년에야 비로소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밀 제한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수백 편의 기사를 쓰면서 독자를 확보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한국에서도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 년 가을, 저는 발행부수가 많은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의 기고자가 되었습니다. 제 세 번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4 년 봄에 중앙일보에 글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6 년 동안 매달 글을 썼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은 한국에서 널리 읽혔고, 다른 매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은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매체에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시대 이슈에 대한 짧은 기사를 신문에 기고하고, 번역하고, 편집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국인의 정상적인 길이 막혀 있던 한국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분명 장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물론 영어로 된 기사도 게시했습니다. 여러 번의 성공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출판 프로세스가 잘 갖춰진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각 독자를 위해 글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언제든지 3 개 국어로 번역하고 편집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 글을 기꺼이 게재해 줄 한국, 일본, 중국의 주요 신문사 편집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두 편의 기사가 큰 차이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한국어로 수백 편, 중국어로 약 120 편, 일본어로 50 편을 썼어요.

그 결과 작가로서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잔인한 분석으로 문학적 감각을 가미한 글을 쓰는 법을 배웠죠. 창의성과 냉철한 분석이 결합되어 한국에서 제 명성을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책과 기사를 쓰면서 중국어로 된 책도 썼습니다. 2012 년에 원고를 시작했지만 2015 년이 되어서야 실제로 출간되었고, 2016 년에 홍콩의 대형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쿠아하이 치우젠(진실을 찾아 바다를 건너다)'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자서전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국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많은 부수를 판매하지는 못했지만 PDF 로 널리 배포되었고, 중국의 많은 저명한 학자들에게 선물로 보냈으며, 많은 학자들이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책이 호평을 받으면서 아시아를 연구하는 저를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로 쓰여지고 중국 독자를 대상으로 한 책으로서, 판매나 시장, 정부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는 책으로서, 이 책은 독특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숨겨진 잠재력을 다룬 세 번째 책을 집필하는 데는 아시아 연구소의 중심이 될 왕선택 YTN 기자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한국 문화가 가진 잠재력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왕선택은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유용한 사례를 많이 추가하여 제 주장을 더욱 강력하고 인상적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에 특별한 동질감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냉소적인 정치공작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사려 깊은 사람이고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새 애니메이션 영화 오프닝에서 그녀를 처음 봤어요. 당시 제 딸 레이첼이 다니던 초등학교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만난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많은 정치인들에게서 보았던 것 이상의 어떤 공감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한 달 전인 2015년 10월, 저는 박 대통령이 미국인들과의 만남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안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가 나가기 사흘 전쯤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커피 한 잔만 할 수 있겠느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제 기사 초고를 보고 누군가를 보내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기사를 꽤나 좋아했던 박 기자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비서실장을 만나 방일 일정의 복잡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하는 일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방식으로 한국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이 제 조언을 잘 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부터 점심식사에 초대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문 외교관인 주 수석은 제가 한국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고, 정부가 불필요하게 접근하기 어렵고 비밀주의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와 대화하는 것이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주로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현재 외교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그에게 제 책 <한국인이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박 대통령도 그 관심을 공유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제가 쓴 다른 글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 달 후 제 3 자로부터 주 씨가 청와대로 돌아갈 때 박근혜에게 책을 건넸고, 박근혜가 바로 자리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책과 제 글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책이 한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주 씨로부터 개인 휴대폰으로 또 한 번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같은 날 저녁 코리아나 호텔에서 만나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일정이었지만 저녁 8 시까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주 회장은 박 대통령이 제 책을 흥미롭게 읽었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제 제안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한 기자로부터 "박 대통령이 당신을 언급했다"는 내용의 의문의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5 시간이 더 지나서야 컴퓨터에 접속해 기자가 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 책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며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길게 언급했습니다. 과거 한국 대통령들이 자신의 애독서를 공개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은 이 이야기를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었고, 사실상 성공을 거뒀지만 주요 행사에 초대받은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VIP 를 만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독서와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전히 주류 사회로의 진입을 최우선 과제로 여겼습니다. 제한된 기간 동안 주어진 엄청난 도약이었고, 해외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던 저를 한국에 대한 주요 논객으로 자리매김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청와대 관계자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정부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제 생각을 강연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련의 강연에 초청받았고, 정부 내에서 널리 논의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네 차례의 강연을 끝으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60 명의 고위급 장군과 제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기타 새로운 위협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 연설을 준비하고 편집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법무부, 외교부 및 기타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설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경제 불공정, 기후 변화 등 제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정권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민간 싱크탱크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대통령이 애독하는 책으로 인정받고 각계각층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고 있는 이 미국인에 대해서는 외신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고, 결국 <코리안 헤럴드>에서 저와 짧은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제가 세계적으로 상당한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박 대통령의 영향력, 나아가 한국의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강연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거버넌스의 본질과 윤리적 의무에 관한 에세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진지하게 써내려가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링크처럼 글을 쓰고 싶다"고 말했던 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연설문은 문체적으로는 불완전했지만, 단순히 예측 가능한 기분 좋은 연설이 아니었다는 점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제 글을 돋보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정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한국의 좋은 거버넌스 전통의 힘을 강조하고, 과거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군 장성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오늘날 안보 이슈로서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놀랐고, 제가 박근혜 정부의 많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가 정책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표준적인 '진보적'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위원장을 맡았던 문화융성위원회에도 임명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를 포함해 여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는데, 지금은 사라진 신문에 실린 사진에 제가 중앙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후 각종 금융 스캔들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숙명여대 김상렬 교수가 불법적인 거래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나중에 동아일보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고 문화정책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하자, 그는 지루해하며 금세 대화를 끝냈습니다. 분명히 저는 모든 중요한 비즈니스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이었습니다.

국내 베스트셀러 8 위에 오른 제 책의 성공 스토리가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제가 TV 뉴스에 여러 차례 인터뷰되기도 했지만, 관심은 국내 언론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제 책을 선정하고, 이후 뉴욕 리셉션 등 세 차례의 공식 행사에서 책에 대한 언급을 한 것도 해외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에 영문으로 실린 저와의 인터뷰 기사가 한 번 있었고, 몇 달 뒤 코리아 비즈니스에 실린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극찬하고 베스트셀러가 될 책을 쓴 이 미국인에 대해 한국 외의 외국 언론은 단 한 곳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해외 보도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 기밀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성공이 장기적인 컨설팅 기회나 취업 제안, 한국에서의 연구 지원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재단에

지원서를 냈지만 강연을 하거나 간혹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어쨌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저는 미국의 저명한 기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고,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저명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엄 촘스키와 정기적인 이메일 펜팔이 되었고, 그는 제 학생들과 함께 두 번의 인터넷 기반 세미나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한국어로 쓴 두 번째 책을 위해 그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원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나중에 촘스키에게 제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촘스키는 편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가 편지를 보낸 후 저를 돕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한 후 1992~1993년 마크 셸 영어학과 교수님과 여러 과목을 함께 수강했습니다.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홀로 연구하고 있을 때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아시아 연구소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 한국에 여러 번 오셔서 인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수많은 교수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러 인사들을 만나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시아 연구소의 정우진 소장이 하버드에서 1년간 방문 학자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죠. 이러한 교류를 통해 저는 한국에서

주류에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한국 주류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2015 년 서울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초대하기도 했는데,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제 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조용한 첫 해를 보낸 후 아시아 연구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자주 세미나를 개최했고, 2015 년경에 정점을 찍을 정도로 충성도 높은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 문화와 역사, 비확산, 기후 변화, 기술 발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싱크탱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적은 없지만 의미 있는 토론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성기에는 이벤트에 40~50 명의 청중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중요한 이슈에 집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경희대학교 동문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꽤 성공적이었지만, 경희대 관리자들은 예산이 없어 더 이상 지원해주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홍석현 대표가 설립한 NGO 가 운영하는 오픈 포럼인 W 스페이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희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세미나를 열었지만 장소가 불편한 탓에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2018 년에 비트코인

백만장자가 설립한 커먼즈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아시아 연구소가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만큼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소규모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소액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출장비를 지원받기도 했고, 정부 기관과의 세미나를 통해 연구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아시아 연구소에 소속된 학자들의 수를 늘렸습니다. 존 페퍼와 같은 절친한 친구들은 수년 동안 우리 프로그램의 충실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숙명여대 김형열 교수님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고, 제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제가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병환으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아시아 연구소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큰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형열 교수님은 저에게 아시아 연구를 후원하는 숙명여대 교수님들을 소개해 주셨고, 아시아 연구를 후원하는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김 교수님과 미국에서 귀국한 사려 깊은 젊은 여성 정유진 대표의 노력 덕분에 2015년 서울시 교육청에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말부터 저와 아시아 연구소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류 세계관에

대해 본질적으로 한계에 다다랐고, 제 글은 훨씬 더 비판적이 되었습니다.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강연과 주류 언론에 기고하는 글은 계속했지만, <코리아타임스>에 기고한 글은 미국의 부패, 군국주의의 부상, 기후변화의 압도적인 위협을 고발하는 데 점점 더 강경해졌습니다.

기후 변화를 은폐하고, 사회의 불평등을 무시하고, 군사주의가 부상하는 거대한 사기는 저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었고, 이 추악한 진실에 맞서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제 우정의 범위가 좁아졌고, 어떤 관계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앙일보에서 매우 성공적인 TV 방송을 몇 차례 진행했는데, 제 발언이 그들이 홍보하는 관점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지지 기반을 많이 잃기 시작했고, 언론 보도와 행사 초대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019년에 저는 한국의 노골적인 반일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어쩌면 뉴노멀에 대한 저의 반대가 지나치게 강경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소위 진보 정권에서 더 나쁜 활동을 하는 미국을 한국이 포용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생활의 매력이 줄어들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과의 교류

주로 한국에서 돌파구를 찾았지만 일본, 중국과 의미 있는 담론을 나누며 성공의 순간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제가 2005년부터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교류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일본에서 몇 달간 연구를 하거나 학회에 참석할 때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주는 일본 친구들도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는 새해 인사를 보내면 수십 통의 답장을 받곤 했습니다. 지금은 두세 개 정도만 받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일한 지 몇 년이 지나고 친구인 혼다 히로쿠니가 일본에서 열리는 두 개의 컨퍼런스에 초대해줬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만 결국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 점점 학자답지 않게 변해갔던 것도 문제 중 하나였을 겁니다.

대전에서 과학 정책 관련 일을 한 덕분에 2009년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되었고, 주한 일본 대사관 과학무관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과학자들과 과학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인 교토 STS 포럼에 3년 동안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STS 포럼의 창립자인 오미 고지 전

장관을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저를 초청하는 데 동의해 주었습니다. 잠시 과학기술과 관련해 제가 나아갈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친구인 잭 홀은 2009 년 생명공학 정책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가 오키나와 과학기술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배경 지식은 부족했지만, 한국어와 영어로 글을 자주 쓰면서 한국의 과학 정책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으로 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하토야마 정부 고위 관료들의 과학 정책 세미나에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중앙일보가 약 3 년 동안 제가 매달 기고하는 많은 글을 일본어로 번역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문화, 과학 정책, 외교, 안보, 교육 등의 주제를 다뤘는데, 대중매체에 실리는 대부분의 기사보다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주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상당한 일본 독자층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가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시간을 들여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많은 일본어 기사가 널리 퍼졌습니다. 그 중 일부는 야후 재팬에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허핑턴 포스트 재팬의 블로거로 활동할 수 있었고, 2018 년 12 월에 오픈 블로그를 폐쇄할 때까지 수십 건의 심층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허핑턴 포스트의 소중한 편집자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제 최고의 작품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 일본에서의 글쓰기 경력의 정점은 2015년 12월 일본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저널 중 하나인 *세카이*(‘세계’라는 뜻)에 기사를 써달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저는 일본 평화헌법이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안보의 미래를 여는 선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 대응의 맥락에서 이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일본어로 쓴 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제가 일본에서 다시 자리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강연에 자주 초대받지는 못했지만, 제 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학자, 언론인,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강력한 일본인 네트워크와 연결되었고, 온라인 토론을 통해 그들로부터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동시대 이슈에 대해 일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일본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에 관한 저의 글 "P2P 과학: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에 관한 "P2P 과학: 후쿠시마에 대응하기 위한 세기의 도전"(2013년 9월 3일)이라는 글을 Layne Hartsell 과 함께 작성했습니다.

이 기사는 올해 외교 정책 포커스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10가지 기사 중 하나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환경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P2P 접근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본어로 기사가 나간 후 짧은 기간 동안 저는 일면식도 없는 일본 사람들로 부터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고, 후쿠시마 대응에 관한 정부-학계 위원회에 초대받아 제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락이 끊기면서 대부분의 관련자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당한 에너지와 헌신을 가진 젊은 일본 여성 가와나카 요를 만났고, 그 후 아시아 연구소의 여러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비로 며칠간 후쿠시마를 방문해 후쿠시마와 서울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딸아이의 학교에서는 처음 제안을 거절했지만, 작은 작품집을 만들어 사고 현장 인근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을 만큼의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후쿠시마 출신 혼다 니카라는 학생을 만났고, 그 학생의 도움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단된 배경에는 숨겨진 손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0 년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갑자기 중단되었을 때 저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2015 년 경희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이자 일본에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나카후지 히로히코라는 사려 깊은 청년과 서신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동북아시아에서 실현 가능한 정치 질서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메일을 통해 생산적인 서신을 주고받은 덕분에

후쿠이현 출신의 정치인 이노베 코타(井上浩太)와의 점심 식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 점심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후 두 차례의 후쿠이 방문과 2018 년 12 월 후쿠이에 사무실을 둔 일본 아시아 연구소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그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아시아 연구소를 홍보하고 일본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19 년 5 월 현재 일본 아시아 연구소의 자금은 0 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아시아 연구소를 NGO 로 설립한 것은 상당한 성과였습니다.

2017 년 8 월 4 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후변화 세미나에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일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3 년 이후 일본 정치인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아시아 연구소는 다른 곳에서는 다루지 않는 실제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에게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행사와 일본 언론에 기사가 게재되면서 저와 교류하지 않더라도 상당수의 일본인이 제 연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저와 친구가 되어 여러 차례 일본 방문을 도와주셨던 혼다 히로아키 교수님을 잃었습니다. 2016 년 일본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짧은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우리는 서신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제가 그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다시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 프로젝트를 도왔던 야마모토 호조라는 학생의 소개로 오사카 정치인 핫토리 료이치도 만났습니다. 핫토리는 저에게 오사카의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고, 2017년에는 전 외무성 국장이었던 마고사키 우케루와 함께 많은 청중이 모인 공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핫토리는 그 후에도 다른 작은 프로젝트에도 도움을 주었고, 중국, 일본, 한국, 미국 간의 솔직한 교류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핫토리는 서울과 일본에서 여러 차례 만났던 편집자 가와세 히데유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와세와 함께 2019년 7월 25일에 출간된 『무기와의 작별: 기후변화의 위기와 일본 평화헌법』의 원고를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저와 일본과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어떤 면에서는 2004년 이후 또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수준으로 일본을 제 삶에 다시 끌어들이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일본인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이 책은 일본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주요 서점에서 판매되었으며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 책의 성공과 함께 아시아 연구소가 후쿠이에 사무실을 갖춘 비영리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서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들, 특히 아시아 연구소의 연구원이자 절친한 친구인 가와나카 요와 함께 활동했던 레이와 신센 구미의 활동가들이 부상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행동 재팬과 함께 일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덕분에 일본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허핑턴포스트 재팬에 글을 쓸 수 없더라도 일본 독자들을 위해 더 많은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책이 출간된 후 저는 딸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본에 대한 저의 비전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책의 내용을 싫어했지만, 정부 및 산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제 주장에 큰 공감을 표했고, 2001 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과의 교류가 증가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

중국에서의 발전도 상당히 더디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중국보다 일본에서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솔브릿지와 경희대에는 진지한 중국인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몰입할 수 있었죠. 한국에는 제 주변에 그런 일본인이 없었거든요.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글을 쓰는 일은 여전히 저에게 매우 중요했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 학생 및 교수들과 중국어로 이야기할 기회를 찾다 보니 가끔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어로 쓴 자서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를 다 쓰지 않았을 때, 중국어로 책을 출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솔브릿지에 열정적이고 똑똑한 첸 멩룬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가 처음부터 원고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3 년 동안 쉬지 않고 중국 관련 책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중국 관련 작업에 관심을 가져주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간단치 않았습니다. 책에는 돈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책을 팔아 약간의 현금이 있었고, 2014 년에 중국어판 책을 인쇄해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공감할 만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책 제목은 '진실을 찾아 바다를 건너다'라는 뜻의 '쿠아하이치우젠(海海奇脈)'이었는데, 제 어린 시절 경험, 중국 문화와의 첫 만남, 중국의 미래 잠재적 역할에 대한 미국인으로서의 관점 등을 다루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 중 일부는 한국어로 쓴 글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원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중국어로 쓴 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준 작지만 중요한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보내주신 교수님들 중에는 2000 년에 인터넷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학자들로부터 사려 깊은 편지를 받기도 했고, 몇몇

신문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큰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가끔씩 컨퍼런스에 초대받기도 했고, 중국에 있는 지인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편집자인 왕핑과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어서 쉽게 작업을 조율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명한 교수님들께 책을 보내드리기 위해 많은 사비를 들이고,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분들의 연락처를 얻기 위해 온라인 검색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16 년 한국의 인기 신문인 아시아투데이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시아투데이는 중국 검색 엔진인 바이두와 계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쓴 기사와 중국어 방송이 바이두를 통해 중국 전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페이스북 공화국'을 옹호하는 제 기사의 경우 중국에서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두는 해당 게시물을 중단할까도 고려했지만, 콘텐츠의 가치 때문에 결국 게시물을 계속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이두에 기고한 글과 중앙일보에 중국어로 기고한 글은 저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다루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해주었고,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어주었습니다. 물론 이 글들이 주류 언론에 실린 것은 아니었지만, 독자층은 상당했고 때로는 한국에서의 독자층을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공산당 내 떠오르는 인물인 에릭 리가 운영하는 중국 블로그 관차제('관찰자'라는 뜻)에 제가 쓴 글 두 편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에릭을 만난 적이 있는데 꽤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다이어루)에 관한 것으로, 2016년 9월 28일 관차저에 "중국의 꿈, 서구화인가 변혁인가?"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변화와 환경 위기 해결의 열쇠는 중국의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기반을 둔 이 프로젝트의 새로운 비전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지속가능성 전통이 서구의 재앙적인 석유 기반 소비 경제보다 일대일로의 미래에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에서 자주 인용되었고, 제가 쓴 그 어떤 글보다 제 입지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기사가 관차저에 게재된 후 온라인 검색에서 제 기사가 더 많이 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글인 "중국 싱크탱크는 서구를 모방하기보다 고유의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는 제가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싱크탱크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직후인 2018년 2월 3일 관차저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중국이 미국 싱크탱크가 저지른 실수를 피하고 한나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중국의 오랜 싱크탱크 전통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싱크탱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수위안).

그 후 듀오웨이 뉴스에서 저를 정규 칼럼니스트로 영입해 주었고, 번역 비용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중국 독자들을 위해 글을 게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 기사를 쓰고 고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게재했다는 것이 다소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옳든 그르든 중국에서 충분한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다른 기회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책을 중국에서 출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차례 잠재적 출판사를 만나러 다녔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고, 결국 중국에서 책을 출판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시아 연구소의 이름으로 300 부를 인쇄했습니다. 2018 년 11 월에 중국의 여러 학자와 인사들에게 책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결국 2019 년 3 월에 시안다이원화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원고의 제목은 '웨이라이 중귀 관우 렌레이 유 디추 밉윈'(미래의 중국: 인류와 지구의 운명'이라는 뜻)이었는데,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중국에는 11 년 동안 함께 일한 친구 왕핑과 그의 친구이자 헤이룽장성에 있는 차이신으로 구성된 매우 강력한 편집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번역가이자 편집자였고, 왕핑은 제 책의 레이아웃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책 원고는 전문 출판사의 도움 없이도 매우 훌륭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현대 중국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도 서구의 기준에 뒤처지지 않는 에세이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8 년 중국에서 열린 여러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고, 2019 년 5 월 15 일부터 16 일까지 중국사회과학원(CASS)에서 열린 '아시아 문명의 대화 컨퍼런스'라는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받았을 때는 제 위상이 크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10 월과 11 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여러 주요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언급되며 서서히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일주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기회나 장기적인 공동 연구 기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두오웨이 뉴스에 실린 제 기사는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했고, 저는 평론가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저명한 외국인이 되지는 못했고, 중국에서 큰 돈을 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 년 이후 중국 관련 글쓰기는 중단되었고, 중국인과의 교류도 소수의 사람들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진행 상황

2015 년 예일대와 프린스턴대에서 획기적인 강연을 한 이후에도 미국과의 관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부 관계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어떤 컨퍼런스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취업 가능성에 대한 문의는 후속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과 똑같이 차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2001 년 하버드에서 강연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연구소는 주한 미국 대사관과 함께 꽤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저는 몇 차례 대사관 관련 행사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클럽에 복귀하는 것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에 돌아온 2019 년보다 2007 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예일대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대학의 동료 및 가족과의 관계는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를 음해하기 위한 거대한 범죄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거짓 고발하는 데 동의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기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가족은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떤 논의도 피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저는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했고,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국가 안보 서한이나 저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징역형과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협박성 문자를 받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는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원고를 쓰기 시작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 위기에 대한 가족과 동료들의 침묵에 대한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2014~2015 년에 이전 투쟁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완전히 무시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진실 및 화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진실 캠페인은 2004 년에 가족과 몇몇 친구들에게 보낸 일련의 편지 형식으로, 약 4 페이지 분량으로 저에게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규모는 꽤 분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 편지에 전혀 답장을 하지 않았고, 만났을 때 저와 어떤 대화도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2006 년에 한 번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일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가족들이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 그대로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가족이었지만, 그녀 역시 많은 것을 물어보기를 주저했습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대화에서(물론 진정으로 믿지는 않으셨겠지만) 제가 가진 자원이 부족한 것은 제가 학자가 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 주장은 짜증스럽고 명백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6 년이 되자 그들은 참을 수 없었고 저는 그를 전혀 만나지 않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새어머니인 제이미가 언니인 안나가 제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은 제가

언니의 삶에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언니의 삶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며 언니의 고민에 최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은커녕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니다.

2017 년 만나와 제 동생 마이클이 아들 벤자민에게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런 노골적이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충분히 지쳤습니다.

정신 질환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게 대응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제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제 가족도 음모에 가담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릴 방법을 찾기 위해 16 년이라는 시간을 썼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족, 친구, 동료들은 약 20 년 동안 범죄 음모에 협력해 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를 도와줄 수 없거나 심지어 저를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편지를 받았다면 저는 그것을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와 함께 숲속을 산책하며 이 사실을 알려줄 방법을 찾아주기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저에게 명백히 범죄적이고 비윤리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결코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니다. 2016 년이 되어서야 저는 그들에게 역사적 기록을 위해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완전한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원고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2014~2015 년 캠페인은 제가 2004 년에 시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오미 클라인, 코넬 웨스트 등 저명한 학자, 언론인, 기타 저명한 인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저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제 요청을 의도적으로 거절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여러 단체에 제 사건에 대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편지를 보냈던 저명한 인사들로부터는 말 그대로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의 경우, 그녀의 비서가 저에게 전달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은 진보적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리노이 대학교의 동료들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과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120 여 통의 편지 중 약 6 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지했지만, 모두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편지를 그대로 옮기지는 않겠지만, 동료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정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답장에 담긴 우스꽝스러운 주장은 제 분명한 편지에 대한 대부분의 추악한 침묵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에게 답장을 보낸 동료들 중 누구도 제가 그런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왜 저에게 이런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여러 차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어머니가 적어도 제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신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인 폴도 여러 차례 제 말을 경청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황의 심각성과 문제의 중요성(군사주의에 반대하고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제를 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5 년 또는 10 년의 로비와 설득을 통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키워낸 미국의 중상류층 지식인 계층 전체와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지만 거짓의 그물에 휘말려 계셨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미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었고,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지만,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일대, 하버드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한 후에는 미국에서 다시는 연설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5 년 이후에도 아시아 연구소를 통해, 그리고 나중에는 뇌교육대학을 통해 기회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일본에서도 강연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학계와의 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한때 제 인생에서 일본 교수진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매우 부자연스럽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017년 1월에 서울에 있는 저희 가족을 보러 오셨습니다. 방문을 연기해달라는 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과 달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제가 겪은 어려움이나 아내와 아이들이 겪은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벤자민이 겪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그는 벤자민이 겪은 일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치료사를 만나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한계에 도달했다. 아버지는 저에 대한 범죄 행위를 피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가 자신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저와 제 가족에게 무슨 짓이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화로 극히 제한적으로 교류했습니다. 동생인 마이클과도 가끔 통화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노골적인 범죄 행위는 그 어느 때보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가족이 저에 대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들이 비밀법이나 권고에 따라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는데, 그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학자라는 이유만으로 돈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제 모든 실제 업적을 무시하는 가족을 보면서 평생을 엄청난 거짓말을 하며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비극에 빠지기보다는 (이 글을 쓰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관계를 끊을 의향이 있었습니다.

2018 년 11 월에 아버지가 제게 편지를 보내 제 가족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답장을 보내 제 일에 대해 기꺼이 말씀드리겠지만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제 직속 상사와의 비밀스러운 교류와 제 정신 질환이 제 동의 없이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된 과정에 대해 제가 제기한 질문에 답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이 너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교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고, 다음 단계는 전체 이야기를 공개하고 전국적인 토론을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거의 접근하지 못했고 미국 학계 활동에서도 배제되었지만,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에 계속 글을 썼고 그 중 몇 편의 글은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존 페퍼와 함께 외교정책포커스(Foreign Policy in Focus)에 기고한 "태평양 피벗에서 녹색 혁명으로"(2012 년 10 월 4 일자)라는 제목의 기고문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제안한 군사적 '아시아로의 재균형'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군대 전체가 전쟁 사업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2012 년 초 노엄 촘스키와 나눈 서신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당시 저는 군의 역할과 '안보'라는 용어를 완전히 재정의하여 현재의 논의와 예산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촘스키는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저는 공군은 더 이상 전투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 오염을 막고, 해군은 해양 오염을 막고, 육군은 토양을 보존하는 데 전념하는 새로운 개념의 군대를 설명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개념은 매우 독창적이었고, 이 기사가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3 자가 한 번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3 년 3 월 7 일에 발행된 트루스아웃에 "기후에 대해, 국방은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더 자세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더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와 관련해 군과 외교부 내 여러 사람에게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협력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운 좋게도 훗날 아시아 연구소의 일원이 된 다니엘 가렛이라는 전직 외교관으로부터 친절한 메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리고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당시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새뮤얼 J. 로클리어 3 세 제독이 제 기사가 발표된 바로 다음 날 하버드와 터프츠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보스턴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사상 처음으로 군 고위급 장교가 지구 온난화가 "아마도 우리 모두가 자주 이야기하는 다른 시나리오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안보 환경을 마비시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성명은 앤드류 듀잇 교수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군 내부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성명이 발표된 시기와 얼마 지나지 않아 로클리어가 군사주의자 해리 해리스로 교체된 것은 기후 변화에 대한 위협이 감지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제가 쓴 글(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로도 작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독자를 확보한 또 다른 기사(존 페퍼와 함께 쓴 글)는 "미국의 자생적 테러"(2014년 4월 7일, Foreign Policy in Focus)로, 미국 인프라의 붕괴와 이러한 상황이 결국 미국을 무릎 꿇게 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고전문학에 관한 학술서 두 권을 미국의 학술 출판사에 출판하려고 했을 때 받은 반응은 너무나 부정적이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서울대 출판부에서 두 권의 책을 출간했고, 이후 다시는 미국에서 책을 출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책을 출판하는 것은 비밀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년이 되자 저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어떤 것도 관리할 수 없고, 회사도 창업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창업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허비한 셈이었죠. 다른 활동 없이 가끔씩 세미나를 여는 아시아 연구소가 최선의 대응책이었죠.

글쓰기는 제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분야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 심지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글쓰기는 저의 주된 활동이 되었고,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 정치, 안보, 경제에 관한 중요한 글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행정가가 되기 위해 노력한 지 10 년이 지난 후, 저는 제 적성이 학술 논문이 아닌 저술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 년 7 월 이후 코리아타임스는 제가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가 되었고, 제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쓸 수 있었으며, 제가 쓴 글에 대한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빅터 차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과 같은 인사들을 둘러싼 심각한 부패에 관한 제 기사는 편집 없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미국, 아니 그 어디에도 게재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부정부패에 대한 저의 분석은 나쁜 사람만 부각하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소위 '진보'

언론의 분석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을 1940년대 유럽에서 벌어진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정과 비교하며 그 부정이 훨씬 더 범죄적이라고 주장한 '홀로코스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사이의 불편한 유사점'(알렉산더 크랩과 함께)이나 '미국의 특이한 죽음 제도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와 같은 직설적인 기사를 한국일보가 어떻게 게재하도록 허락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노예제도의 제도적 범죄성과 화석 연료의 범죄성을 강력하게 비유했습니다.

제가 쓴 "미국의 사이코패스 정치"(2019년 2월 2일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광범위한 정치적 부패에 대해 설명한 기사로, 미국 정부가 민주당의 미약한 개혁을 일종의 혁명으로 포장하려던 바로 그 시점에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다른 어떤 진보적 언론도 그런 분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제 작업을 지지해준 한국의 용기 있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급한 수준의 괴롭힘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출처는 모르지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에 '아시아에서 미국의 새로운 역할'(2014년 1월 1일자)이라는 글을 기고했는데, 이 글에서 미국의 한국 내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미국의 안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미국의 역할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보수적인

한국 신문이 이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저의 견해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직후 여러 미국인들로부터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고, 한국인들로부터도 다소 위협적인 댓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저를 상대로 벌여졌던 것과 비슷한 캠페인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6년 트럼프가 집권하고 부시 정부에서 활동하던 극우파가 다시 정권을 잡은 후 괴롭힘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저의 태도는 그의 임기 4년 동안 오락가락했습니다. 때로는 극도로 위험해 보였고, 때로는 반세계주의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를 떠나며

2017년 11월, 제가 그 유명한 경희대학교를 떠나 천안에 있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뇌교육종합대학에 합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경희대 구성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낯선 대학으로의 전학은 경희대 내에서 오랜 시간 소외된 과정의 정점이었습니다.

설립자 사망 이후 경희대학교는 등록금 수입, 기업이 선정한 SSCI 학술지 논문 게재, 기타 왜곡된 성공 지표에 점점 더 집중했습니다. 경희대는 무자비한 기업이 되었고, 경제학과 국제관계학 강의는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후 변화와 군국주의, 부의 집중,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한 이슈는 회의나 교수들 간의 대화는커녕 수업 시간에도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후 변화와 핵전쟁,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의 파시즘 정치로 인한 위험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점점 더 급진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다른 지식인들이 침묵하는 것에 점점 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2004~2006 년에 채택했던 군사주의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자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주류로 돌아간 저의 짧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결코 주류에 다시 합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타협의 가치에 회의적이었고, 제 활동을 제한하는 기밀 지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경희대에서 가르치는 것이 즐겁지 않았고, 학과장이 기후변화 강의를 폐지하려고 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학장님과 교수 회의에서 기후 변화, 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 교수 평가 방식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학과장은 그런 회의를 허용하지 않았고 다른 교수들도 침묵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을 목표로 국내의 다른 교수직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에게 자리를 제안한 곳은 뇌교육종합대학원이었습니다.

뇌교육종합대학은 중재의 대가이자 영적 지도자인 이일치 선생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사려 깊지만 복잡한 인물인 이일치는 한국 기독교의 주요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인해 기독교인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불교인들에게도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혼합주의적 접근을 통해 사회의 영성 증진을 위해 깊이 헌신했으며, 매우 근면하고 창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접근 방식이나 방법론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제 교육과 업무에서 기후 변화와 환경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일치 리는 저와 기후 변화에 대한 저의 연구,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을 동원하려는 저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제 글을 높이 평가했고, 정교수 직책과 그에 상응하는 급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적인 커뮤니티의 실제 직책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채용하려는 다른 대학이나 단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뇌교육종합대학이라는 큰 조직을 뒷받침하는 단월드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활력과 품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는 실제로 있었지만, 우익 세력의 배후에서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2015 년 이일치 선생님이 제 책 <한국인이 무지한 대한민국>에 대한 강연을 위해 저를 국학연구원(이하 국학원)에 초청하면서 이일치

선생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즉시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기 직전인 1997년에 단월드에서 요가를 수련했는데, 그때 단월드 프로그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강연 이후 서울 경복궁 센터에서 다시 수련을 시작했는데, 운동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한동안은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운동을 했어요.

저는 2018년 3월부터 뇌교육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학생들과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제 대학원생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학생들을 한국의 주류 대학에서 교직에 배치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 많았고 제게는 큰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주제(특히 기후변화)에 대해 글을 쓰고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폭넓은 지원을 받았고, 경희대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깨달음, 운동, 명상 등이 저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후 변화와 국제 관계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건강을 해치더라도(신체적 폭력이나 장기간의 괴롭힘, 열악한 생활 환경 등) 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시 미국의 극단주의 행정부 아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범 해리 해리스가 대사로 임명된 후) 저는 더 이상 미국 대사관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외교관들과 대화하는 것을 더 이상 즐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주류 그룹과 대화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저와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다양한 중도 성향의 인물과 단체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 수는 상당했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의 어조는 더 날카로워졌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저와 제 아내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정적, 정치적 부담이 컸지만 입장을 표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였습니다.

2017년에는 기술과 한국의 도전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또 다른 성공적인 한국 관련 책을 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허재현 기자와 함께 한국 통일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2월부터는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취업 기회를 다시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7 장

워싱턴에서 한국으로

저는 2019 년 8 월에 온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12 년 전부터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원했고, 이주를 결심할 때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겪은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면 서울에 있는 것이 반드시 더 낫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 아시아 파트너스라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이 회사가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8 년 8 월에 일본어로 된 책을 출간하면서 15 년 만에 처음으로 폭넓은 일본 독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9 년 2 월에 워싱턴 DC 를 방문했을 때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 이상 중앙신문의 기고기도 아니었고, 수입을 보장해 주던 각종 강연도 끊겼습니다. 저는 제 미래가 한국을 넘어 일본과 중국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본과 중국의 발전이 저를 이런 생각으로 이끌었지만 결국 오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진보 인사들의 노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 년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가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기후변화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의도적으로 반대했고, 자신들이 수용했던 미국의 정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신세대 진보주의자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부진한 상황에서도 한국이나 일본을 뛰어넘는 규모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있었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는 제 생각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8 년 말, 우연히 인터넷에서 영국에서 기후 변화에 반대하는 효과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인 멸종 반란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로저 할람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입장에 공감했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저에게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몇 차례 메시지를 보낸 끝에 로저와 연락이 닿았고, 장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많은 시청자들에게 방송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멸종위기종복원협회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차례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멸종위기종복원운동에 저를 위한 커리어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단체와 함께 일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 작업에 큰 열정을 보였던 멸종 반란은 제게서 한 발 물러나 말 그대로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은 물론 일본, 베트남, 중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미국에서 기회를 찾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몇 년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위치에서 아시아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혼란이 저에게 진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2019 년 8 월에 워싱턴 DC 로 갈 수 있는 지하철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맥클린에 집을 구했습니다. 아내는 학군 때문에 그 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가족으로 재회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몇 주 만에 일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이었죠. 두 명의 한국인이 준 돈과 중국에서 출간한 책의 인세, 그리고 일본의 지원금도 있었지만 큰돈은 아니었어요.

아내는 한국에 도착한 직후 여러 차례 심각한 정신적 쇠약을 겪었는데, 그중에는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위해 불길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으로 보이는 무속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녀는 무당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독살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음식을 버리고 특정 종류의 생수만 마셨어요. 이 숨겨진 위협은 그녀를 너무 괴롭혀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배후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술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직면한 엄청난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고,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기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2019 년 말의 상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아 연구소에서 개최한 세 차례의 주요 세미나가 상당한 관심을 끌었고, 그 중 세 번째 세미나는 주요 싱크탱크의 행사만큼이나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수혁 한국 대사는 저를 다시 한국 대사관에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는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책으로 채용했습니다. 저는 홍석인 공공외교부 장관을 여러 차례 만났고, 홍석인 장관의 보좌관과 함께 2020 년 1 월부터 근무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새 직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온 또 다른 친구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6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성공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작전이 시작된 12 월 말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20 년에 워싱턴 DC 에서 쫓겨난 것은 세계주의 의제에 반대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019 년 12 월부터 워싱턴 DC 의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지만 저는 계속해서 기사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번역이나 편집 등 일거리를 찾으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과 워싱턴 DC 의 거버넌스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본 군 장교부터 미국 로비스트, 정부 관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저와 함께 일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의 기회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0 년 1 월이 되자 저는 말 그대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신용카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승은이의 정서적 붕괴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승은이는 저도 모르게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어머니, 사촌 매니는 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내어 오빠 마이클과 사촌 매니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경청했지만 어떤 의견이나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앤드류 하이드는 한국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여러 행사를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의 민디 코틀러 소장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함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의 무지를 가장한 행동에 대한 저의 인내심은 2001 년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시작한 지 20 년이 지났고, 나는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2020 년 2 월 초가 되자 빛은 쌓여만 갔고 어디서도 갇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과 도쿄(2 월 18~27 일)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고, 비행기 티켓도 구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미 코로나 19 에 대한 방역에 대한 불길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마치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2 월 12 일쯤 오빠 마이클이 커피 한 잔 하자고 저를 초대했어요. 그는 제가 미국에서 일할 수 없으니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자리를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 레이첼과 벤자민을 당분간 함께 살게 해달라고도 했어요.

기괴한 논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한 조언이 아니라 정치적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시아 여행 중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저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는 것은 워싱턴의 정치 환경이 그만큼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오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매우 불쾌한 상황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상하이에서 예정되어 있던 강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새 책을 한국어로 소개하는 강연을 위해 서울에 도착했는데, 전날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친구 몇 명을 만나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했습니다.

도쿄에 가서 일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환경 정책에 대해 강연할 수 있는 기회도 아무 문제 없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나 한국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시부야의 저렴한 호텔에 머물면서 일본인 친구들도 몇 명 만났고, 일본 외교관도 만났어요.

일본에서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2020년 2월 22일 워싱턴 D.C.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취업 기회가 전혀 없었고 일본에서도 일자리가 없어 비행기를 취소하고 남은 돈으로 서울로 돌아와 친구로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살 수 있는 방을 약속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수년 동안 여러 차례 흥미로운 토론에 저를 초대했던 나영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한국에서 저를 도와줄 준비가 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공항에 마중 나와 서울 북쪽 평창동 언덕 위에 있는 저택의 차고에 딸린 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방은 한국 무속인(남성)이 소유한

작은 아파트 옆에 있었는데, 그는 제가 필요한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은 좁고 난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화장실은 얼어붙은 문을 통해 옆집에 있었고 요리할 방법도 없었고 주변에 상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네는 꽤나 쾌적했고 저는 기차역까지 걸어서 30 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2001 년과 맞먹는 규모로 다가오는 이 새로운 위기에 대해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 워싱턴 DC 에 있는 제 아이들과 동생과의 대화를 통해 가족에게 닥친 재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2 만 달러에 달했고 심리적으로 엉망인 아내는 계속 돈을 썼습니다. 제 동생은 아내가 고통받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좋아했고, 아내가 즉시 집을 떠나지 않으면 (심리적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이클은 레이첼과 벤자민을 데려왔지만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련의 협박을 통해 어머니의 의사에 반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강요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마이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코로나 19 가 시작될 무렵 갑자기 제가 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돈도, 소유물도, 시간도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니 뭔가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적과 함께 찾아온 깨끗함은 저에게 어떤 명료함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며 한국인들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영철이 주선한 몇 차례의 회담으로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돈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별로 도움이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집을 떠나기 전에 집을 청소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 장애가 있었고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3 개월의 집세가 들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신용카드로 청구했기 때문에 결국 빚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체비 체이스의 부유한 동네에 있는 형의 넓은 집에서 형과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돈도 없었고 아이들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제도적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적어도 한국에서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는 2021 년 3 월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를 강제로 출국시키려고 위협과 협박을 일삼던 오빠의 강요에 못 이겨 비행기를 탔던 것입니다. 아내는 지치고 아픈 몸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직장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었으며, 누구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많이 변해서 소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에서 회복될 때까지 기도와 명상을 할 수 있는 사찰에서 스님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 것 같았습니다. 불교는 이전에도 그녀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 함께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전라남도 목포 근처에 있는 미황사에 그녀와 제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주지스님은 우리가 원하는 기간만큼 머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기차를 타고 목포로 가기로 했어요. 승은이를 만나러 갔더니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집에 있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다. 가족의 도움 없이는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데 같이 살자고 거부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먼저 나 혼자 미황사에 가서 나중에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는 전화로 곧 오겠다고 했다. 그 후 두 번이나 서울에 가서 그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오지 않았다.

저는 한 달 넘게 절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를 위한 연설문과 현안에 관한 기사를 더 많이 썼고, 이른 아침과 저녁에 사찰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수도원장님과 앞으로의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저 자신을 재구성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가진 것이 없던 저로서는 모든 재산을 포기한 스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한 인물들이

종종 사찰로 피신하는 한국 문화와도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절은 1590 년대에 이순신 장군이 침략한 왜구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던 진도 섬과도 가깝습니다. 머무는 동안 진도에 다녀온 짧은 여행은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이순신에 대해 더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며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속인이기도 한 한국인 친구가 4 월부터 2 주간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 머물 수 있도록 주선해줬어요. 저는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1 년 동안 저는 아홉 번이나 이사를 다녔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몇 주 동안 살게 해준 방을 전전했고, 때로는 하숙집의 저렴한 방을 전전했습니다. 생활은 다소 불안정하고 불확실했지만 자유로움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대화를 하긴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미국에서 동생이 보내준 물건도 있고, 뇌교육대학에 있던 옛 사무실에서 가져온 물건도 있습니다)은 모두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한동안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5 월부터 친구와 가족에게 비이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처음으로 이기심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입원할 수 있었고 총 6 개월 동안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녀의 상태는 부분적으로 그녀가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이후 3 개월 동안 저와 함께 살았지만 우리 관계는 영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6 월이 되자 완전히 불안정한 세상에서 새로운 차원의 안정에 도달했습니다. 제 친구 최재정 씨가 미래도시환경연구소라는 연구기관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이죠.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이 직장은 교수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수당 제외)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했던 직책도 아니었고 관심 분야와는 거리가 먼 업무일 때도 많았지만, 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고 대우도 좋았습니다.

마침내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면서 신용카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연말까지 저축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원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가족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회장단 입후보 및 그 이후의 활동

미국 상원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공직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은 1999 년에 처음 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외교가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2020 년 1 월에 코로나 19 파시즘과 미국 제도의 붕괴를 목격했을 때, 저는 위험이 너무 커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2020 년 1 월부터 시작된 저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박해를 감안할 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나 공화당 같은 기성 정당을 통해 미국 정치에 입문할 기회는 없었지만, 후보로서 충분한 관심을 받고, 다른 후보들이 하지 못하는 정직한 연설과 솔직한 제안을 한다면 기밀로 분류되어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미국과 전 세계에 제 이름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권력자들이 제 선거운동을 부당하게 막는 데 지나치게 개입하면, 선의와 헌신만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작전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계획에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저는 선거 연설문 초안을 작성하고 낭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유일한 진지한 대통령 후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2017 년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페이스북 회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머러스한 글에서 저는 페이스북을 기업이 아닌 민주공화국으로 운영해야 하며, 페이스북은 기업 CEO 의 소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2 월 초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17 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약집과 함께 대통령 출마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2020 년 2 월 17 일 한국으로 떠나기 며칠 전 워싱턴 DC 에 있는 몇몇 친구들에게 그 초안을 보냈습니다.

이후 첫 번째 연설문을 다듬어 미디엄(2020 년 2 월 23 일)에 출마 선언문을 한국에서도 한 차례 게재했습니다.

한국에서 몇 주를 보낸 후, 저는 마침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되는 강연을 몇 차례 할 수 있었습니다. 나영철 씨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제가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문일석

의원은 인기 사이트인 브레이크뉴스에 기사와 동영상을 연재해 제 대선 공약을 한국어와 영어로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주선해줬습니다. 박대석 기자도 저와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취재는 제가 기다려온 중요한 돌파구였고, 몇 달 동안 실질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2020년 4월 7일에 한국어와 영어로 게시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은 한국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모든 측면에 대한 연설을 쓰고 전달하는 것이 5개월 동안 저의 주된 표현 방식이 되었고, 그 후 2년 동안은 기사나 책을 쓰는 것과는 달리 연설을 정성껏 만들어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저의 주된 활동이 되었습니다. 각 연설의 초안을 수없이 작성한 다음, 문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혼자서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저는 연설할 때마다 동영상을 녹화하고, 때로는 반복해서 편집한 다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YouTube에 올렸습니다. YouTube에 등록된 연설 동영상 조회수는 50~60회에 불과했지만, 이 동영상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연설이 세련되고, 영감을 주며, 현재의 위기를 이해하려는 미국의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프레드릭 더글러스, 에이브러햄 링컨, 로버트 케네디, 마틴 루터 킹처럼 연설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적 제약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비전과 수사학, 실제 정책에 대한 관심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불가능했고, 미국 내 어떤 단체에도 연설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 검색하면 제 연설문이 대부분 검색되었고, 제가 쓴 글을 읽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메모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9/11 사건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며, 코로나 19에 대한 가짜뉴스를 믿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서 합법적인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저도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웃라이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이 더 깊은 제도적 붕괴 상태로 빠져든다면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제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외교관 채스 프리먼이 운영하는 토론 프로그램인 살롱에 제 출마 선언문을 올렸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워싱턴 DC의 많은 정부 관료와 정책 입안자들이 이 글을 읽었습니다.

나영철은 2020년 4월 이후 제 선거운동을 돕고 싶어하는 한국 내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5월까지 상당한 지지자 그룹이 생겼지만 7월 이후에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제 팀이 될 8 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판돈이 너무 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쳤죠.

그런데 그 중 한 명인 이춘영 씨는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줬고, 제가 조금이나마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후 한 달 동안 다른 뉴스 매체에서 저를 언급하는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연합뉴스의 짧은 기사가 가장 많이 읽혔습니다.

저는 지난 6 월 8 일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정적인 연설을 했고, 그 내용은 여러 블로그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선거운동의 정점은 6 월 15 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공식 출마 선언이었는데, 이 행사에는 미국인 몇 명을 포함해 상당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출마 선언을 위해 그 자리를 예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노력이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연설에 앞서 이부영 전 국회의장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설득력 있고 의지가 담긴 연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긴 했지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연설 후에는 전 내무부 장관을 비롯한 저명한 패널들과 함께 정책 관련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행사를 위해 만든 포스터가 제 뒤쪽 벽에 걸려 있었어요: "미국을 다시 녹색으로", "미국을 처음으로 위대하게", "진실을 추구하고 자유를 수호하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설을 바탕으로 8 월에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 왜 우리에게 진정으로 독립적인 대통령 후보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9 월에 온라인 출판사를 통해 PDF 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 이 책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 약 150 부를 보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출판사에서 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는데 동의해 주었습니다. 저는 저를 지지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수백 권의 책을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주한 멕시코 대사의 도움으로 이 책을 스페인어로 번역해 멕시코에서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3 개월 동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제 캠페인에 개인적인 관심을 보였으나 나중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2020 년 7 월에는 중국어와 베트남어로도 번역본을 주문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몇 달 동안 저에게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주요 신문사와 인터뷰한 것은 베트남에서 한 번뿐이었어요.

2020 년 11 월에 영어판을 출간할 자금이 충분해졌을 때, 저는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 중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에게 80 부를 보냈습니다. 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연구를 도왔던 프랑스의 대학원생 리야드는 제 연설 중 하나를 시작으로 모든 연설을 완벽한 프랑스어로 번역해 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제 캠페인(www.emanuelprez.com)을 위한 정교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사이트에 추가할 내용을 디자인하고 제 연설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사람까지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로 확대된 이 캠페인이 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적은 돈을 들여 독일어, 터키어, 히브리어, 페르시아어, 루마니아어, 폴란드어,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로 책을 번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저는 38 개 언어로 번역된 특정 국가의 관심사를 다룬 책의 서문을 맞춤 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와도 다른 캠페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연설을 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수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던 저는 2021 년 7 월부터 한국 국내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백신, 5G,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인들의 시위를 보게 되었고, 바로 그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단체를 본 적이 없었고, 한국인이 그런 분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순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팬데믹 조사위원회'로 알려진 이 그룹에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진실의 뮤지션' 제노 신은 저와 코로나 19 작전에 대해 인터뷰했고, 저는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 있는 지정학적 요인에 대해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신 씨는 세심하게 영상을 편집했고, 이 영상은 곧바로 유튜브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 영상은 곧 삭제되었다가 다시 게시되었다가 다시 삭제되었습니다. 동영상의 일부분과 대본은 수많은 블로그에 게시되어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 19 에 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분석을 내놓는 한국 내 목소리는 전무했습니다.

영상이 게시된 후 며칠 동안 정치 공작원들이 저를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우익으로 공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 게시물에 대해 알려줬지만 곧 사라졌고 저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계급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저의 비판이 보수 단체와 기독교 단체로부터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덕분에 대구에서 열린 박근혜 지지자 모임에 초대받아 백신을 비난하는 연설을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거는 저에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 월에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는 "나는 좋은 인형극을 사랑한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한 직후에 트럼프나 바이든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저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설에 이어 2021년 1월 20일 취임식 연설에서 저는 국제 금융과 슈퍼리치들의 워싱턴 DC 점령을 비난하고 바이든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글은 처음에는 무시되었지만 나중에 트럼프 지지자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청중을 찾았습니다.

2021년 초부터 '도널드 트럼프를 변호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시작으로, 대안 뉴스의 선두주자로 명성이 높은 용감하고 치열한 비판적 블로그인 글로벌 리서치에 많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1년 동안 이 블로그는 제 대선 캠페인 사이트와 더불어 전 세계와 소통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19 백신 체제에 반대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영어로 쓴 글과 함께 새로운 청중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캠페인에서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가 제 메시지의 중심이 되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워싱턴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와 공무원들은 제 이메일이나 전화에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진상조사위원회 지인을 통해 우병우라는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약 6개월 동안 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는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정치적 천재는 아니었고 분명한 한계가 있었지만, 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넘어

한국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도록 돕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한국에서 정당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눴고, 작년 10 월에는 '혁명당' 로고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구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도움으로 우리는 코로나 19 위임장 반대를 위한 진짜 정당을 만들기 위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놀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강력한 연설문과 선언문을 제작하고 매력적인 웹사이트를 디자인했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을 위해 당명을 "더 나은 당"(더나은당)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 월부터 이 멋진 아이디어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당 등록을 위한 첫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300 명의 지지자만 등록하면 되지만, 60 명 정도만 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일이었죠. 우리가 표적이 되어 우리의 존재가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중재자를 기쁘게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1 년 3 월 우 전 수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국 선거운동과 영어 연설문 작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한국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반대 토요 시위에 참석하긴 했지만 2021년 6월 말까지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성년으로, 2018년 한국에서 '칸공산당'을 창당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큰 정치적 위기는 아니었지만 여러 우파 정치 전문가들이 그를 공격하는 데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표면적인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행동, 실제 제도 구축, 혁명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저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에 개방적이었고, 우리는 새로운 정당 창당에 대한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혁명당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였지만, 이미 '혁명당'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다른 우익 단체와 구별하기 위해 앞에 '국제'를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몇 주 만에 우리는 수많은 동영상과 연설문, 정책 발표문을 제작했고 상당한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등록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었고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핵심은 우리 둘이었고, 나중에 박경호 씨가 합류해 한국의 대규모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2021년 5월 25일, 제가 한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미국 임시정부의 출범을 선언하면서 미국에서의 저의 선거운동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구상은 워싱턴 D.C.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일련의 연설을 통해 나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월까지 USPROVGOV.ASIA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이 사이트에서 전 세계를 위한 수많은 정책 결정을 게시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는 임시 정부에 대한 저의 제안을 발표하고 그 연설문들의 출처로 USPROVGOV를 인용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 운동보다 임시정부 법안 집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전체주의의 안개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면서 임시정부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했고, 저를 지지해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연설문을 쓰기보다는 미국프로그정부를 위한 연설문을 써서 그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고, 글로벌리서치에 의해 채택된 연설문은 널리 배포되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임시정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USPROVGOV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광범위한 지지가 없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제 활동의 경우 직접적인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그것이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억압적이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공개적으로 백신 체제를 수용했습니다. 저는 시골로 사라져 몇 년 동안 농부들이 나눠주는 식량으로만 생활하며 살아남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점점 더 생생해졌고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 전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2022년 5월부터 아내와 함께 비교적 성공적으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도저히 좁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2021년 7월에 아무런 예고 없이 연구소에서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입원이 없었고 이 일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번역 일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회를 제안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기치 않게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시골로 떠나 마스크와 백신 없이도 살 수 있고, 필요하다면 친분이 있는 농부들로부터 기본적인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제가 8 월에 시골로 떠나면 분당(서울 남쪽)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언니는 저와 제 결정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어서 2022 년 1 월까지 저와 편지를 쓰거나 대화하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저는 이미 최성년 대표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했고, 우리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송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제가 시골로 내려가 독립 기지를 세우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친구가 낡은 미니밴을 선뜻 팔아줘서 짐을 가득 싣고 8 월 2 일 전주로 출발했다. 옷은 대부분 잃어버렸고, 남은 책 몇 권은 일산에 있는 이양행 친구의 공장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이동할 수 있었다.

다음 행선지를 고민하던 중 단의 친구가 전주에서 몇 주 동안 머물 수 있는 숙소를 구해줬습니다.

경상남도 의령으로 초대를 받아 친구가 잘 아는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골의 오래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매력적이었고 주민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가 살 집을 청소하며 보냈습니다.

이곳은 몇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교 학자의 집이었고, 과거 이 지역에 탄탄한 학문적 전통이 있었으나 도시화로 인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집 청소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 지역 경찰이 노인의 아들과 함께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 마을에 살려면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논의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노인이 우리에게 와서 부엌을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장실 밖에서 씻어야하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간 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친절하게 대해주던 이웃이 찾아와 지난 이틀 동안 청소한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쇼 전체가 엄청난 체면 손상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가 떠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시골로 이사를 고려하던 저는 시골의 작은 집에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체코 출신의 매력적인 남자 티보르와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열렬한 추종자이자 코로나 19 사기에 연루되기를 거부하는 불타는 독립정신의 소유자인 티보르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코로나 19에 맞서 싸우는 자신과 함께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는데, 이는 제가 직접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티보르는 최성년과 잘 어울렸고, 우리 국제혁명당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우리의 많은 정책을 지지해줬으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통일교 철학을 강의해 주었습니다. 박경호도 여러 차례 내려와 우리 당에 합류하면서 중앙 인사가 세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티보르의 집은 작았지만, 우리는 거의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며 코로나 19 에 대한 한국과 전 세계의 대응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살 곳을 찾았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9 월에 갑자기 구시가지의 한 주택에서 작은 방을 발견했는데, 집주인이 흔쾌히 임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지역 교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었고 저희를 지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소 지저분하지만 저렴한 집을 청소하는 데 며칠을 보냈습니다. 2 층은 최성년 씨가, 1 층은 제가 맡았습니다. 조금 더 넓은 1 층에서 정책과 활동을 논의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국제혁명당과 미국 임시정부 웹사이트는 2021 년 9 월 이후 제가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친구들을 잃었지만, 새로운 지지자들을 얻었고, 그 중 상당수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작년 12 월 이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저를 만나고 저의 매우 비판적인 글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고 제게 상당한 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한국어로 공식적인 항의를 하고, 집회를 열고, 백신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위한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여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2 페이지 분량의 IRP 소개서를 나눠주었습니다. 규모가 작아 활동의 한계가 있었지만, 공짜로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2022 년 1 월은 매우 암울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더 이상 식량을 구할 수 없고, 심지어 노숙자가 될 수도 있는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백신 의무 접종 제도가 불안할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서울과 여수에서도 백신 여권이 일부 시행되고 있었으며,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중요한 세미나에 여러 차례 초대받았고, 10 년 만에 미국 대사관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났으며, 한국과 해외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2021 년 10 월에 제 글의 게재를 중단했던 글로벌 리서치(Global Research)는 2021 년 1 월에 갑자기 제 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2 월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관련 연설에 대한 저의 연설은 특히 우크라이나어 자막을 넣고 자결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광범위한 청중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미국-독일이나 러시아의 입장 중 어느 쪽도 믿지 않는 저의 입장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의 위험이 커지고 파시즘이 확산되면서 57 세에 가까운 나이에 이번에는 20 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투쟁은 본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20 페이지는 사건이 서술된 직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잘못된 단어나 잘못된 정보를 편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독자들을 위해 소설을 현재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

이 소설의 집필과 편집은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전문 편집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편집이 이 작품의 본질적인 부분이자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인 서사의 날것과 제 태도의 모순을 은폐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전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고도로 조직화된 기관과 급진적인 반란군 사이를 오가는 부분은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압박감과 그로 인한 심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도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열망과 제도를 통해 변화를 이루고 싶다는 열망을 번갈아 가며 느꼈고, 동시에 제도의 모든 것에 반대하고 급진적인 의제를 채택해야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 성격의 이러한 모순을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전체를 다시 써서 어조와 스타일을 통일하고 싶은 유혹이 컸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모순되는 여러 단계를 거쳤고, 그 모순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급진적인 반항아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저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여 그러한 혁명적 의제를 지지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주류에 다시 합류하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히 존경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 중 일부는 분명히 실수였습니다.

아마도 이 소설은 제가 살았던 시대, 특히 2001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중요한 시기에 대한 역사를 쓰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미국이 직면한 문제의 기원을 케네디 암살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2000년 12월 새로운 부시 행정부가 미국 정부를 폐쇄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 요소를 동원하면서 미국 사회의 모든 측면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제시된 자료가 날것 그대로이고 편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제 3자가 나를 인식하고 싶은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치적 인물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궁극적인 역사는 제가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됩니다.

이 소설에 정확히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이 책은 자서전이 아니며, 18 년 동안 제가 한 모든 일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설에서는 2000 년 이전에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소설의 핵심은 2000 년 7 월 온라인 학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동아시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후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설이 원래 주제에서 벗어났다고 느끼는 독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썼던 4 페이지짜리 요약본에 비해 이야기가 너무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이미 있었습니다.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관심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일상 생활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요약한 내용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부 세부 사항이 친구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설 전체가 허구라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여러 독자들에게 언급했듯이 이 소설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개방형입니다. 결론은 사후에 제 3자가 써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일 죽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물론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이야기가 단순한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후 변화와 세계대전의 결합으로 인해 이 이야기가 실제로는 결코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종종 느꼈습니다.

제 생전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진지하게 다뤄지고, 가까운 미래에 어떤 종류의 해결책을 찾거나 적어도 부분적인 '진실과 화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게 그런 바람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가족 및 친구들, 기본적으로 한때 저와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첼시 매닝, 존 키리아쿠, 제프리 스텔링 등의 실제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제 이야기는 완전히 기록에서 삭제되어 '그런 일은 없었다'는 파일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장면이 너무 뻘해서 없었던 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뻘합니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공개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례는 제 사례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에는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제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 학과장 및 학장과의 싸움, 비사회적인 성격, CIA 에서 일했다는 이야기 등 수많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와 가족들이 저와의 사적인 대화에서조차, 그리고 심어 놓은이 모든 명백한 허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바로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모든 적법 절차를 박탈당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피해를 주는 소문에 노출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허구"라는 용어의 선택

'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서사가 전적으로 허구라고 주장하는 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허구의 소설'로 표현하기로 한 이유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진실을 가장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증거에 대한 엄격한 요구로 인해 종종 인위적으로 부과되는 제한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이 제 3 자가 자체 조사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준다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또는 언급된 사건 중 몇 가지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글이 허구가 아니라 음모론 블로그에서도 다루지 않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 소설을 허구의 소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기밀 누설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어떤 사실이 기밀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러한 사안이 논의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걱정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구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내러티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서로 다른 정보를 하나로 엮어야 했습니다. 확실한 사실과 이름도 모르는 제 3 자의 설명, 그리고 추론을 통해 전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글은 네이처의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이 아닙니다.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잠시나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소설은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생물학자가 공룡 뼈에 근육과 피부를 붙여 원래의 형태를 복원하는 것처럼 저는 뼈에 살을 붙여야 했습니다. 창의적인 행위이지만 그 목적은 전적으로 과학적입니다.

이미 공개된, 그리고 100% 정확하다고 인증된 문서에만 집착했다면 이미 충분히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것만 고수하는 것은 이야기를 크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현재 미국 내 어느 누구도 연방 정부, 일리노이 주 또는 일리노이 대학교의 행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요구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절차의 시작부터 제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관련자들이 이 사건에 대한 비윤리적이고 위선적이며 불법적인 침묵의 맹세를 깨기 전까지는 문서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면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진실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전직 문학 교수로서 허구와 진실의 관계에 대해 길게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디어, 논픽션 서적 등에서 접하는 소위 '진실'이라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노골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과 안보를 계산하는 전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우스꽝스럽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진실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 소설을 쓰면서 참고한 출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쉽게 문서화할 수 있고 여러 목격자가 있는 많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식 기록을 통해 대규모 불법 음모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러한 요구뿐입니다. 제가 한 유일한 일은 그러한 조사를 기꺼이 지지하는 제 3 자가 있을 때까지 그러한 항소를 미룬 것뿐입니다.

즉, 범죄 음모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문서(FBI 또는 CIA 내부 보고서)에 접근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작전이 수행되었음에 틀림없고 그 제한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질환으로 인해 1 년 동안 병가를 내야 했던 제 이야기는 의료 기록만 봐도 몬티 파이썬의 촌극처럼 들릴 정도로 허점이 가득합니다. 주요 인사들과의 가장 기초적인 인터뷰만 봐도 조직적인 음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2001 년 2 월에 갑자기 정신질환자라는 누명을 쓰고 그들과의 교류를 중단한 후 아무런 의학적 평가 없이 병가를 내기 전까지 학과 구성원들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 후 저는 병가 중에도 수업을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병가" 기간 동안 제 강의에 대해 단 한 건의 불만이나 우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학기에는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4 년 일리노이주에서 해고되었을 때 저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대학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심지어 임시직도 아닌 CIA 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설에 포함된 다른 자료들은 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중요성을 입증하려면 약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해 두었던 조셉 알퍼와의 서신은 2 년 전에 신비롭게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억에 의존하여 이야기의 일부를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하드 드라이브나 다른 오픈 소스에 남아 있는 많은 자료가 있으며, 그 의미는 분명하지만 이를 이해하려면 진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소설은 제가 직접 목격했지만 제 3 자가 문서화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그 사건들은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들을 제외하는 것은 독자와 대중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와 다른 곳에서 제 경력을 깎아내리려는 조직적인 노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우연과 다른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그러한 노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것은 독자에게 중요한 자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도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를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도가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유일한

불확실성은 정확한 동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제가 목격자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신뢰하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문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CIA 본부의 '밥'과 같이 제가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제가 음모의 본질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델을 개발하도록 이끌 만큼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화의 형태로 등장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제가 직접 알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 추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삼자가 원격 교육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2001 년에 제가 그토록 완전히 무너져야 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투자 은행가들의 회의에서 제가 원격 교육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회의가 열렸다는 증거는 없으며 아마도 그런 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은행가들이 비슷한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회의가 열렸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에서 그 부분이 기록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빼는 것은 독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신문을 매우 주의 깊게 읽었고, 당시 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신문에서 읽었거나 읽지 않은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추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중 일부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사적인 대화를 통해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한 정직한 조사를 통해 제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는 허구의 소설에 의존해야 합니다.

부록

원격 학습 제안

일리노이 대학교, 도쿄 대학교, 서울대학교, 북경대학교

2000 년 6 월

세계 대학으로서의 일리노이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 분야에서의 첨단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일리노이대학교, 도쿄대학교, 서울대학교, 북경대학교가 첨단 컴퓨터 기반 화상회의 기술과 인터넷 통신을 활용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단기 목표:

향후 2 년간 일리노이대학교, 도쿄대학교, 서울대학교, 북경대학교의 인문학 핵심 강좌가 교육자원처에서 제공하는 첨단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4 개 참여 학교의 학생과 교수진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대학교는 컴퓨터 공학 및 컴퓨터 과학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프로그램과 첨단 인터넷 역량을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각기 다른 국가의 4 개 기관에서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연계의 활용은 궁극적으로 대학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우선 인문학, 특히 동아시아 연구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만 진행되는 몇 가지 집중 세미나에 국한된 짧은 파일럿 프로그램 이후, 동아시아학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는 정식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입니다. 미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다양한 강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대학교가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일리노이대학교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전 세계의 학교들이 부러워하는 동아시아 연구 프로그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 및 다른 지역 대학의 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인문학 및 과학 분야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학자 그룹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의 동아시아 연구 프로그램과 그 이후 다른 학과를 미국의 어떤 학문 프로그램과도 경쟁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꿀 것입니다.

하버드와 같은 사립대학이 동아시아 연구 분야에서 한두 명의 뛰어난 교수를 고용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동아시아 주요 3 개 기관의 강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컴퓨터 과학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일리노이대학교는 전 세계 인문학 연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리노이대학교는 도쿄대학교, 서울대학교, 북경대학교와 함께 영어로 된 강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리노이대학교에 수요가 많지 않은 강좌의 경우에도 세 대학 간 화상회의를 통해 공유된 강좌를 전달하는 중계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대학은 화상 회의 및 인터넷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 교육의 세계 표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장기 목표

미국은 날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유럽보다 동아시아 지역과 훨씬 더 큰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의 일부인 멕시코와 캐나다 다음으로 주요 무역 파트너는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한국입니다. 현재의 변화 속도라면 향후 5년 내에 중국, 일본, 한국이 3대 교역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자제품부터 소프트웨어, 일상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현재의 제조 및 기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응용과학 분야는 동아시아의 학술 기관 및 민간 기업들과 점점 더 많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동아시아 출신 대학원생과 교수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학은 우리 캠퍼스에서 그에

결맞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리노이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전자공학부나 컴퓨터공학부처럼 명성이 높은 강력한 동아시아학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이 국제 인터넷 교육 프로젝트는 일리노이 대학교를 동아시아 연구의 주요 센터로 만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일리노이 대학교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문학 분야에서 일리노이 대학교의 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미국에서 동아시아 문화가 주류가 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동아시아 연구 분야의 뛰어난 프로그램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미 컴퓨터 업계에서는 다아시아 언어 워드 프로세싱이 거대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도 해당 언어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아시아의 대학에서 원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인문학 프로그램이 적어도 이공계만큼의 명성을 얻지 못한다면 일리노이대학교가 국제적인 대학이 되는 데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기술 분야의 강점을 살려 인문학 프로그램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은 응용 과학 분야로도 확대되어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쿄대학교, 서울대학교, 북경대학교와 연계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리노이대학교는 동아시아 연구의 주요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대학과 강좌를 공유하여 일리노이대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서는 들을 수 없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수진은 충분한 청중을 확보하지 못한 다른 기관의 학생들을 위해 강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컴퓨터 관련 연구, 첨단 기술 기업과의 교류, 졸업생들의 미래 시장 등 많은 부분이 동아시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버드나 프린스턴과 같은 대학은 인문학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교수진은 소수의 유명 교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리노이대, 도쿄대, 서울대, 북경대 학생들이 일리노이대에서 운영하는 격자형 교육 과정을 통해 다른 어떤 대학도 따라올 수 없는 폭넓은 강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의 장을 평준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인문학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삼을 것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 3 국은 미국과 경제, 기술,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제도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민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리노이대학교는 21 세기 경제와

문화를 주도할 아시아 3국 간의 지적 교류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도쿄대학교의 학생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북경대학교의 수업을 듣는 것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복잡한 관료주의에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일리노이대학교의 국제 화상회의 및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의 주요 기관이 될 수 있으며, 동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리노이대학교의 역할도 커질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 분야로도 확장되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복잡성과 즉각성을 갖춘 네 기관 간의 과학 프로젝트 협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일리노이대학교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고등 교육에서 피할 수 없는 혁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교육은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시스템이 구축되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터키 또는 다른 지역의 대학에서 개설된 강좌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호응도가 낮아

이전에는 제공하지 못했던 전문 강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생과 방문 교수진의 비자 관련 문제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위치상의 단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완전히 상쇄될 것이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의 유연성은 곧 아이비리그의 주요 대학들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학들처럼 기부금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대학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해외 프로그램, 교수진에 필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리노이대학교는 이 새로운 국제 학술 교류 네트워크의 통로가 될 것이며, 이를 빠르게 추진한다면 학계의 선두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관련 단계:

A) 일리노이대학교, 도쿄대학교, 서울대학교, 북경대학교가 참여하는 정해진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학술회의 시리즈. 중국 현대사와 같은 주제에 대한 컨퍼런스에는 각 참여 대학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매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 행사를 통해 이 새로운 접근법의 힘을 모든 관련자들에게 확실히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화상회의 교육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도쿄대, 서울대, 북경대와 협의. 4 개 캠퍼스 모두에서 적절한 시간에 화상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가 상호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전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2000~2001 학년 과정입니다. ISDN 또는 I.P. 회선 또는 전자 시각화 연구소의 새로운 액세스 그리드가 사용될 것입니다. 수업 시간은 중국 시간 오전 8 시~11 시 30 분, 서울/도쿄 오전 9 시~오후 12 시 30 분, 샴페인-우르바나 오후 6 시~9 시 30 분입니다.

C) 평가판 프로그램을 위한 소규모 관리를 설정합니다.

D) 각 대학의 수업을 정기적으로 4개 대학의 학생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러한 수업의 화상 회의 및 인터넷 구성 요소에 대한 통일된 형식을 설정합니다. 강좌를 구성하고 일리노이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3개 캠퍼스의 학생들도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 대학교의 일본사 강의는 베이징, 도쿄,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기관의 동아시아학 인문학 강좌를 영어로 진행하며, 이후 4개 대학 모두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일리노이대학교에서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 다른 강좌는 4개 대학에서 모두 녹화하여 4개 캠퍼스에서 제한된 수의 학생에게 웹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온라인 비동기식 토론은 가끔씩 진행되는 화상 회의를 보완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어로만 진행되는 4 개의 세미나(각 캠퍼스에서 1 개씩)로 한정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국 각 캠퍼스마다 실물 크기의 송신기 스크린, 동시 전자 칠판, 각 학생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형 패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완벽한 인터넷 및 이메일 기능을 갖춘 특별한 시설을 갖춘 방 또는 일련의 방이 설치될 것입니다.

D) 4 개 대학 간에 제공되는 강좌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

E) 나중에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각 참여 기관의 모든 교수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학자들이 서로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F) 4 개 대학 간에 학점이 부여되는 코스 집합을 실행합니다.

G) 각 대학당 한 개의 인문학 강좌에서 인문학 및 과학 강좌를 모두 포함하도록 강좌를 확대합니다. 또한 인문학 및 과학 공동 연구의 일환으로 7 개 대학 간의 화상 회의를 주선합니다.

H) 아시아, 유럽, 일리노이 대학 간의 과학 분야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이러한 화상 회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 기술의 범위를 빠르게 확장하여 일리노이 대학교가 교육 분야에서 확실한 세계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 접근 방식

1)

지정된 수업의 강의는 비디오로 녹화되어 다른 캠퍼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를 시청한 후 이메일 형식의 답변(또는 웹페이지에 게시)을 작성하여 해당 강의를 시작한 캠퍼스의 조교가

답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강의 비디오 녹화물은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강의 비디오 테이프와 한 번만 보여준 후 파기할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뉘었습니다.

2)

비슷한 과목을 공부하는 각 대학 학생들 간의 이메일 주소 교환.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공통 웹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리며 대화를 이어가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학생들이 이전에 조사했던 주제에 대해 화상 회의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

교수와 연구원을 위한 정해진 주제에 대한 확장된 학술 화상 회의. 비슷한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 화상 회의를 통해 공통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공통 웹페이지에 게시글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가장 적합한 언어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학자들이 출장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결국 집 컴퓨터에서 이러한 학술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국제 회의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4)

4 개 대학에서 비슷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해 화상 회의를 통해 가끔씩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비학점 지적 교류에는 교수진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5)

엄선된 세미나는 4 개 캠퍼스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화상 회의로 진행됩니다(주제에 적합한 언어로 진행). 이러한 세미나는 주로 공동 웹사이트에 매일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제 화상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 주에 한 번(현지 캠퍼스 학생 모임과 번갈아가며 진행) 진행됩니다. 시험지는 채점을 위해 이메일로 전송되지만, 원본임을 식별할 수 있는 특수 코드가 필요합니다. 학생이 받은 성적은 모든 경우에 자신의 교육기관에서 확인되므로 수강한 코스에 대한 학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6)

코드를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각 기관의 관리자 간 공동 웹페이지. 예를 들어, 이러한 웹페이지를 통해 각 기관의 학장들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도 향후 협력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장이 다른 세 기관에서 같은 직급의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7)

비슷한 분야의 학자들이 공유하는 공동 웹페이지. 예를 들어 중국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4 개 기관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가 등재된 웹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스스로 학술 교류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8)

각 대학에서 인터넷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정해진 주제에 대한 50 분짜리 멀티미디어 수업 모듈. 각 모듈은 A) 교수의 음성 강의, B)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세트, C) 관련 이슈를 설명하는 관련 텍스트 세트, D) 중국어 발음 녹음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50 분 분량의 한시 모듈은 교수의 주제 강의, 중국 풍경과 전통 의상 이미지, 한시 원어 및 번역본, 시인의 자작시 낭송 녹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전체 모듈을 시청한 후, 학생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응답하고 자신의 캠퍼스는 물론 다른 세 캠퍼스의 학생들과 이메일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생은 또한 조교가 댓글을 채점하는 조교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9)

대규모 병렬 연구실. 칩 제조와 같은 전문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화상 회의, 정교한 공유 웹페이지, 상호 데이터베이스, 체계적으로 조율된 계획으로 촘촘한 조직을 통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대학 사이에 대규모 병렬 연구실을 만들어 교수진과 시설을 집적하고 복잡한 작업을 분할하여 할당함으로써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차원의 속도와 정교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0)

최근 한국, 일본, 미국 정부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득을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등 이민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종종 불공평하지만, 이민은 고려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학생과 학자들이 인터넷과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의 대학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다면 중국을 떠나지 않고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학업을 마친 후에도 중국에 남아

인터넷, 공유 데이터베이스,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국제적인 기업에서 일하며 세계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11) 비동기 심포지엄:

비동기식 심포지엄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혁신적인 형식으로, 문화적인 이유로 전혀 접촉할 수 없는 비슷한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들끼리 지적 담론을 나눌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참가자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한 답변을 게시할 수 있는 기본 채팅방에 해당하는 4 개의 병렬 웹페이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실험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가 제안되었지만 가능한 언어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4 개의 병렬 웹페이지에 각각 게시한 답변은 다른 3 개 언어로 번역되어 참가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게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동기식 심포지엄에서는 기술과 세계화라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웹페이지가 개발되고 번역자를 찾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비동기식 심포지엄은 4 개의 병렬 웹페이지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비동기식 심포지엄은 4 개의 병렬(그러나 연결된) 웹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각각 한 페이지씩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각 웹페이지의 상단에 4 개 언어로 된 질문 또는 주제가 게시됩니다. 학자(또는 전문가)는 해당 주제에 대한 답변을 자신의 언어로 설정된 웹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따라서 중국인 학자는 중국어로만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대학원생(또는 전문 번역가)은 12 시간마다 각 웹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다른 3 개 언어로 번역하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따라서 4 개 언어 중 한 가지 언어로 게시물을 읽는 학자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만 외국어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로그인하려면 특별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 형식은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간의 의미 있는 대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설령 만나다 해도 서로 마음이 불편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비동기식 교류를 통해 구축된 관계는 추가적인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대학원생에게 번역을 맡기는 데 드는 비용은 미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동기식 심포지엄의 결과는 잡지나 신문에 게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의 주요 지식인이나 정부 관료들은 늦은 밤 업무에 지칠 때 이 비공식 토론에 로그인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기본 원칙

I

차세대 인터넷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 전달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인터넷 연결의 체계적인 적용과 관련된 기관들 사이에 두꺼운 결합 조직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연결 계층 구조의 효율성과 사용자 친화성이 캠퍼스의 실제 물리적 시설보다 대학의 위상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해외의 다른 대학과 인터넷 및 화상 회의로 연결되는 것이 대학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곧 분명해질 것입니다.

II

대학을 상상할 때 수백 개의 파편으로 부서진 거울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각각의 파편이 밝게 빛나며 총합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각각의 유리 조각을 아주 조금만 기울이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각 파편을 실제로 움직이거나 이식할 필요 없이 한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세워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각 조각에서 반사된 빛은 하나의 지점, 즉 하나의 목표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조각에서 반사된 빛이 밀도가 높은 돌을 증발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해집니다. 이 광선에 다른 기관의 파편에서 반사된 빛을 더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III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구하여 부동산으로 큰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20 년 또는 30 년 동안의 도시 지도를 보고 비즈니스와 주거 중심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 다음, 향후 5~10 년 동안 도시가 어떻게 확장되고 변화할지 보간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한 후,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농지를 매입한 후에는 농부들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었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대학을 계획해야 합니다.

IV

화상 회의는 향후 몇 년 안에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훨씬 더 합법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인터넷 기술은 '실제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지금이 바로 이 기술에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화상회의 역시 이 시기에 인터넷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분야에 체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V

시간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비동기식 학습은 라이브 교육만큼 효과적이거나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시간 화상 회의로 진행되는 비동기식 토론은 필요한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서면 답변이 강의실에서의 의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지 기술을 다듬기만 하면 됩니다.

VII

인터넷 연결은 기관을 하나로 묶는 연결 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결 섬유가 점점 더 두꺼워지면서 여러 대학의 전문가들이 짝을 이루면 독특한 국제 학술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컨셉 웹 페이지:

www.staff.uiuc.edu/~epast

